



제 4 편 산업·경제

제1장 산업 産業

제 1 절 농업(農業)

8·15 해방이 되고 미군정 하에서 미곡증산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일제 때의 것을 답습하여 형식적이었고 비료의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은 위축되었다. 또한 일제 때의 반봉건적 토지소유 잔재가 그대로 남아 분규가 계속됨으로써 토지 소유관계의 개혁도 요청되었다. 이에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으나 6·25로 인해 중단되게 되었다. 1951년부터 다시 전국의 농지분배가 시작되었는데 전북에서는 52년 말까지 장수, 완주, 금산, 임실, 순창, 정읍 등지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농지분배를 마쳤다. 6·25동란 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식량자급화와 국가안정에 의한 인플레이션 수습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53년부터 57년까지 제1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종법개선, 경작면적 확장, 종자개량, 비료증시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55년 이후 잉여농산물 도입이 본격 추진되어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었다. 그리하여 57년에 다시 제2차 농업증산 5개년 계획(58~62)이 수립되어 수리시설확장, 비료의 증시, 종자 개량, 병충해 방제, 경종법개선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소를 이용해 밭을 경작하는 모습

이어 61년에 군사혁명정부는 중농정책을 내걸고 농어촌 고리채정리, 농협과 농은 통합,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에 의한 축산장려, 추곡담보 용자제의 확대에 의한 쌀값 폭락견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중농정책은 일부 원예작물과 고구마 등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저농산물가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농촌의 근대화를 자각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어 농업주산지 조성 계획, 안정농가 조성 계획, 식량증산 7개년 계획, 전작수익 배가 계획 등이 계속 나왔다. 전북에서는 농업주산지 조성계획으로 33개 지구에 15개 품종을 선택하였다.

65년부터의 저곡가정책은 물가안정과 공업화 촉진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농가경제는 궁지에 몰렸다. 곡가는 제자리였으나 농기구 구입비는 증가함으로써 소위 협상가격차 현상이 발생하여 농가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농가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장수군의 경우 농가 인구가 63년의 66,404명에서 70년 64,811명으로 7년 동안 1,953명이 감소하였다.

위의 저곡가정책은 농촌을 피폐하게 하였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근대화가 시급하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70년대부터는 농가경제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전근대적 농업형태에서 근대적 농업형태로 바뀌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적의 범씨라 불리는 새로운 종자 통일벼가 개발되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장수군에서도 72년에 처음으로 아이알 667호가 재배되었다. 또한 영농기술의 발달에 따른 현대식 과학영농, 농기구의 현대화, 농약 살포의 기계화, 각종 수리시설의 개선 및 경지정리사업 등의 농업근대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으나,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06. 14에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년 7월부터 10년 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12.14에 제정하였고, 1996.10.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추가, 경영 장부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추진하였다.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에 의거 수산관련사업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포함시켜 2008. 7. 23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여 시행하고 있다.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장수군내 농가호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62년 10,618호에서 85년 7,777호로 무려 2,841호가 감소되었고 2007년 6,140호로 4,478호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 수는 62년 9,395호에 85년에 7,128호로 2,267호가 감소하였고, 2007년 4,046호로 무려 5,349호가 감소되었다.

반면 겸업을 하는 농가호수가 현저히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전업농가의 비중이 줄어들고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아가는 것은 60년대부터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외 취업의 확대뿐 아니라 농가경제가 농업수입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일부를 농외부문으로 옮겨서 수입의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농가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1963년에 65,865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85.7%에 달했으나 82년에는 24,174명이 감소한 42,230명으로 전체인구의 77.8%를 차지하고, 2008년도 농가인구는 19,885명으로 전체인구에 83.3%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군의 업태별 농가호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전통적 농업형태인 주곡의 생산을 위한 답작 위주의 농가호수는 감소하고 반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와 축산, 과수, 특용작물 등 경제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별 농가인구 수를 분류하면 농촌의 중견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20~50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60~70세의 노년층 농업노동력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노동력의 부족을 말해주며, 농업이 부녀화 및 노령화되어 가고면서 농업생산력 저하의 원인을 야기하고 있다.

1986년 본군의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83.6%로 전북(40.9%) 및 전국(19.7%)보다 매우 높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86년 15~59세는 총 농가인구의 62.1%로 전국평균치 61.9%와 거의 같은 비율이며, 20~59세는 43.3%로 전국치 46.8%보다 다소 낮다. 70~86년 사이의 연령별 인구추이를 보면 15세 미만은 가족계획 및 가임여성(可妊女性)의 이촌(離村) 등으로 70년 43.1%에서 86년 23.4%로 19.7%가 줄었고, 2007년도에는 16.2%로 26.9%가 줄었다. 60세 이상은 70년 6.8%에서 86년 14.7%로 늘었고 2007년도에는 27.4로 늘어나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현상을 보여준다.

가. 전·겸업별(專·兼業別) 농가호수

1986년 전업농가가 전체 농가 중 91.6%로 전북 84.5% 및 전국 평균 79.1%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전업농 구성 비율은 80년 92.9%에서 85년 91.6%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08년도에는 65.5%로 대폭 줄었다.

개별농가의 노동력이 완전 가동(稼動)될 정도의 규모인 전업농은 바람직스럽지만, 우리나라의 현 전업농은 적정 농업규모가 아닌 대부분 영세농이며, 타 분야에서 겸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업농이므로 농촌공업 등을 통하여 겸업 농의 확대와 경지 규모를 충분히 맞춘 전업농의 육성이 필요하다.

2. 경지면적

1986년 총 경지면적은 8,570ha로 경지율이 16.1%에 불과해 전국의 경지율 21.6% 및 전북 30.6%보다 매우 낮다. 이는 본군의 지형이 대부분 경사가 급한 높은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지대이기 때문이다. 70년부터 86년 사이의 경지면적의 변화를 보면 전(田)이 99ha 증가되고, 답(畓)이 29ha 감소되어 총 70ha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07 년도에 경지면적을 보면 7,520ha로 전(田)이 2,988ha, 답이 4,532ha로 그 동안 많은 면적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0 년 이후 식량증산시책으로 야산이 개발되어 전(田)면적은 다소 늘어났으나, 90년대 이후부터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농지가 도로, 택지, 농업용 시설, 공업용지 등 타 용도로서의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86년 1,110ha로 전북 평균 1,210ha보다 다소 낮으나 전국평균 1,120ha와 비슷한 규모이다. 70~86년간의 변화를 보면 0.77ha에서 1.10ha로 0.33ha가 늘어나 동기간 전북치 증가량 0.34ha와 같은 양이나 전국 평균 증가량 0.20ha보다 다소 높았으며, 2008년도에 호당 경지면적은 1.69ha로 86년도와 비교해서 0.59ha가 늘었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가 수 감소로 인하여 호당 경지면적이 늘었다.

3. 경지규모

1986년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1%로 영세농이 많으며, 전국평균 63.2% 및 전북 평균 63.6%보다도 상당히 높다. 장수군의 2.0ha 이상 농가는 4.3%로 전국평균 5.8% 및 전북 평균 7.3%보다 낮다.

1970대에서 1986년도까지 규모별 농가수의 변화를 보면 경지 규모 2.0ha 이상 농가는 70년 1.6%에서 86년 4.3%로 다소 증가했으나,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ha 미만의 농가는 70.8%에서 70.1%로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 전체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69ha로 86년도와 비교해서 0.59ha가 늘어 점차 규모화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경작지 현황

본군은 전북동부 산악권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農耕地)도 계곡 및 산등성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고별(標高別) 분포상태를 보면 100m 이하는 경지가 거의 없으며, 200~600m에 85.5% 그리고 300m 이상 고지대에 76.4%가 분포되어 있다. 고지대에서의 경작이 대부분이라 냉해(冷害)가 우려되지만 고랭지 채소재배와 600m이상 지역에서의 씨감자 재배에 적합하다.

본군은 산간지역이라 경사지에 위치한 농경지가 많으며, 경사도 7% 이상이 총 농경지의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전답별로 보면

전(田)은 75.2%이고, 답(畓)도 39.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및 농업 기계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토양의 토성별 면적을 보면 총 경지 중 사토가 16.9%, 사양토 74.5%, 양토 34.1%이고 식양토가 1.5%를 점하고 있다. 답의 경우 사토가 15.5%이고, 사양토가 69.1%로 사토 내지 사양토가 총 답(畓)면적의 84.6%를 차지해 수도작 재배에 불리하므로 점토의 객토가 필요하다.

경지의 지력상태를 보면 유기물, 유효인산, 칼리, 칼슘 등의 함유량은 양호하나 CEC 및 유효규산(有效珪酸)의 함량은 적정치보다 매우 낮다.

또한 경토심은 적정치보다 6~8cm가 미달되어 다수확을 위해서는 경토심의 적정화 및 산도(酸度) 교정(矯正)도 요망된다.

5. 작부체계(作付體系)

본군은 전국적으로 보면 산간부이지만 군지역의 표고에 따라 다시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로 구분되며 각 지대별 현행 작부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야지대(산서, 번암면)



답(畓)에서는 답리작으로 벼, 맥류, 딸기, 수박, 사료(飼料)작물, 마늘이 재배되고 있으며 전(田)에서는 고추, 고구마, 인삼, 시설상추, 참깨+김장채소, 수박+김장채소, 담배+사료작물, 두류, 봄배추+(콩, 팥) 등의 작부유형을 이루고 있다.

나. 중, 산간지대(장수, 장계, 계남, 천천, 계북면)

답(畓)은 수도단작(水稻單作)외에 답리작으로 사료작물과 배추를 재배하고 있으나 답에도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모작율은 높지 않다. 전(田)에서는 사과, 오미자, 인삼, 고추, 오이, 참깨 + 김장채소, 담배 + 가을채소, 담배 + 가을채소 + 들깨, 수박 + 여름채소 + 가을채소, 오이 + 콩 등의 유형이 있다.

6. 농가소득



APC 미더의 사과선별작업

1986년 본군의 농가소득은 반당 5,292천원으로 전국 평균 5,995천원의 88%수준이다. 원천별 구성비를 보면 농업소득은 72.9%로 전국 평균보다 181천원이 많으나, 농외소득은 27.1%로 전국 평균(38.7%)보다 884천원이 작다.

또한 본군의 농가소득은 전국 산간지역 소득의 91%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농외 소득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본군에서는 2007 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기획, 맞춤형 농업경영 프로젝트로 순환농업을 통해 경종과 축산간 물질순환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작목과 작목 간 소득보완과 기술 집약으로 고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작목별, 농가별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연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 3천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가구당 농업 소득추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가구당 전국평균소득이 30,523천원이고 전북도 평균이 28,959천원이나 우리 장수군 평균 농가소득은 전북 평균소득 대비 3,541천원이 높은 32,500

천원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2007년 대비 2009년도에는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군은 8%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32%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57%이상이다.

7. 식량작물생산



장수군의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63년에 17,364.5M/T에서 87년에는 재배면적이 5,405.0ha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363.5M/T가 증가한 25,728.0M/T를 나타내고 있다.

주곡인 미곡의 생산량은 63년에 9,622.1M/T로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의 55.2%였으나, 87년에는 12,432.9M/T가 증가한 22,055.0M/T로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맥류의 경우는 63년에 재배면적이 전체재배 면적의 35.2%인 4,218.4ha이던 것이 87년에는 전체의 8.0%인 527.0ha로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63년 890.0M/T로 전체생산량의 5.1%이었으나 87년에는 1,119.1M/T로 4.3%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밖에 잡곡, 두류, 서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역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미곡생산량의 변화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3년의 전체생산량 9,622.1M/T 가운데 논벼의 생산량이 99.9%인 9,621.5M/T이고 발벼는 74년 이후 점차 그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논벼의 10ha당 생산량은 63년에 213kg에서 86년에 최고

466kg을 생산하였고 87년에는 458kg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는 60년대 이후 주곡의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보급, 농토배양을 위한 객토, 생짚넣기, 소석회 및 규산질비료의 사용, 보온 못자리와 같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철저한 병충해 방제 등의 결과이다.

맥류의 경우를 살펴보면 63년에 재배면적 4,218.4ha, 생산량 890.0M/T이던 것이 87년에는 재배면적이 63년의 12.4%인 527ha, 생산량은 1,119.0M/T로 63년에 비해 229kg이 증가하였으나, 65년 이후 계속 재배면적이 감소하게 된 것은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 수준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인 경제작물이나 과일류를 재배하게 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맥류는 1975년 3,720ha에서 1986년 445ha로 줄어 88%가 감소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서류(薯類) 62.2%, 두류(豆類) 22.6% 그리고 밭벼가 3.1%씩 감소되었다. 보리, 감자, 고구마의 감소 원인은 1970년대까지는 식량부족으로 이를 주식량으로 이용해 왔으나 1980년대에 쌀 자급으로 인해 이들이 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며 두류재배지는 소득성이 높은 전작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주곡 작물 위주의 자급 농업에서 시장 지향의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하면서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원예, 특용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되었다. 2000년대에는 WTO, FTA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농 규모의 확대, 영농의 기계화, 품질의 고급화 등을 모색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가. 벼 품종의 변천사

1) 재래종

한국 벼재배 역사와 함께 발전 분화되어 온 품종으로 정확한 육성연대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가뭄·냉해(冷害) 및 만식(晩植)적응성이 높고 병충해에는 약한 품종들이다.

1906년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의 설립 이후 단편적으로 수집되었고, 1921년 권업 1224호를 각 도지사에 공한을 냄으로써 본격적인 재배종의 수집이 시작되었다.

1921년 전국에 걸쳐 수집한 재래종은 그 수가 수천에 이르나, 동명이종과

이명동종이 많았고, 이들 수집 중 가운데는 메벼 유망종(有芒種)과 찰벼 품종이 많았으며, 메벼 무망종은 비교적 적었다.

품 명	내 용
조동지(造同知)	1896년 독농가 조중식(趙重植)이 경기 여주군 금사면의 논에서 발견한 것으로 산간 지방에 광범위하게 재배되던 품종이다.
노인죄(老人租)	동명이종(同名異種)이 많으며, 숙기(熟期)도 차이가 많이 난다. 보존품종은 충남 비인에서 수집되었고, 중부 이남지역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던 유망 중생종이다.
다다죄(多多租)	평남 진남포와 경기 죽산에서 수집되었는데 유망종과 무망종이 있다.
정근도(情根稻)	충남 서산에서 수집되고 경기 충남 전북 지방에 재배되던 중만생 유망종이다.
구황도(救荒稻)	경북 칠곡에서 수집되고 충남 전북 경북의 평야지대에서 널리 재배되던 만생 유망 장간 수중형으로 부와 부사이 자갈색이고 호영과 까락은 담황색을 띤다.
자치나	경기 충남 등 중부지방에 재배되던 만생 무망 찰벼로서 장간 수중형이다. 부와부선이 자갈색이고 호영이 갈색인 중립종의 중질 품종이다.
적나	평북 의주에서 수집되고 중부 이북지방에 주로 재배되던 조생 소립 장간 수중형 찰벼품종으로 1960년대까지 찰벼의 장려품종으로 남아 있던 양질 소립종이다.
금나	충남 경북 일원에 널리 재배되던 장간 수중형 만생 유망종이다. 경북 예안에서 수집되고 부와 부선은 자갈색 호영은 갈색은 중립 중질미의 찰벼 품종이다.

2) 도입재래종

권업모범장 설립 이후에 일본 재래종이 많이 보급되어, 한국 재래종을 대신하여 전국에 보급되었던 품종들로서 한국 재래종보다 수량성이 현저히 높고 병해가 다소 적은 경향이 있다.

품 명	내 용
조신력(早神力)	1일본에서 입수하여 권업모범장에서 시험을 거쳐 전국에 보급되어 넓은 지역에서 장기간 재배되던 품종으로 조생신력(早生神力) 이라고도 한다.
다마금(多摩錦)	도입 경위가 불확실한 장간 수수형 품종으로 만생종이다. 이 품종은 밥맛이 좋아서 중부지방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었다.
관산(關山)	1925년 이전에 일본에서 수집하여 농가에 보급되었던 조생종으로 키가 크고 분얼이 적으며 까락이 길고 많다.
애국(愛國)	일본에서 수집한 품종으로 권업모범장에서 순계분리(純系分離)를 통하여 많은 변종이 분리되었다. 수원에서는 중생종에 속하고 중간(中稈)이며 까락은 길고 많다. 중생종으로 비교적 미질이 좋고 수량성이 높아 많이 재배되었다.
은방주(銀坊主)	일본에서 수집되어 1925년 이전에 권업모범장에서 시험한 품종이다.
곡량도(穀良都)	1925년 이전에 권업모범장에 의해 일본에서 수입한 품종이다. 수량성은 매우 높고 적응지역이 넓으며 재해 저항성이 높아 6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던 우수 품종이다.

품명	내용
빛구리나	1938년 대구 농업시험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취종한 품종이다. 중생종으로 중간(中稈)·단망(短芒)이고 찰벼로서는 수량이 많은 편이며 품질도 우수하다.

3) 국내 육성 품종

1906년에 권업모범장이 설립되어 품종개량을 실시한 결과 한국 재래종이 일본 재래종으로 대치되고 다시 이들 일본 재래종이 국내 육성 품종과 일본 육성품종들로 대치되기 시작한 것이 40년대 이후이다.

이 육성 품종들은 재래종에 비하여 키가 짧아 도복에 강하고 병해에 저항성이 커서 수량과 작황의 안정성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품종	내용
풍옥	남선지장현 전남 작물시험장에서 육성한 남선20호를 풍옥으로 명명하였다. 재래종들에 비하여 간장이 짧고 소립종으로 수수형에 속한다. 밥맛이 특히 좋으나 도열병에 약하며 재배기간은 길지 않아 널리 재배되던 중만생종 메벼이다.
수성(水城)	농림10호와 은귀(銀龜)5호를 교배하여 육성한 수원146호를 1958년에 수성으로 명명하고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다. 중부지방에서는 중생종에 속하며 비교적 단간(短稈)이고 분얼이 적으며 황백색의 까락이 다소 있는 중립종(中粒種)이다. 탈립성은 보통이고 병충해 저항성은 없으나 도복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아 중부지방과 경북 및 전북의 산간지방에 널리 재배되던 품종이다.
팔굉(八紘)	여목조생선과 중생은방주3호를 1928년에 교배하여 남선87호를 육성하고 경북에서 선발하여 1944년 팔굉으로 명명함과 동시에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남부 평야지대 특히 2모작지대에서 광범위하게 지배되던 우수품종으로 역대 품종들 가운데 만식 적응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장간 수수형으로 중립종이고 미질은 비교적 좋으며 성숙기에는 황적색을 나타내어 아름답다.
팔달(八達)	조생은방주53호와 남선23호를 1933년에 교배하여 수원88호를 선발하고 58년에 팔달로 명명함과 동시에 장려품종이 되었다. 중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중간중(中稈種)으로 황백색의 까락이 드물게 있다. 벼알은 중립(中粒)이고 미질이 좋으나, 도열병 등의 병해 저항성이 없다. 적응 지역은 중, 북부지방과 남부 산간지역으로 당시의 재배품종인 은방주나 곡량도·금(錦)보다 수량성이 현저히 높았다.
풍광(豊光)	풍옥과 서광을 교배해서 1956년 수원162호를 선발하고 1965년에 풍광이라 명명함과 동시에 장려품종이 되었다. 중부지역과 남부 중산간지대에 적당하며 팔달을 대신할 수 있는 품종이다. 내비력(耐肥力)이 강한 단간 중생종으로 수수형에 속하며 황백색의 적은 까락이 있다. 벼알은 중립이고 탈립이 안되며, 병해에도 비교적 강하다. 중부지역과 남부 중산간지가 재배적지로서 수량성은 팔달과 거의 비슷하다.
진흥(振興)	농림13호와 쌍엽(雙葉)을 1948년에 교배하여 1955년에 수원158호를 선발하고 62년에 진흥으로 명명하여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다. 중부지방에서 중생종이고 이삭이 크며 분얼이 적은 중간(中稈) 수수형이다. 까락은 거의 없고 탈립이 안 되며 벼알은 중대립(中大粒)종에 속하고 내비력이

품 종	내 용
진흥(振興)	강하다. 복백이 다소 있고 밥맛은 좋지 않으나 수량성이 높고 도복에 강하며 품종보급 초기에는 내병성도 좋았다. 중부지역에서 팔달과 풍옥을 대신할 수 있는 품종이었으나 흰빛잎마름병과 도열병에 약하여 널리 재배되지 않는다.
재건(再建)	쌍엽과 일진을 교배해서 1952년에 수원152호를 선발하고 1962년 재건으로 명명함과 동시에 진흥과 함께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다. 중부지역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비교적 단간(短稈)으로 황백색의 까락이 드물게 있다. 중립종(中粒種)으로 탈립이 안 되며 미질과 빛깔이 좋아서 중부 이북과 남부 산간지방에 많이 재배되었다. 병충해 저항성은 없으나 재해에 대한 안정성은 높은 품질이다.
팔금(八鎗)	아아니시끼와 팔공을 교배하여 1966년에 이리291호를 선발하고 1967년에 팔금이라고 명명하고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다. 초기에는 남부 평야지역에 보급했으나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하고 숙기가 늦어서 현재는 제주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만생 장간종이고 도복에 강한 편이며 미질이 비교적 좋은 중립종(中粒種)이다.
농백(農白)	농립29 호와 이시がり시로게(石狩白毛)를 교배하여 1963년에 수원 198호를 선발하고 1969년에 농백으로 명명하여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다. 중부지방에서 조생종에 속하며 간장(稈長)과 수장(穗長)이 비교적 짧은 품종이다. 황백색의 긴 까락이 많으며 탈립이 안 된다. 중립 종으로 미질은 보통이고 내냉성과 도열병에 강한 특성이 있다. 남부 고랭지와 중북부 산간지 및 북부평야지에 적합하며 중부지역의 조식재배나 만식재배에도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 수량성은 산간지역에서 팔달이나 수원82호보다 현저히 높다.
낙동(洛東)	농립6 호와 미네유다까를 교배하여 1972년에 밀양 15 호를 선발하고 1975년에 준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에 낙동벼로 명명하였다. 남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장간 수수 형으로 중립종에 속한다. 줄기가 약간 가늘고 길어 도복에 약하다. 황백색의 짧은 까락이 드물게 있고 도열병에는 약하나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여 남부지역 평야지에 알맞은 품종이다. 내만식성도 좋으며 복백(腹白)은 적으나 밥맛은 좋지 않다.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일반형 품종이다.
관악(冠岳)	콩고(金剛)와 수원82호를 교배하여 1971년에 수원222호를 선발하였으나 수량이 통일 품종에 미치지 못하여 폐기한 것인데 강원 철원지방에 널리 퍼져서 전체 식부면적의 80%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1979년에 준장려품종으로 승격시키고 80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하면서 관악벼로 명명한 조생계 일반 품종의 메벼이다. 간장은 보통이고 까락이 없는 중립종으로 줄기는 가늘고 긴편이지만 도복에 잘 낄린다. 쌀알은 맑고 깨끗하나 밥맛은 좋은 편이 아니다. 병충해에 대한 특별한 저항성은 없으나 콩고와 같이 포장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재배지역은 중북부 평야 및 중산간지와 남부의 준고랭지이다.
진주(眞珠)	HR769(팔금/TN-1/팔공 TN-1)와 BL-1을 교배하여 1978년에 이리345호를 선발 1980년에 진주벼로 명명하고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다. 이 품종은 인디카(Indica)의 '인' 자가 가미되었으나 일 반계로 선발이 되었고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여 남부평야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다. 다소 장간(長稈)으로 이삭수는 적으나 이삭당 입수는 많다. 까락이 없고 탈립이 안 되며 줄무늬잎마름병을 제외한 다른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고 만식 적응성도 낙동벼 보다는 낮다. 미질은 별로 좋지 않은 중립종이다.
설악(雪嶽)	내냉성 품종인 푸지280 호와 내병성 품종인 BL-1을 교배하여 1978년에 철원21 호를 선발하고 1979년에 준장려품종으로, 1980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하고 설악벼로 명명하였다. 중·부부지방에서 조생종에 속하며 단간 수수형 품종이다. 황백색의 짧은 까락이 드물게 있고 탈립이 안 되는 중립종이다. 복백은 다소 있으나 밥맛이 좋다. 농백이나 레이메이에 비하여 수량성이 높고 도복과 냉해에 강하여 북부 평야, 중·북부 중산간지 및 남부 고랭지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4) 도입 육성종

국내 육성 품종들이 재래종과 대체되어가는 가운데 광복과 6·25전쟁의 혼란기를 맞아 벼 품종 개량에도 차질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의 유망한 육성 종들이 다소 도입, 보급되었으나 현재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품 종	내 용
후지사카 (藤城5호)	일본에서 1953년에 도입된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1961년에 장려품종이 되었다. 중부지방에서 8월 5일경에 출수하는 조생종으로 내냉성이 강하여 북부 및 산간 고랭지에 육유(陸羽) 132와 137호를 대신하여 보급되었다. 무망 단간이고 탈립이 안 되는 중립종의 메벼로 미질은 나쁜 편이다.
농립6호	상주와 선일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한국에는 1937년에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1952년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다. 전남, 전북 및 경남 평야지에 보급된 만생 무망종이다. 장간(長稈)이면서 줄기가 가늘고 길어 도복에 약하나 만식 적응성이 비교적 높고 탈립이 안 되며 소립 양질 품종으로 밥맛이 특히 좋은 품종이다. 잎도열병에는 약하나 목도열병에는 강한 경향이 있고 다른 병충해 저항성은 없다. 수량성은 적절한 시비 조건에서는 비교적 높다.
시로가네 (白錦)	도마(東山) 38호와 중생은방주를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1953년에 도입되어 1962년에 장려품종이 된 중생종이다. 황백색의 짧은 까락이 약간 있고 탈립이 안 되는 중립종으로 미질은 좋다. 재배적지는 중부 이북지방과 남부 중산간 지역으로 이 지역에 널리 보급되었다. 수량성은 팔달이나 풍옥보다 다소 많고 미질이 좋아서 장기간 재배되었다.
신2호 (新二號)	일본에서 구미1호와 개량해국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1956년에 도입되어 1962년에 장려품종이 된 조생종이다. 비교적 단간의 수수형 품종으로 황백색의 짧은 까락이 드물게 있으며 탈립은 안 되고 소립종에 속하며 미질은 좋은 편이다. 도열병에는 약하나 흰빛잎마름병에 강한 흔하지 않은 품종이며 냉해에도 강하다. 재배적지는 강원산간지역과 충북의 고랭지이며 이 지역에서는 수량이 좋은 편이다.
농립25호	일본에서 도아마(東山) 12호와 긴키(近畿)15호를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1955년에 도입되어 1963년에 장려된 품종이다. 남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단간으로 초형(草型)이 양호하고 도복에 강하다. 황백색의 까락이 드물게 있고 탈립이 안 되는 중립 종으로 미질은 보통이다. 적당한 시비 조건에서는 다수성이지만 내비성은 약하고 목도열병에 특히 약하여 도태된 품종으로서 교배육종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조합능력이 낮아서 후대(後代)에 좋은 계통이 나오지 않았다. 중남부 평야지에 주로 보급되었다.
농립29호	일본에서 긴키15호와 긴키9호를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1959년에 한국에 도입되어 58년에 등록된 품종이다. 남부지방에서 중조생종에 속하며 중간(中稈)으로 이삭이 길다. 황백색의 까락이 드물게 있고 탈립이 안 되며 미질이 좋은 중립종이다. 도복에는 비교적 강하나 목도열병에 약하여 폐기된 품종으로 전남, 전북과 경남지역에 널리 보급되던 다수성 품종이다.
김마제 (金南風)	양작과 중생옥(中生旭)을 교배하여 육성한 일본 품종으로 1959년 한국에 도입되어 1965년에 전남과 경남지역에 장려되던 단간 수수형 만생종이다. 백색의 까락이 드물게 있고 탈립이 잘 되는 중대립종으로 미질은 나쁘다. 내비력(耐肥力) 내염성(耐鹽性)이 있고 도열병 및 도복에도 강하나 흰빛잎마름병에는 특히 약한 품종으로 전남에서는 장려품종에서 제외되었다. 수량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품 종	내 용
아키바레 (秋巴雷)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969년에 도입되었고 1971년에 장려품종으로 결정된 품종이다. 중부 지방에서 중만생종에 속하며 단간 수수형의 소립 무망종이다. 미질은 좋고 밥맛이 좋아 경기 일원에서 많이 재배되었는데 그 수량은 빈약하다. 단간으로 도복에는 비교적 강하나 다른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없고 냉해에 대해서도 일반 품종 중에서 약한 편이다.
사도미노리	일본에서 내병성인 PI-3 과 중국(中國)10호를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1966년에 도입하여 1969년 장려품종이 되었다. 중남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비교적 단간이고 도복에 강하다. 중립 종으로 탈립이 안 되고 쌀의 모양은 좋으나 밥맛은 나쁘다. 내비력이 강하여 다비재배에서 증수되는 경향이나 수량성은 높지 않다. 도열병 등 병충해에는 비교적 강한 경향으로 중남부 평야지가 재배적지이다.
레이메이 (黎明)	후지미노리에 60Co를 방사선 처리하여 만든 돌연변이 육성품종으로 1968년에 일본에서 도입하여 1977년 고랭지의 준장려품종으로 결정되었다. 철원지방에서 농백보다 5일 정도 빠른 조생종으로 단간이고 도복과 내비력이 강하다. 특별한 병충해 저항성은 없으나 재해 저항성이 강한 편이고 소립이며 미질이나 밥맛은 나쁘다. 조생종이며 강원도의 해발고도 400m 이상의 고지에 보급되어 있다.

5) 통일형 신육성품종

기존의 육성품종들은 혈통이 유사한 자포니카(Japonica)간의 근연교잡이어서 품종개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병충해 저항성이나 수량성을 더 이상 향상시키기가 힘들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인디카(Indica)의 우량 형질을 도입하는 원연교잡 육종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많은 새로운 품종들이 육성되었다.

품 종	내 용
통일(統一)	IR8, TN-1(타이완 재래종) 및 일본 홋카이도의 유가라라는 조생종을 3원 교잡하여 만든 최초의 원연 교잡종으로서 한국 벼품종 육성에 전기(轉期)를 만든 품종이다. 중부지역에서 중만생종에 속하나 기본영양생장기간이 길어서 중남부 평야지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단간 수수형으로 줄기가 굵고 곧게 서므로 광합성 능력이 높다. 황백색의 짧은 까락이 약간 있고 탈립이 잘 된다. 벼알은 크나 현미중은 진홍과 비슷한 중대립종이고 복백이 많아서 미질이 좋지 않고 밥맛이 나쁘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가가 높다. 기존품종들에 비하여 줄무늬잎마름병·흰빛잎마름병·도열병 및 도복에 월등히 강하나 내병성은 약하여 조식(早植)하는 것이 좋다. 수량성은 기존 품종들보다 월등히 높은 다수성 품종이다. 78년에 새로운 도열병 변이균에 의해 이병화(罹病化)되고 또 양질의 다수성 품종들이 계속 육성됨에 따라 1980년의 장려품종에서 타락되었으나 이 품종이 한국 농정사(農政史)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품 종	내 용
조생통일 (早生統一)	통일품종에서 주숙(早熟) 개체를 선발하여 순계분리(純系分離)에 의해 육성된 조생종이다. 통일에 비하여 2주일정도 빠르기 때문에 한수(漢水) 이북까지 통일형 신품종의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특성은 통일과 비슷하며 이 품종도 1978 년의 도열병 피해 이후로 재배가 점차 줄어가고 있다.
밀양密陽21호	통일품종의 탈립에 대한 반대 여론에 봉착하여 개발해 낸 비탈립(菲脫粒) 조생종이다. 영남작물 시험장에서 IR24와 수원231호를 교배하여 밀양21호를 선발하고 1976년에 장려품종으로 선정하였다. 단간수중형의 소립종에 속하며 밥맛이 좋다. 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에는 강하고 흰빛잎마름병에는 약하며 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 평야지의 답리작과 중산간지대에 널리 보급된 다수성 품종이었으나 근래에는 도열병과 흰빛잎마름병으로 심하게 이병화 되고 있다.
일양23호	작물시험장에서 수원232호와 IR24를 교배한 후대(後代)를 영남작물시험장에서 1974년에 선발하여 1976년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동계(冬季)증식한 후 장려품종으로 보급되었다. 중생종에 속하며 기본영양생장기간이 매우 길어서 넓은 지역에서의 적응성을 가지고 있고 만식적응성은 약하다. 단간 수중형으로 이삭수는 적으나 이삭당 입수가 많고 중립종으로 수량성이 상당히 높다. 잎은 농록색이고 초형이 양호하며 광합성 능력이 높다. 까락은 없고 벼알이 가늘고 길며 맑고 깨끗하여 밥맛이 좋다. 탈립이 매우 심하므로 우박이나 태풍이 잦은 곳에서는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흰빛잎마름병에 약하고 다른 병충해에는 비교적 강하며 품종보급 초기에는 도열병에도 강했으나 1978년 이후로 도열병에 이병되기 시작하였다. 냉해에는 약하여 산간 고랭지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중남부 평야지에서 널리 재배되던 획기적인 다수성 품종이다.
유신維新	통일품종의 미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미작연구소에서 통일 계통과 IR1317-392 계열을 교배한 일련의 교배 조합들 가운데에서 IR 1589를 선발하고, 이 중에서 우수한 계통에 이리317호를 부여하여 74년 및 75년 겨울에 국제미작연구소에 종자증식한 후 유신으로 명명, 장려품종으로 결정하였다. 분얼이 매우 왕성한 단간 수중형으로 통일에 비하여 미질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만식 적응성도 높아서 전국적으로 재배되었으나 냉해에 특히 약하고 지나친 분얼로 인하여 잎집무늬마름병에 특히 악한 반응을 보여 현재는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이 품종도 78년 이후부터 도열병에 이병되고 있다. 남부 평야지의 2모작 답에 적당하다. 충해에 저항성은 없다.
황금(黃金) (수원251호)	통일품종의 미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물시험장에서 1969년에 타이완의 양질 다수성 품종인 대중육(臺中育)129호와 통일을 교배하여 1974년 수원251호를 선발하고 76년 장려품종으로 선정, 1980년에 황금 벼로 명명하였다. 중부지방에서 통일보다 약간 빠른 중생종으로 단간 수중형 품종이다. 특성은 통일과 비슷하나 벼알이 약간 가늘고 길어 시장성이 떨어지나 밥맛이 신품종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 품종도 1978년 이후부터 도열병에 이병화되어 현재는 재배되지 않는다.
금강錦江 (수원258호)	양질 내병 다수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작물시험장에서 수원232호 국제미작연구소의 육성 품종인 양질 다수성 IR 24를 교배하여 1974년에 수원 258호를 선발하고 1976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였으며 1980년에 금강 벼로 명명하였다. 단간 직립으로 초형이 극히 우수하며 광합성 능력이 높고 기본영양생장기간이 길어서 광지역에서의 적응성이 크지만 만식에는 약하다. 중부 지방에서 만생종에 속하며 만식하면 출수지연이 심하다. 품종보급 초기에는 도열병·흰빛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 등에 모두 강하고 벼멸구를 제외한 주요 충해에도 상당히 저항성이 크며 수량이 매우 높은 우량 품종이었다. 1978년 이후 도열병에 이병되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다. 탈립은 중 정도로 알맞고 까락은 없으며 벼알은 둥근 편이다. 복백이 약간 있고 밥맛은 보통이다.

품 종	내 용
만석(萬石) (수원264호)	통일품종의 적고(赤枯)와 탈립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1972년에 작물시험장에서 수원28호, IR 1325(비 탈립성 품종) 및 IR 24호를 3원 교잡하여 1975년에 수원 264 호를 선발하고 1977년에 장려품종으로 선정한 후 1980년 만석 벼로 명명하였다. 단간이지만 이삭이 매우 길고 등숙(登熟)이 좋으며 비탈립성이다. 잎은 담녹색이고 내비력이 매우 강하다. 중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기계이앙에 적합하다. 제초제에는 약하고 저항성도 높으나 만식 적응성은 약하다. 못자리 생육기간이 길면 때로는 불시출수(不時出穗)하기도 한다. 벼알은 까락이 없고 소립종이며 복백이 거의 없고 밥맛이 좋다. 1978년 이후로 도열병에 이병되었다. 재배지역은 중부평야와 중남부 중산간지에 적합하다.
노풍(魯豐)	조숙 양질 내병성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71년 호남 작물시험장에서 KR93과 통일을 교배하고 1975년에 이리 327호를 선발한 후 1977년에 노풍으로 명명하고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동계 증식한 뒤 농가 보급과 동시에 장려품종이 되었다. 만식 적응성이 유신보다 좋고 단작에서 수량이 높으며 벼알이 가늘고 긴 소립 종으로 미질이 극히 좋은 품종이다. 그러나 78년 농가에 대량 보급되자 곧 목도열병이 격발하여 노풍파동이라는 일대 흉작을 초래하였다. 현재는 장려품종에서 폐기되어 재배되지 않는 한국 농정사에 기록될 만한 파문을 던진 품종이다.
내경(來敬)	영남작물시험장에서 1971년 수원231호와 IR24를 교배하여 1976년에 밀양 29호로 선발하고 1977년에 장려품종이 되면서 내경으로 명명되었다. 이 품종은 기본영양생장기간이 긴 중생종으로 밀양23호 및 수원258호와 함께 가장 다수성 품종으로 인정되는 매우 우수한 품종이다. 단간수중 형으로 입중(粒重)이 무겁고 탈 립이 잘 되는 품종으로 까락이 없다. 벼알은 다소 연질(軟質)이며 동할(胴割)이 잘 되고 미질과 밥맛은 보통이다. 광지역 적응성이나 만식 적응성이 낮고 냉해에 약한 편이어서 만식이나 고랭지, 북부지역에는 재배가 부적당하다. 품종보급 초기에는 병충해에 비교적 강하였으나 1978년에 노풍과 더불어 목도열병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받은 품종이다. 장려품종에서 폐기되었으나 일부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재배되고 있다.
밀양(密陽) 30호	내병충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72년 YR 929와 YR 90 및 YR675를 다계(多系)교잡하여 1975년에 밀양30호를 선발하고 1977년에 장려품종으로 결정한 중생종이다. 도열병·흰빛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벼멸구·흰등멸구·애멸구 등 주요 충해에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우수품내병충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72년 YR 929와 YR 90 및 YR675를 다계(多系)교잡하여 1975년에 밀양30호를 선발하고 1977년에 장려품종으로 결정한 중생종이다. 도열병·흰빛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벼멸구·흰등멸구·애멸구 등 주요 충해에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우수품종이다. 그러나 냉해에 약하고 만식 적응성이 낮으며 수량성도 높지 않아서 농가에 보급이 잘 되지 않았는데 1978년의 도열병 피해 이후인 1980년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다가 냉해로 인한 결정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탈립성은 중간이고 까락이 없으며 벼알은 복백이 있는 소립 종으로 밥맛은 나쁘다. 현재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태백(太白) (수원287호)	국제미작연구소에서 IR 24와 내병충성인 IR 747을 교배하고 작물시험장에서 육성 선발하여 1978년에 수원287호로 명명, 1979년에 장려품종이 되었으며 1980년에 태백벼로 명명되었다. 중부지방에서 조생종에 속하며 분얼이 다소 많은 편이다. 탈 립은 중 정도이고 벼알은 가늘고 길며 소립이고 미질과 밥맛은 좋다. 이삭이 나오는 기간이 짧고 균일하며 만식 적응성이 높다. 초기 냉해에는 상당히 약하지만 후기 냉해에는 무난히 건디는 편이고 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흰

품 종	내 용
태백(太白) (수원287호)	빛잎마름병 등의 주요 병해에 강하나 충해에는 약하다. 중부 평야지, 남부 3모작지대 및 남부 중산간지에 적합한 품종이다.
한강(漢江) 찰벼	작물시험장에서 1975년에 내병충성인 IR 2061과 조숙 다수성인 KR 51을 교배, 세대 촉진하여 1978년에 수원290호를 선발한 후 1979년에 장려품종으로 결정되고 1980년에 한강찰벼로 명명되었다. 중부지방에서 중만생종에 속하는 수중형 품종이다. 벼알의 무게와 이삭의 크기가 기존 품종보다 월등하고 남부지방의 준만식 재배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량을 나타내는 다수성 찰벼이다. 가뭄과 냉해에는 약하지만 도열병·흰빛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잎집무늬마름병에도 비교적 강하며 벼멸구·흰등멸구·애멸구·끝동매미충 등 멸구류에도 강하나 줄기가 굵어서 이화명충에 약하다. 탈립이 잘 되는 편이고 미질도 월등한 획기적인 양질 다수의 내병충성 품종으로 중남부 평야지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될 수 있다.
서광(暑傍) (이리342호)	호남작물시험장에서 밀양23호와 내병성인 IR 1545를 교배하여 1978년에 이리342로 선발하고, 1979년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동계 증식하는 것과 동시에 장려품종이 되고 80년에 서광벼로 명명되었다. 신품종 중에서 비교적 장간(長桴)이고 기본영양생장기간이 길다. 만식 적응성이 약하고 냉해에 약하지만 광지역 적응성이고 수량성도 매우 높다. 벼알은 까락이 없고 탈립이 잘 되며 중립종으로 맑으나 밥맛은 보통이다. 장간종이면서 줄기에 굴절이 있어서 비료를 많이 주면 도복할 염려가 있다. 도열병과 줄무늬 잎마름병·흰빛잎마름병에 강하지만 충해에 대한 저항성은 없다. 중남부 평야지의 1모작 답에 광범위하게 재배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백운(白雲) 찰벼 (이리344호)	호남작물시험장에서 1975년 일반계 품종인 밀양20호와 내병충성인 IR29호를 교배하여 1978년에 이리344호를 선발하고 1979년에 장려품종에 편입된 후 1980년에 백운찰벼로 명명되었다. 출수기가 남부지방에서 밀양21호와 비슷한 조생종으로 평양지에서는 수량성이 낮으나 만식 적응성이 있고 탈립이 안 된다. 냉해에 약해서 고랭지 재배는 어려우나 중남부의 중산간지에 알맞으며 맥후작도 가능하다. 도열병·흰빛잎마름병 등의 병해에 강하고 애멸구·끝동매미충·벼멸구에 강하며 흰등멸구와 이화명충에는 약하다. 미질이 좋은 소립종의 찰벼이다.
청청(靑靑) 벼	영남작물시험장에서 1974년에 YR 675와 내병충성인 IR 2035를 교배하여 1978년에 밀양46호를 선발하고 1979년에 준 장려품종으로 선정된 후 1980년에 청청벼로 명명되어 장려품종으로 되었다. 기본영양생장기간이 길어서 만식 적응성은 없으나 광지역 적응성이 이고 이삭에 복지경이 거의 없어 등숙이 양호하나 임실률은 낮다. 벼알은 까락이 없고 탈립은 중 정도이며 중대립종에 속한다. 밥맛은 보통이고 복백이 다소 있다. 수량성이 서광벼나 한강찰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좋은 편이다. 냉해에는 약하나 도열병·흰빛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 강하며 충해에도 한강찰벼와 마찬가지로 강한 우수품종이지만 이화명충에 약하다.

6) 육도(발벼)

벼의 육도와 수도의 뚜렷한 구분 기준은 없으나 오랜 세월을 걸쳐 진화를 거듭하여 생태나 형태 면에서 차이가 있다.

습윤한 밭에서는 수도를 재배해도 되지만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육도보다 못하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수리시설이 빈약하여 많은 육도품종들이 전국적으로 재배되었으나 수리시설이 개선됨에 따라서 점차 그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현재는 1만 ha 미만이다. 과거에 재배되던 품종들은 많이 소멸되고 현재 도입품종까지 합하여 700여 종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의 재래종 육도는 대부분 메벼이고 유망종이며 무망종은 드물다. 찰벼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으며 찰벼 역시 무망종은 몇 품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유망종인데 이와 같은 경향은 유망종이 무망종보다 불량환경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상식(常食)하기에는 찰벼가 부적당하여 밭 상태에서는 품질이 불량한 데도 부구하고 메벼가 대종을 이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품 종	내 용
육도(陸稻)	한국 재래종으로서 유망종이다. 21년 재래종 수집 당시에 발나락·발벼·육도 등으로 불리던 것을 한자로 표기함에 따라서 육도로 통일된 것으로 생각된다. 함남 북청에서 전남 보성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모든 육도는 부와 부선이 담갈색이고 까락과 호영(護穎)은 담황색·담갈색·자갈색·흑갈색 등으로 차이가 있다. 출수기는 조생·중생·만생으로 여러 변이 형이 있으며 대부분 장간 수중형이다. 벼알은 중소립종에 속하는 메벼로서 미질은 나쁘다.
산도(山稻)	한국 재래 육도로서 유망 메벼이다. 주로 경남·경북·전남·전북일대에 재배되던 조생종으로 장간 수중형이고 부는 자갈색·담갈색·갈황색을 띠며 부선과 까락은 갈색 호영은 갈황색으로 벼알은 둥글고 중립종이며 미질은 좋지 않다.
전첩(戰捷)	중국 원산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된 육도 메벼 품종이다. 까락이 다소 있고 장간이며 탈립이 알맞다. 벼알은 중립종으로 미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내병성이 강하여 일본의 내병성 품종들의 상당수가 전첩의 혈통이 가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인정되어 육종 재료나 병리연구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수량성은 비교적 높으나 장간으로 도복이 잘 되고 미질이 나빠서 현재는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다.
오백도(五百稻)	정확한 출처는 미상이나 최근까지 강원·충북 등지에서 재배되었던 육도로 무망종 메벼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백적(五百稈)·음성재래(陰城在來) 등이라고도 한다. 비교적 단간이고 분얼은 적으나 이삭당 벼알이 500개씩이나 달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극단의 수중형 품종이다. 속기는 조생종에 속하며 다른 육도품종과 달리 이이 농녹색이다. 벼알은 작고 미질이 좋지 않으나 도복에 강하고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장점이 있다.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현재는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다.
육도농림나(陸稻農林)호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미질이 나쁜 메벼는 재배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미질이 우수한 찰벼가 밭벼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농림 나1호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밭벼 장려품종이다. 일본에서 등장(藤藏)찰벼와 전첩을 교배하여 육성한 찰벼로서 40년에 도입되어 67년 장려품종이 되었다. 중부지방에서 중생종에 속하며 장간 종으로 황백색의 까락이 약간 있다. 벼알의 탈립은 중간 정도이고 중립종이며 미질은 양호하다.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는 비교적 강하나 다른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은 없다. 내한성(耐旱性)이 강하고 수량성이 높으며 광지역 적응성이 크고 현재 전국의 장려품종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한국 육도재배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나. 보급종자 공급 현황

1) 벼

(단위 : M/T)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8,829	8,853	9,021	10,095	12,258	12,620	12,623	12,982	12,952	10,782	13,312	14,028	15,732	16,799	19,675
금오벼	20														
남원벼	28	28	31												
대진벼						190	172	511	488	38					
삼천벼					19		149	113	321	86	42				
상산벼				1	35	47	48								
상주벼		73	124	119	136	66	57	56	37						
심금오벼			2	2											
신운봉벼			33	38	40										
여명벼	62														
오대벼	632	787	587	827	1,104	996	883	808	710	717	1,100	1346	1,253	1,269	1,149
운봉벼	61	2													
중화벼						38	160	294	282	266		179	109	72	
진미벼	46	68	82	37											
진부벼			18	19	20	37	47	34	27						
진부올벼			7												
진부찰벼		1				1									
그루벼								1		61					
상주찰벼								1							
상미벼										135	245	104	45		
운두벼										14		1			
태봉벼											1	27	40	33	
중산벼											1		117	3	
새상주벼											29				270
운광벼															
화동벼									57	56	29	46			
안다벼										7	3	1			
간척벼			1	412	189	137	134	33	155	37					
금호벼 1호						1		2							
금호벼 2호							1	15							
남천벼					124	10	10	9		5					
내풍벼								91	99						
농인벼				3											
다산벼					252	10	10	9							
동해벼	58	65	24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봉광벼	329	232	253	162	179	117	110								
서안벼		29	39	77	207	275	243	202	160	33	23				
서진벼							101	196	142	10					
신선찰벼	19	49	93	111	93	93	60	99	93					29	
안산벼						233	27								
안중벼		29	48	62				38	66	4					
장안벼	120	50													
주인벼				17			1								
청명벼	38	27													
팔공벼	89	15													
화산찰벼			1	2	1	1	1					1			
화성벼	852	722	623	395	644	763	737	572	540	321	285	239	157	85	
화영벼	21	210	530	694	718	621	815	775	639	710	650	500	556	450	566
화진벼	82	71													
수라벼									1	633	772	480	358	303	156
광안벼										6	31				
화봉벼										396		98	48		
원황벼										74					
아름벼											3				
계화벼	299	620	657	530	558	465	138								
금남벼				31	440	772	632	385							
낙동벼	266	61													
대산벼						285	501	1,616	975	79					
대안벼				27		410	835	491	1,108	790	475	419	535	600	583
대아벼			4	176	133										
대청벼	123	42													
동안벼						228	287	1,124	1,844	932	799	500	346	275	318
동진벼	3,768	2,899	2,485	2,748	2,941	3,405	2,119	359							
동진벼 1호												10	2,468	3,657	4,217
신동진벼											6	1	181	226	664
만금벼		347	452	370	338	121									
영남벼		167	330	381	342	507	218	100							
일미벼					332	403	1,733	2,216	1,635	1,397	1,926	1,618	1,164	910	1,557
일품벼	29	449	1,068	1,011	681	466	562	949	1,371	1,341	1,557	1,227	873	1,060	1,042
추청벼	1,751	1,782	1,519	1,837	1,706	1,496	1,225	894	576	1,082	2,031	1,953	2,507	2,921	4,073
새추청벼											839	1,082	1,150	809	558
탐진벼	136	28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향미1호				1											
화남벼				5	491	102	136								
화삼벼						259	159	804	133						
화신벼					302	271	339	179							
남강벼								4	477						
남평벼									864	1,479	2,483	2,758	2,259	2,693	2,489
동진찰벼										73	1	55	93	113	195
삼광벼	50										9	1,355	1,216	1,128	1,393
주남벼															
호평벼	239														
세계화벼												25	253	47	46
삼덕벼														48	
기타								2	152		1	3	4	8	17

2) 보리

(단위: M/T)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567	1,584	1,584	1,601	1,849	1,477	2,524	2,177	2,344	1,965	1,873	1,853	1,664	1,542	1,625
울보리	631	681	631	661	852	491	859	536	665	399	436	301	293	268	193
대진보리		3		14											
새울보리		2	3												
탑골보리	48	13	2												
알보리	83	37	29												
찰보리	1		2	3	2										
동보리	1														
알찬보리	1														
밀양찰보리				1	2										
큰알보리					46	30	33	19							
대백보리						2	46	189	131	179	279	271	70	75	98
서둔찰보리								2		9	7				
미락보리								48	36	94					
대연보리											65	51	21	22	22
큰알보리 1호												2	109	140	132
서둔찰보리											8	9	10	1	
건강보리													2	3	
상록보리											1	69	51	5	
새찰쌀보리							220	280	494	195	121	245	297	263	242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새쌀보리	754	764	807	861	905	749	1,274	1,018	891	898	798	680	600	522	467
무등쌀보리	48	76	71	34											
흰쌀보리				26	26	88									
찰쌀보리		7	3		16										
내한보리		1		1											표 411-1
흰찰쌀보리						117	92	85	124	133	97	165	143	137	197
진미찰쌀보리															
재안찰쌀보리												3	65	74	19
대호쌀보리											3	2			
수영쌀보리													1	26	
풍산쌀보리														5	
호반찰쌀보리													2	1	
기타									3	4					3
선우보리(사료용)															4
영양보리															248

3) 옥수수

(단위 : M/T)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33	270	188	142	173	194	249	215	168	84	105	102	77	57	39
수원19호	162	203	130	95	119	112	173	160	115	46	58	62	40	29	22
평성옥	32	32	31	18	21	42	8	7	8	3			6	4	3
광안옥	37	23	14	8	7	26	30	10	11	3	14	6			
광평옥														2	11
찰옥1호	2	12	13	21	26	14	38	38	34	32	33	34	31	22	3

4) 감자

(단위 : M/T)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7,923	8,000	7,476	9,041	10,175	9,665	8,479	8,176	8,987	9,224	9,011	7,473	8,264	8,693	7,777
수미	647	7,028	6,037	7,325	8,902	8,459	7,687	7,721	8,575	8,740	8,540	6,996	7,594	8,353	7,538
남작	6,362		435	605	308	103	160				8		40	14	
조풍	24	213	300	215	208	318	172						68	33	38
대지	596	598	394	480	246	300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세풍		1	1												
대서					5	73									
자심											1		12		
가원											1				
기타											1			1	3
가을감자 (대지)	294	160	309	416	506	412	460	455	412	484	460	477	550	292	198

5) 콩

(단위: M/T)

품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24	426	396	322	404	502	474	500	668	790	814	946	1,058	1,197	1,160
장엽콩		59	26	25	29	30	24	22							
황금콩	103	66	39	59	125	174	196	169	231	257	251	353	315	335	275
단경콩	200	264	68		19										
단원콩			178												
단엽콩	38	23	35												
보광콩	83			48	22	47		6							
새알콩				21	20										
태광콩						53	112	273	404	445	323	357	379	493	450
진품콩									6		18				
진품콩 2호											7				
대원콩										50	94	135	182	295	348
새울콩										8	13	34	59		
다원콩										6					
소담콩											75	23	27		
장미콩											4				
진품콩															
풍 산 (나물콩)								11	8	13	19	32	71	35	39
은하콩 (나물콩)		14	50	169	189	198	142	19	7	11	10	6			
청자콩 2호 (밥밀콩)	11														
기타													14	16	7

토마토

8. 소채류 생산



미곡 이외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채소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66년도 채소류 재배면적이 561.5ha, 생산량이 4,741.1M/T 이던 것이 87년에는 재배면

적이 1,141.1ha, 생산량이 17,254.0M/T로 크게 증가하였고 1986년 주요 채소의 재배면적을 보면 고추가 602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추가 129ha, 파 85ha, 무 80ha 및 마늘 71ha로 이들이 총 채소면적의 94%를 차지하였으며, 1975~1986년 사이의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무는 120ha, 호박은 21ha가 줄어든 반면, 고추는 316ha, 파 85ha, 배추 23ha, 그리고 토마토도 19ha가 재배 되었고, 2008년 현재 주요 재배면적을 보면 배추가 233ha로 가장 많고 고추 372ha, 무 81ha, 토마토 506ha, 쌈배추 14ha, 마늘 7ha 순이며,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토마토 및 쌈배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9. 특용작물생산

특용작물은 면화, 피마자, 참깨, 들깨, 낙화생, 대마, 완초 등을 들 수 있는데 참깨, 들깨, 낙화생을 제외하고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깨, 들깨 등이 고소득 작물임에 비해 다른 작물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깨는 69년에 재배면적이 79.9ha, 생산량 20.4M/T에서 87년에는 재배면적 114.1ha, 생산량이 82.0M/T로 증가했고, 07년에는 재배면적 21ha, 생산량 11M/T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들깨도 69년에 재배면적 101.1ha, 생산량 25.0M/T에서 87년에는 재배면적 146.1ha, 생산량 105.0M/T로 크게 증가하다가, 07년도 현재는 재배면적 51ha, 생산량 34M/T로 크게 감소하였다. 1975~1986년 사이의 총 특용작물 재배면적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작물별로 보면 들깨는 75ha가 증가된 반면, 참깨 및 피마자는 각각 14ha,

13ha 씩 감소되었고, 2008 년 특용작물 재배면적은 들깨 54ha, 참깨 40.6ha 이며, 대마 및 피마자는 현재 재배하지 않는다.

10. 과실류생산

본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 감 등인데 87년 말 재배면적이 가장 큰 과일은 사과로 전체 과실류 재배면적 89.8ha 의 83.7% 인 75.2ha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감으로 0.44%인 4.0ha, 복숭아는 0.40%인 3.6ha, 배는 0.17%인 1.6ha가 재배되고 있다.

1975~1985년 사이의 재배면적의 변화를 보면 총 재배면적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나 수종별로 보면 복숭아, 감 등이 각각 7ha, 11ha 씩 감소된 반면 사과는 19ha가 증가하였다. 1986년 총 과수 재배면적은 86ha로 타군에 비해 매우 적었고, 주요 과수는 사과 70ha 이었으며, 2009 총 과수 재배면적을 보면 사과 914.8ha, 배 33.7ha, 복숭아 13.3ha, 포도 5.2ha 등 전체적으로 과수면적이 증가되었다.

11. 장수사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 분	2005년 현황	2008년 현황	2009년 현황	비고(증감%)
사과재배면적	564ha	845ha	914.8ha	
재배농가	450 농가	536농가	596 농가	
생산총액(원)	생산액 200 억 매출액 170 억	생산액 400 억 매출액 350 억	생산액 457 억 매출액 398 억	
1ha당 평균조수익	30,000 천원	40,000 천원	50,000 천원	
1ha당 생산량	25톤	30톤	37.5톤	
호당 평균조수익	40,000 천원	65,000 천원	67,000 천원	
묘목생산판매		연간 30,000 주 (사과조합)	연간 30,000 주 (사과조합)	연간 평균
증장비활용		1억4 천 50ha X 7일 = 350 일	1억4 천 50ha X 7일 = 350 일	신규과원조성
농자재판매		40 억	45 억	
농약판매		15 억	15 억	
운송차량이용		2,000 대	2,000 대(2.5 톤 기준)	
인건비지급(원)		산출근거 1ha X 300명 = 12,000천원 X 548ha = 65억8천(인건비지급액)		성목기준전체 면적의 60%
사과로 인한 내방인		20,000명	30,000 명	
기타산업		요식업, 농자재, 증장비산업, 농기계사업, 택배산업 등)		

홍로(장수사과)

가. 장수사과의 특징



1) 지리적인 특징

- 토양과 배수조건이 양호하여 사과재배에 적합 합니다.
- 산간고랭지 특성상 공해가 없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저농약 투입으로 환경 친화적 신선사과 생산에 유리합니다.
- 사과 생산 최적의 지형인 해발 500~700m의 고원분에 위치에 있습니다.
- 사과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조건을 우월성으로 생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생육기 장수 일교차가 커서 육질이 단단하여 아삭아삭하고 온랑지수가 높아 착색 및 과당형성에 최적조건입니다.

과실대비	장수 평균 기온 (6~8월)	22℃ (최적온도 18~24℃)
과실성숙기	장수 평균 기온 (9~10월)	14.6℃ (최적온도 15℃)

2) 인적 특징

- 장수의 사과재배 농가는 평균적으로 10~30년 이상의 재배노하우로 수준 높은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품질의 세계최고의 장수사과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의 열정과 행정의 지원이 있습니다.

나. 장수사과의 역사

1) 장수사과의 역사

1908 - 장수군 계남면 하관빈씨 실생묘 최초 도입 재배 시작 “국광”

- 1968 -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유인형씨 MM,106 대목묘 도입 재배
- 1978 -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유인석씨 M,26 이중접목묘 도입 재배
- 1987 - 송재득씨 등이 장수에 전입하여 M,26 대목 이용 밀식 재배 시작
- 1995 - 사과 영농조합 설립
- 1996 - M,9 대목도입 군 직영 자근묘 생산 시험포 사업추진
- 1997 - 남원 농포 토취장 매입 군민의 의지모아 사과 시험포 조성
- 1998 - 이태리 수입묘 이용 저수고 밀식재배 시험사업 수행
- 2003 - 장수사과 사이버 팜 운영으로 장수사과 나무 온라인 분양 시작

2) 한국의 역사

옛날부터 재래종인 능금을 재배했지만 최근에는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1884 년경부터 외국 선교사가 각 지방에 몇 그루를 들여와 재식했는데, 처음에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상수를 심었다.

1901 년 윤병수 씨가 미국 선교사를 통해 다량의 사과 묘목을 들여와 원산 부근에 과수원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경제적 재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06년 8월 농상공부(農商工部)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독섬에 12ha 규모의 원예 모범장을 설치하고 각국에서 각종 과수의 개량 품종을 도입하여 품종비교 재배시험 등을 실시했다. 1996년 현재 전체 과수 재배면적의 25%, 전체 과실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중 경상북도에 서 약 66%가 재배되고 있다. 예산·충주·대구·사리원·황주·남포·함흥 등지가 사과산지로 유명하다.

3) 장수에서 재배되었던 품종

품 종	내 용
국광	1800년경 미국 버지니아 주 칼렙, 랄스씨의 과수원에서 최초로 주목을 받은 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홍옥과 함께 가장 많이 재배된 품종중의 하나이다. 후지로 대체되면서 현재는 재배되지 않고 있다. 장수지역에는 1908년경에 도입되어 재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로	홍로사과는 1980년 과수연구소에서 스퍼얼리블레이즈에 스퍼골든데리셔스를 교배하여 얻은 163배체중 과실 특성조사 결과 유망시된 14-20을 1987년 “원교 가-01”로 1차 선발한 품종이다. 1988년 “홍로”로 명명하여 종묘업체에 분양 완료하였으며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공시 전 지역에서 착색 및 품질이 우수한 추석 출하용 다수성 품종으로 인정되었다. 장수에는 1991년도에 들어왔으나 시장성 등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2001년도부터 추석명절의 대표적인 사과로 부각되면서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품 종	내 용
후지	후지사과는 1939년에 일본 과수시험장에서 국광에 데리셔스를 교배하여 1962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67년에 도입하여 1972년 선발 보급하였다.
홍월	홍월사과는 일본 아오모리현의 독농가가 골든데리셔스에 홍옥을 교배하여 1968년 선발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81년에 도입하였다. 본군에서는 홍로가 심겨지기 전까지 장수사과의 명성을 얻게 해준 품종이었으나 봉지를 써서 재배해야하는 단점 때문에 지금은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쓰가루	쓰가루사과는 1930년에 일본 아오모리현 사과시험장에서 골든데리셔스에 명칭 미상의 품종을 교배하여 1943년에 아오리 2호를 선발된 품종으로 1975년에 '쓰가루'로 명명되었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73년에 도입하여 1976년 선발하였다. 사과품종 중에서 가장먼저 수확되는 사과로서 일명 아오리 라고도 하며 장수에서는 그 면적이 점점 줄고 있다.
북두	북두사과는 1970년에 일본 아오모리현 사과시험장에서 후지에 육오를 교배하여 1981년에 최종 선발한 후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87년에 도입하였다.
세계일	세계일사과는 1930년 일본 아오모리현 사과시험장에서 데리셔스에 골든데리셔스를 교배하여 1951년에 1차 선발 후 1974년에 '아오리 4호'로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73년 도입하였다.
조나골드	조나골드사과는 1943년에 미국 뉴욕주립농업시험장에서 골든데리셔스에 홍옥을 교배하여 1968년에 선발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77년에 도입하여 1979년 선발하였다.
양광	양광사과는 1962년에 일본 군마(群馬)현 원예시험장에서 골든데리셔스 자연 교배실생을 파종하여 1978년에 최종 선발 후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83년에 도입하였다.
선홍 (뉴조나골드)	선홍사과는 1973년에 일본 아오모리현 독농가가 조나골드에 아조변이를 발견하여 1980년에 명명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81년에 도입하여 1987년에 "원에 가-04"로 선발하였다.
육오	육오사과는 1930년에 일본 아오모리현 사과시험장에서 골든데리셔스에 인도를 교배하여 1948년에 최종 선발 육성한 품종이다. 과수연구소에서는 1967년에 도입하여 1973년에 선발하였다.
시나노스위트	시나노스위트 품종은 일본 나가노현 과수시험장에서 '후지 X 쓰가루'를 교배하여 1996년도에 선발한 품종이다.
료카	료카 품종은 일본 아마가타현의 농가에서 후지와 스타킹의 혼식원에서 발견된 우연 실생으로 1999년도에 선발된 최신품종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기에 도입되어 일부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히로사키후지	히로사키후지 사과는 아오모리현에서 후지의 조숙계 돌연변이로 선발된 계통으로 아직 품종화되지는 않았다. 평균 과중은 300kg 내외로 후지와 비슷하다. 착색은 9월 상순부터 시작되어 9월 20일에는 짙은 붉은 색으로 양호했으며, 줄무늬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다소 느껴지는 정도였다.
나리타	나리타 사과는 일본 아오모리현에 있는 한 농가에서 후지 조숙계통으로 선발한 사과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고정 문제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 후 '나리따'로 명명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장수 사과와 오늘과 내일



사과꽃이 핀 과수원

山으로 하여 어려운 곳은 山으로 하여 살길이 열린다.

자연은 사람도 낳고 물·산도 낳는다. 걸출한 인물(人物)을 낳는가 하면 뛰어난 특산물도 낳는다. 장수사과는 바로 장수가 낳은 세계의 자랑할 산물임에 틀림없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비록 오늘은,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이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대갈하며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첫 걸음 만큼이나 당당한 출발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비유일까?

노벨 수상작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20년대 초 몇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발표한 작품 「신(神)은 일요일에만 일 한다」에서 한국 사과의 우수성을 「한국의 남부에는 사과로 유명한 대구라는 지역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나온다.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따먹던 그 사과보다도 더 맛있는 사과다.」라고 극찬하였다.

그런데 장수에서는 대구보다 훨씬 더 맛있는 사과가 나오니 하늘이 내린 세계적 사과 적지인 것이다.

타골이 「동방의 등불」에서/조용한 아침의 나라/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던 예찬을 마음속으로 믿으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마침내 오늘날 세계무대에 떳떳이 나서듯, 미래를 꿰뚫어보는 현자의 예언으로 믿어 나의 삶의 힘으로 삼을 것이다.

그럼 '사과'란 어떤 과실인가?

사과는 인류 삶의 시작인 에덴동산에서부터 사람과 인연을 맺어 왔다. 이

브가 꺾에 빠져 먹었다는 지혜의 과일이 영어의 Apple, 독일어의 Apfel, 프랑스어의 Pomme 나 사과 학명인 라틴어 Malus까지도 옛날에는 단지 「과실」이란 뜻의 단어였다는데서 「금단의 나무 열매」는 자연스럽게 사과로 지칭된 것이다. 무화과·포도·바나나가 그 열매라는 여러 가지 설도 제기되었지만 과실의 총 대표로써 에덴동산에 자리를 잡은 사과는 분명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백가지 과일의 왕인 것이다.

사과는 식물학의 분류에 의하면 장미과의 사과 속 식물의 일종이다. 사과 속에는 30종 이상이 있고 재래 사과나무의 대목으로 사용한 환엽해당·삼엽해당·아그배나무 등이 있으나 오늘날 사용하는 재배품종의 원산지는 아시아와 유럽대륙의 경계지인 「코카사스」의 북부로 알려져 있다.

원산지가 암시하듯 사과나무는 낙엽과수 중에서 대표적인 한지형(寒地型)과수이다. 비교적 냉량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의 중요 산지는 대체로 온대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구소련이 연간 6백만 톤으로 세계 제일의 생산국이고 다음이 미국·중국 등이다. 미국은 태평양 연안의 최북단 워싱턴 주와 오대호 근처의 미시간 주 등이 주산지이고, 중국에서는 산둥성·요동성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그 보다 훨씬 북쪽에서도 대규모 사과밭이 있다.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소농장이 그것인데 사과밭만 750ha이라는 그 규모가 엄청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춥다는 중강진과 가까운 두만강변에 연한 걸 알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하튼 사과는 낙엽과수 중에서도 가장 내한성이 강하여 일시적인 영하 31℃에서는 동사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과는 한지형이기 때문에 눈 많고 추우며 때로는 한해 겨울동안 전국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장수는 오히려 드물게 있는 사과 적지로 보아도 좋다.

한편 사과는 새콤달콤한 진미의 먹을거리요 돈을 버는 생계수단 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일화가 많아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도 한다.

기원전 1200년 발발한 「트로이전쟁」은 제우스 신(神)이 황금의 사과를 던져 누가 가장 아름다운 신(神)인가를 평가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사과 한 알이 10만 대군을 동원한 10년 전쟁 발발의 연원이 되는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로부터 2800년이 지난 뒤 사과는 뉴턴으로 하여금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1665

년 고향 「월스숍」에서 뉴턴家 정원에 있던 한 사과나무 아래서 구상 정리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 사과나무는 1814년 고사하였으나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에 의해 의자나 목재 형태의 역사적 기념물로 다듬어져 현재 영국 왕립협회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고사 전 접수를 채취하여 접목 번식한 2세가 영국 국립물리학연구소 정원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켄트의 빛남」이라는 품종의 사과나무는 맛에서는 물론 오늘날의 신품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미 일본에 들어와 3세로 자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 그 3세를 들여왔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확실치는 않다. 장수에도 하루속히 그 3세를 들여와 사과 곳으로서의 상징성을 고양했으면 싶다.

사과는, 오늘날 세상을 바꾸어 놓은 비행기와 우주선까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비행 「린드버그」와 최초의 태평양 횡단비행 「팽그 본과헨든」은 단엽기에 불과한 당시의 비행기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중량을 줄이기 위해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사과 한 알이었다는 것이다. 33시간 30분과 41시간 10분간의 긴 여행 중에서 먹은 사과 한 알의 맛은 어떠했을까? 튜브용기의 식품이나 고형물만 배식 받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승무원들도 마침내 제7 회 비행 때부터 생식용으로 사과를 싣고는 좋아했다는 이야기다.

사과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자.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노래하고 글로도 쓴다. 사과의 꽃말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인데 영국 소설가 「겔시워시」는 바로 이 꽃말과 같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애플트리」란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계인 일본 대중가요의 여왕 「미조라 히바리(창공의 종달새)」히트곡 「사과追分」의 애절한 가사는 사과 농사꾼에게 있어서는 가슴적시는 정경이 아닐 수 없다. / 사과꽃 이파리 / 바람에 흩날리네. 새하얀 달밤에 / 아! 깊어가는 밤 사과꽃 아래 / 산처녀가 울었다네. 사과꽃 이파리 바람에 흩어지네. /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으나 필자는 30대의 젊은 시절 거의 사과에 미쳐 사과에 모든 희망을 실은 사과 노래를 지어 오늘 이곳 「발방골 거연 협동 농장」 멤버들과 전국 방방곡곡 사과곳을 다니며 어울려 부르곤 했었다. 이 산기슭이 나무 황금열매 사과나무 /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 가득 맺으리

라 / 우리의 땅 이 겨레의 높고 힘찬 삶을 위해 / 우리들의 손발은 쉬지 않네.
오오, 오오! 사과나무 / 꽃피는 곳 그곳마다 / 참 열매 맺으리. / 이 노랫말은
적중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사과나무는 장수에 심어지고 그
꿈만큼이나 깊은 뿌리를 이 대지에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장수 사과를 기술적·이론적으로 살펴보자. 장수는 추석사과에
관한 최고 품질의 명품이 나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산지 코카사스 지방이 암시하듯 사과는 겨울 평균 기온이 10℃ 이상이
면 재배가 가능한 낙엽과수 중에서도 전형적인 온대 북부의 한지형 나무이
다. 그래서 사과는 익을 무렵에 되도록이면 냉량한 기온을 좋아한다. 낮에는
비교적 온도가 높아 광합성작용이 풍부히 이뤄지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이른바 온도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지면 금상첨화이다.

낮에 만들어진 전분이 쉽게 과당으로 변하여 상쾌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사과가 백과 중에서 왕좌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독특한 상쾌미 때
문이다. 지나치게 달기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 것만도 아닌, 그야말
로 감산조화(甘酸調和)의 독특한 풍미와 부드러운 듯 탄력 있는 육질이 어우
러져 사과 특유의 상쾌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쾌한 맛은 바로 밤낮 기온 교차가 큰 기후조건하에서 온다.
사과나무가 탄소동화작용으로 만드는 1차 산물은 그 형태가 전분인데 그대
로의 사과 맛은 뽕거나 비린내까지 풍긴다. 덜 익은 풋과일을 먹었을 때 어
딘가 어색한 그 맛이 바로 이 전분형태의 과일 맛이다. 이것이 밤낮 기온차
가 커지면 낮에 만들어진 전분이 대부분 과당으로 변하여 놀랍게도 상큼한
사과 본래의 맛이 나고 육질도 사캉사캉 유연 강직해진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후는 가을에 이 조건을 갖추므로 맛있는 사과는
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나온다. 옛날의 국광이나 요즈음의 후지란 사과가 그
것이다. 그러나 추석은 보통 9월에 들고 좋은 사과가 나오려면 8월 말, 9월
초에 높은 일교차를 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곳이 별로 흔치 않
다. 우리 장수와 청송·문경·팔령·봉화 춘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장수사과 만큼 추석사과로 유명한 것은 아니다. 장수
는 이런 여건에 걸맞은 추석사과 생산을 위한 계획적 지역 특산물개발의 좋
은 예가 된다.

2002년 11월 일촌 일품 운동의 발원지인 일본 오이타 현에서 열린 지역
특산물 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장수 추석사과 개발은 많은 관심을

끝었다.

장수의 이러한 심포지엄에서 장수 추석사과 개발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장수의 이러한 사과재배에 관한 기후적 특성을 좀더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온량지수가 87.5정도로써 중생종 추석사과의 최적지라 표현 할 수 있다. 온량지수란 글자 그대로 온량(溫量)을 나타내는 숫자 곧 지수(指數)이다. 이 숫자가 크면 너무 덥고 너무 낮으면 추운 것이니 사과는 온량지수 75에서 85사이를 최적지로 본다.

그런데 장수(長水)가 87.5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로서 이보다 낮은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사과 적지라고 알고 있는 대구 근교의 온량지수가 무려 100에서 104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장수(長水)는 위도상 나타나는 전반적인 저온이 아니라 더운 지방에 위치하면서 표고 차에 의한 야냉현상에서 오는 낮은 온량지수이므로 이는 곧 늦여름 초가을의 현격한 일교차를 의미하며 추석사과의 고품질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한 여름에도 열대야가 없는 곳. 해만 지면 山으로부터 불어오는 서늘한 한줄기 바람, 일본사람들은 이 바람을 「아마세」라 하여 사과농사에 미치는 갖가지 장점들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지만 사과의 품질 제고 외에도 응애나 부패병 등 병충해 발생을 억제함으로 평지에 비해 장수는 농약살포회수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역시 무공해 농산물이 난무하는 현재 장수사과는 자연스럽게 저공해 농산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은 세계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빈식(貧食)시대, 그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 세계는 양식(量食)의 시대를 지나 포식(飽食)의 시대에 들어섰고-일부 굶주린 국가와 아직도 많이 있지만- 몇몇 나라는 이미 선택식(選食) 또는 쾌식(快食)이라 하여 맛 좋은 것, 몸에 좋은 것을 골라먹게 되었다.

장수사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바로 이 점에 착안, 그 유리한 입지 조건을 십분 살려야 한다고 본다. 94년 유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형 제조용 부직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수의 전 사과밭에 깔아 제조 없는 농사를 시도한 것은 단순한 제조효과가 토용보존, 적습효과라는 기술적 측면 외에 환경보전이라는 미래지향적 농업의 시발이라는 중대한 의미

를 지나는 것이다.

장수(長水)는 산(山)이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탄지가 없다. 이 점이 비교적 대면적을 요하는 사과 과수원들은 랜드스케이핑(Landscaping : 造園術)으로 무난히 극복하고 거연 협동농원이나 천향원 같은 대면적 사과원을 조성하였다. 단순한 단지화나 한 덩어리의 대면적이 아니라 과수원지로서의 기능적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것인데 장수과수원들의 랜드스케이핑은 상당한 정평을 얻었다. '93년 가을 당시 K농림수산부 차관보는 천향원을 돌아보고 「놀라운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경사지인데 정작 밭에 들어서면 평탄지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이를 랜드스케이핑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밭 경사정리의 표본으로 삼을 만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장수(長水)사과는 이처럼 기반조성에서부터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한 것이다. 전국 어디를 가 보아도 장수만큼 기계화·시설화에 대비한 원지 조성이 잘된 곳이 없다. 이 점에 관련한 일본도 이제야 원지개편 운운하면서 농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기야 사과원의 호당 평균 면적이 우리보다 작은 일본이고 보면 이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원지 개편과 신규조원에 있어 공영개발이나 국영개발이라는 방식이 자주 적용된다. 대단히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수사과의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도 이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에 있을 듯하다. 장수사과는 현재 재배면적의 확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데 사과에 생소한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다.

인식 부족이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세성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면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까지도 상당한 매릿트를 주면서 공영 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남의 K군에서 이미 이 방식의 공영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화시대는 지역발상의 시대이다.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지방화의 참 묘미가 있는 것이다.

독일을 여행한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평야지대에는 살림을 조성하면서 가파른 라인강(江) 연안 구릉지에 포도를 재배하는가 의아해 하지만 합리적 지역발상의 대표작이다. 이 라인강(江)변의 포도는 평지 포도보다 당도가 2~3도나 높는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물 빠짐이 좋고 경사지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거대한 반사 필름 역할을 하는 라인강(江) 수

(水)의 복사광(光)에 의한 광합성산물의 증대 때문이다. 이 천에 조건을 간과 할 리 없는 저들의 지혜인 것이다.

장수(長水)는 산간지대요, 준 고랭지다. 누가 돈으로 이 엄청난 산간지대 준 고랭지를 만들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의 선인들은 이 산(山)으로 하여 술 한 곤경을 맞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산(山)으로 하여 어려움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 산(山)으로 하여 참 살길이 열린다는 교훈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장수(長水)가 가지는 천혜의 기상 조건과 약점이 될지는 모르는 비탈진 산기슭과 다락 발까지도 적절한 랜드스케이팅 기술과 공영개발 방식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았다.

남은 문제는 사람이 할 일이다. 사과 농사를 위한 천혜의 땅, 장수(長水)에서 「順川命하고 從地理하되 盡人事(순천명, 종지리, 진인사)하라」이는 사과 농사에 임하는 필자의 좌우명이다.

어찌 사람 사는 일이 농사 일 뿐일까 마는 산다는 의미를 사과 농사에 크게 걸고 있는 필자로서는 거의 매일같이 「오늘 네 할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자신에게 묻는다. 천혜의 조건이라 하면서 천하제일 품 사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는 필경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장수사과는 고품질을 지향한다. 조상님께 올리는 추석 차례상에 최고품질의 사과를 만들자는 것이다. 추석사과란 보통명사를 창출했다고 해도 좋다. 덜 익은 홍옥, 「스타킹」의 시고 뚝기까지 한 맛있는 추석사과가 이제는

눈에 덮인 사과(이렇게 자라야만 사과의 당도가 높고 아삭한 맛이 살아난다)

장수 때문에 홍월, 아다까라는 가장 맛있는 사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추석 전용의 「홍로」와 「추광」이라는 신품종이 나와 전국이 추석사과란 표적생산에 돌입한 느낌이다. 장수가 천혜의 입지조건이라 하여 안이한 대응을 하다가는 언제 뒤질지 모른다.

추석은 사과 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소비의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줄잡아 연간 총생산량의 30%가 추석사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추석사과는 대부분 제수품, 선물용이므로 더 더욱 고품질을 요한다. 맛좋은 사과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건 외에 굵고 색도 좋아 탐스럽게 보여야한다.

산간 고랭지 사과는 대체로 살이 단단하고 당도·산도가 다 같이 높아 짙은 맛을 내며 자외선이 강하여 착색도 양호하다. 과일의 크기에서는 평지에 다소 뒤지는 것이 보통이다. 기술만이 굵고 탐스러운 사과를 만든다.

이에 장수사과는 기술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 재배기술은 총합 기술이지 단순한 기능이 아니므로 대단히 어렵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목표로 할 때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령 최근 폭발적 인기리에 장수사과의 대명사처럼 된 추석사과의 명품「홍월」의 고품질대 사과 생산기술의 포인트를 한 번 생각해보자.

이 품종은 우리에게 추억을 자아내게 하는 골든에 홍옥을 교배하여 만든 것으로 나무는 홍옥을 닮아 가지가 가늘고 늘어지나 원래 과일은 300 ~ 350g로 큰 과일에 속한다.

그런데 장수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홍월은 본디 250g내외(151g 1상자에 60개)의 보통정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다른 사과와는 달리 클수록 맛도 좋아지는 것이므로 홍월 농사는 당연히 기술로 표준 굵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홍월은 대목 선택부터 달라야 한다. M26보다 M9a가 좋고 반드시 자근(自根)인 것을 요한다. 그래야 가늘게 늘어지는 가지가 통통하게 살찌고 착색한 꽃눈도 굵고, 잎도 횡경이 넓고 두텁게 되어, 굵고 탐스런 홍월이 생산된다. 그러나 M9a대목의 선택만으로 저절로 되겠는가?

타 품종에 비하여 옅은 색의 잎이므로 질소 시비에 유의하여 생육 기간 중 적정 엽록소 수를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과비하면 이번에는 고루병 등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을까지는 온전히 잎을 보호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잎에 골고

루 별찌임이 좋도록 정지 전정에 유의하며 배수 불량이나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관수 또한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 단과지보다는 중과지에 착과시킬 것이며 다른 품종보다는 적과에 정성을 다하여 결코 과다 결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고품질 사과생산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주문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하는 한편, 품종과 대목의 생리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장수에서 재배하는 사과나무는 대부분이 왜성대목에 의한 소목(小木)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거목에 비하면 이 나무들도 극히 작은 불리한 조건에도 대처하는 힘이 약한 이른바 안전핀이 빠진 나무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그만큼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수사과는 가능한 한 재배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상당한 부분의 관리에 계량 계측의 방법을 쓰고 있다. 수광태세가 좋은 전정의 검증을 위해서는 원예용 조도계, 질소시비의 적정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엽록소 측정기, 모처럼 설치한 점적관수시설의 합리적 가동을 위해서 텐시오미터가 활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초보단계이고 흑성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 발생 예측기 무인방제시스템 등 최첨단의 기기들이 실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계량계측에 의한 시비시스템의 개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개발 등도 시급한 장수사과 기술농업의 과제들이다. 기술농업의 상당한 부분은 시설화·기계화로 달성되며 여기에는 많은 돈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 사과밭들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국의 사과 재배 업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기초시설이 잘 되어있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랜드스케이핑에 의한 조원, 어떠한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는 지하 200m 내외의 대형 관정과 전 밭에 설치된 점적 관수시설(Driplrrigation) SS(Speed Sprayer)나 예취기·가지분쇄기·인공 수분기·전자시자동선과기가 집집마다 갖추어져 있다.

나무마다 든든히 꽃혀있는 지주, 전 밭에 깔려있는 지속형 제초용 부직포 그리고 최대의 작업능률화를 기한 장수형 과실 저장고 겸 작업장까지 시설화,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요소는 이 많은 시설·기계들이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장수군 당국의 강한 의지로 이

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타 지역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농수산물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 지워진다. 하나는 농수산물부의 메뉴사업에 한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발상의 주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 난 한 두 사람이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혜택을 입는 패키지 사업이란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곧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그 지역민의 창의적인 참여와 전적인 합일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2년도 성장 작목 지원사업도 전국적으로 드문 예였지만, 94년도 유통 지원 사업에 의한 지주·부직포·작업장 등은 오직 장수사과에만 내려진 특혜로 보아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적어도 우리 사과생산자들은 「사과밭은 내 것이다. 그러나 사과는 장수주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겠다.

현재 장수에는 연간 약 3,500명 정도의 전국 사과 생산자들이 견학차 찾아온다. 이를 두고 모 일간지에는 「장수사과 밀식재배의 메카로 등장」이란 표제 하에 특집을 싣기도 했지만, 사실 견학 자들은 성공적인 밀식재배, 그 조기 다수성과 작업의 능률화, 특히 사다리 없는 사과밭에 감탄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협을 통한 공동선과, 공동판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판매가를 참으로 부러워한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사과」란 브랜드화에 대한 생산자와 농협의 의기가 합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과시험포



92년, 장수사과 출하 원년, 그 해 예상되는 총생산량은 5천 상자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이 적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수역의 공동선과장 첨단 선과기를 설치하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질세라 생산자들은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공동선과장을 이용했고, '93년에는 공동정산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일까지 성사시키는 전진적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추석사과 선과라는 한정된 시간의 엄청난 작업을 두고 농협 식구들은 물론 장수주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꺼운 마음으로 밤을 새워 작업했다.

「장수사과」란 새로운 생산물에 대한 뿌듯한 자긍심에서였다. 일이 끝난 뒤 생산자들은 잔칫상을 마련, 수고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흐뭇한 정경도 있었다.

이대로라면 이제 장수사과 생산자들은 열심히 생산에만 몰두, 세상에 둘도 없는 맛있고 탐스런 사과를 만들어 팔머리까지만 내 놓으면, 농협이 실어다 선과하여 잘 팔아, 돈은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꿈같은 날이 올 것만 같았다. 전국토가 흑독한 가뭄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장수사과만은 예외였다.

그동안 전 군민의 성원 하에 아낌없이 투자한 덕분에 가뭄피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일조와 무병에 힘입어 최상의 추석사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었다.

상인들의 농간과 이해부족,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몇몇 생산자가 발떼기로 팔거나 자가 선과 임의출하 등으로 푹푹 뭉쳐 명품 장수사과를 만들어 달라는 장수인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그토록 회의적이던 사과에 대한 주민 정서가 비난과 노여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산간의 초록마저 시들하게 대하는 듯한 심한 자괴심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부끄러운 짓을 한 뒤 분발할 때 최고의 업적을 남긴다.' 우리는 사과 불모지에서 장수사과란 명품을 만들어 냈다. 영세규모 초심자들의 발을 일일이 찾아 현장기술 지도를 했고, 부부동반 현장 실기 교육도 실시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규모의 대·소에 상관없이 사과농사에 손대어 실패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합심했고, 결과는 좋았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분노는 우리 내부의 붕괴를 안타까워하는 창조적 비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허점이 많았었다. 실제로 자율을 강조한 나머지 철저하게 못

했고, 감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었다.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기어코 해내고 말 것이다. 버려졌던 비탈을 일구어 사과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황금의 사과 열매를 따도록 만든 바로 그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장수사과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임이 이 몇 해 동안에 확인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토인비가 제시한 역사발전의 원리 「도전과 응전 (Challenge & Response)」을 장수사과에 적용해 보자. 몇 년 전 장수사과의 출발점에서는 사과가 없던 곳에 새로운 작목이 시도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의를 가졌었다. 그것이 그 때의 도전과 응전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미 장수사과는 전국의 사과업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애호가도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기대가 크다.

중국 연변 농학원과 산둥성에 비디오테이프 소개되어 있고, 일촌일품운동으로 유명한 일본 오이타 현에서조차 한국의 지역 특화산업으로서의 장수사과가 소개된 처지이다. 한편 농업은 격심한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 와중에서도 성장 작목으로 지목된 사과는 곳곳에서 신규재식이 늘어나면서 과잉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이면 마침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다.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의 엄청난 도전의 실상이다.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화에 대한 장수로서의 목표 설정이고 그 목표에 대한 주민의 합의 도출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당연히 기대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세계 제일을 지향할 때 제대로 설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수에서 무엇을 세계 제일로 만들 것인가?

사과가 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최적의 기후 조건이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은 장수주민 모두에게 달려있다. 장수를 세계 제일의 사과 곳으로 만들려는 온 주민의 응집력이 필요하다. ‘장수에서는 사과를 심을 만하다. 심겠다면 보조 용자도 해준다.’는 정도로는 응집력이 너무 약하다. 혹 자발적 참여를 하고 미덕으로 내세울지 모르나 그것은 자율이 아니라 방임이라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장수사과 개발계획과 같은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합목적성과 메리

트를 끊임없이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장차 장수사과 재배면적을 1,000ha 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장수 주민이면 누구나 오늘은 비록 아니라하더라도 내일은 나도 사과밭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설 것이다.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불비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랜드스케이핑에 의한 합리적 기반조성은 물론이고, 그 경영에 있어서는 「Small Farm, Big Business」의 개념을 도입하면 어쩌면 그 속에서 한국 농업의 영세성 극복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만으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수출 전용 사과 생산단지, 가공용 사과 생산단지 등의 전문 단지를 조성한다면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있어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어 상당한 국고지원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장수에 사과라는 새로운 물산이 융성한다면 다음엔 그에 연관된 문화도 자연히 발달하겠지만 이 문화까지도 어느 정도의 의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장수 사과가 크게 발전하여 사과 축제라도 벌인다면 그것은 곧 나라의 축제, 세계인이 보고 싶은 축제로 가꿔가야 할 것이다. 세계 제일의 사과 단지에서 벌어지는 판에 박힌 능금아가씨 선발이 고작이라면 흥미가 있으리 없다. 가령, 거대한 뉴턴의 사과나무-뉴턴고향집 사과나무 혈통을 이어받은 것-그늘에서 춤추고 뉴턴의 사과나무 가로수 길목을 거닐며 로망을 자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의 온갖 크랩애플(Crab Apple: 원시사과)을 모은 공원에서 그 진기한 열매들을 감상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들 나무들은 세월이 흘러 거목이 되고 노목이 되어야 그 상징적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는데 아직 생각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으니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장수사과는 그가 서 있는 땅 장수에 풍요를 선물할 것이다. 우리 모두 사과나무를 심자. 그리하여 세계 제일의 사과 곳으로 만들자.¹⁾

1) 사과 초밀식원 천향원 대표 송재득

12. 전매 특산물

우리나라의 인삼재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장수군에서는 60년대에 와서 비로소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69년도 총 재배인원은 36명이고 재배면적은 6.29ha 이었다. 그 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80년에는 44ha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는 203ha로 크게 증가 하였고 앞으로도

번암 1984년 7월 25일 여
름철 퇴비증산 경연대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주요 소득원의 하나인 담배는 738ha에서 담배의 수입자 유화로 2008년 현재 59ha로 줄었고 아울러 상전(桑田)면적도 850ha에서 2008년 현재 3ha로 감소되었으며, 한편 누에고치 생산량은 전북 생산량의 6.5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매년 생산량이 감소되어 장수군의 경우 76년에 474톤을 생산, 공판했던 누에고치 생산이 10년 후인 86년에는 5배가량 줄어든 98톤이 생산되었는데, 89년 봄 누에고치 생산량이 88년 가을보다 약 10%가량 늘어나 75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89년에 누에고치 가격을 10% 인상한데다 처음으로 누에고치 1kg당 3백원어치의 비료를 현물로 보상하는 간접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양잠농가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게 되었고, 2008년 현재는 누에고치 생산 공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누에가루나, 환으로 만들어 약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13. 퇴비와 화학비료



농작물의 증산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인 퇴비의 증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수군 자급비료 생산고의 변화추이를 보면 64년에 38,056.5M/T이던 것이 72년에 최고 273,052.4M/T까지 증대하였다가 그 후 점점 감소하여 77년에는 133,947.0M/T를 생산하였다.

특히 퇴비의 생산고는 64년에 전체 자급비료 생산고의 6.8%인 2,670M/T였으나 77년에는 87%인 108,179.0M/T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산야초 생산고는 64년에 4,553.0M/T에서 68년에는 7,250.M/T로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벼짚의 사용이 증가 추세이다.

화학비료 공급량의 변화추이를 보면 69년 6,824M/T 이던 것이 73년에는 8,149M/T로 증가하였다. 성분별 공급량을 보면 69년에 질소가 1,268M/T(18.5%), 인산이 515M/T(7.5%), 가리가 353M/T(5.1%)이던 것이 73년에는 질소 1,606M/T(19.7%), 인산 1,121M/T(13.7%), 가리 696.5M/T(8.5%)로 되어 가리성분의 비료공급이 크게 증대하였다.

2000년도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유기질비료 공급량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6,600M/T 이던 것이 2009년에는 15,666M/T로 크게 증가하였다.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정책 지원하에서 유기질비료의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4. 농기계화의 변천

농업기계화란 인력이나 축력(畜力)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농작업과정을 기계에의 하여 처리하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화의 근본원인은 첫째, 비농업부문 산업의 성장에 따르는 농촌노동력의 농외이동으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 농기계 제작공업의 성장으로 농기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셋째, 비농업부문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발전과 농촌의 사회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른바 전시효과로 농민의 심리를 자극하게 되었다는 점들이다.

이 밖에 농지기반의 정비에 의한 경지 정리면적의 확대, 농로확장, 수리시설개량, 농어촌 전화율의 증대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수군의 농업기계의 보급현황을 보면 인력이나 축력에 의한 것으로부터 동력 또는 자동화 기계로 점차 현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운경지용 기구를 보면 68년에 경운기만 겨우 3대에 불과하던 것이 87년에는 경운기 1,870대, 농용트랙터 15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병충해 방제용 기구를 보면 68년에 인력살분기 698대이던 것이 84년에는 인력살분기는 사라지고 인력분무기 3,902대, 동력고압분무기 4대 동력 고성능분무기 614대 동력분무기 270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력이앙기는 87년 54대를



농기계를 이용한 수확

보유하고 있으며, 수확탈곡용 기구인 바인더나 콤바인은 증가 추세에 있고 짚가공 기계인 새끼틀이나 가마니 기계는 인력 동력할 것 없이 감소추세에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답작지역의 경우 경운, 정지, 방제 탈곡 등 제작업 과정에서 이들 기계의 이용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주요농기계의 연차별 보급대수나 주요 농기구 생산액 가운데 동력경운기의 비중이 높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농업 기계화는 주로 동력경운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농촌의 기계화는 주로 답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곡, 경운, 방제 등의 부분적인 작업과정에만 농기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이후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사람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농기계 보급을 촉진하는 등 기계화 영농이 확산되었다. 또한 농기계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를 정리하고, 농업용 용수를 개발하는 등 농업 부문의 생산기반도 조성되었다.

15. 양곡수매



양곡 수매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초기의 양곡수매 사업은 과거 일제의 강제적인 공출에 대한 혐오감, 해방 후 미군정하 혼란기에 있어서 시장시세가 매상 가격보다 비쌌

던 점 등의 탓으로 농민들의 피동적인 관념 하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8년도부터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이 사전지도를 주도하고 농산물 검사소는 사전지도의 일부분인 검사규격과 검사방법의 계몽교육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지도방안이 체계화되었고 이에 따라 양곡 수매사업도 본격화 되었다.

2005년도에 쌀 개방 시장에 대비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 되었다. 이 제도는 쌀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도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그 시가로 쌀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소득보전 차원에 지급하게 되었다.

16. 특화품목사업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식품 수요의 고급화와 급증현상이 야기되어 전분식품이 아닌 신선한 과채류, 우유, 육류 등 단백질과 지방질, 비타민 식품으로 전환된 추세로 주곡생산 이외에도 지역 농업의 특화를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와 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소득 특화사업의 개발육성이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 서는 70년대 초에는 농·특사업으로 호남 야산개발 지구, 지리산지구 한우, 연안지구 백합, 전군지구 원예, 노령지구 한우, 서부평야 수출작물, 동부산악 수출작물, 순창지구 비육우, 완주지구의 비닐하우스에 의한 채소 과일재배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하였는데 무진장지구에 서는 양잠협동, 협동축산에 집중 투자를 하였다.

본군에서는 2008년도에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6개분야에 2008년도에 2010년까지 3년간 총 19,238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고랭지 싹배추 단지 조성사업에 537백만원, 토마토 특화작목육성사업 4,396백만원, 오미자 특화육성사업 3,865백만원, 청청한우단지 조성사업 5,200백만원, 현미골드육성사업 5,000백만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240백만원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육성사업을 추진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17. 농산물 유통(APC 건립)



APC 건립 모습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소비자 시장 재편 등 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급속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잔여 인력의 노령화로 경제적인 낙

후의 악순환과 소득원천의 감소를 통한 농촌·농업·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 속에서 농림부 FTA 기금 지원사업에 따른 전북 동부산악권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본군이 처음으로 2004년도 대상사업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이 확정되어 2004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937-2번지 일원 부지 34,643㎡에 건축면적 10,302㎡를 총사업비 18,872백만원 (국비 8,773, 도비 3,509, 군비 6,590)을 투입하여 선별장, 저온저장고, CA저장고, 채소처리장 등을 설치하였다.

현재 (주)S-APC를 2008년 6월부터 농협연합 사업단에서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선별 저장 유통마케팅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군은 농·특산물을 생산에서 유통, 마케팅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과 전략적인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8. 경지정리 사업

지구명	지구명		구역면적 (ha)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비고
	읍면	동리				
갈평	읍면	화음	43	1,294,599	1997~1998	
노단	번암	노단	58	1,964,280	1998~1999	
음신	계남	음신	22	601,358	1999~2000	
양신	계남	양신	52	1,479,670	1999~2000	
백운	산서	백운	15	645,477	2000~2001	
마평	산서	쌍계	22	714,924	2000~2001	
금덕	장계	금덕	74	1,988,336	2000~2001	
약방촌	산서	이룡	18	531,850	2000~2001	
갈평	계남	호덕	30	702,222	2001~2002	
지사5	산서	동화	20	574,974	2001~2002	
어전	계북	어전	35	1,253,944	2002~2003	
호덕	장계	금덕	58	2,234,408	2004~2005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19. 수리시설

가. 농업용수 관리면적

수리안전답(ha)					농업용수	용 수	운 영	쌀
계	공사관리	%	사군관리	%	이 용 자	관리회	대의원	전업농
4,814	2,840	59	1,974	41	6,109	37	7	369

나. 농업용수 공급시설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대형관정
시설물(개소)	73	29	3	30	11
급수면적(ha)	2,840	2,766	(20)	74	(33)

※ ()는 보충급수면적

다. 용·배수로 시설

(단위 : km)

구 분	계	토 공	비율(%)	구조물	비율(%)
계	647	328	51	319	49
용수로	479	162	34	317	66
배수로	168	166	99	2	1

라. 농업용수 공급시설

(단위 : ha)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대형관정
대상면적	2,840	2,766	(20)	74	(33)
급수면적	2,840	2,766	(20)	74	(33)
안전답률	100%	100%	100%	100%	100%

※ ()는 보충 급수면적

1) 동화댐



농수로 정비 및 물대기

가) 현황

-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 유역면적 : 5,880ha
- 수리안전답면적 : 3,000ha
- 총저수량 : 32,349 천m³
- 완공년월일 : 2002년 12월

나) 사업비

(1) 수입부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용자	농지관리 자금	자자체		민간	기타
					시/도	시/도		
지원액	42,750,456	42,062,200	300,000	319,336				68,920
지원비율(%)	100	98.4	0.7	0.75				0.15

(2) 지출부

(단위 : 천원)

합계	순공사비	자재비	용지 매수비	개답비	측량설계비	관리비	기타	예비비
42,750,456	24,900,579	2,085,760	11,833,154			2,848,680	1,082,283	

2) 대곡저수지



가) 현황

-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 유역면적 : 1,317ha
- 수리안전답면적 : 569ha

- 총저수량 : 5,871 천m³
- 완공년월일 : 2002. 10. 31.

나)사업비

- (1) 수입부
- (2) 지출부

3) 양악저수지



가) 현황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 유역면적 : 1,380ha
- 수리안전담면적 : 333ha
- 총저수량 : 2,253 천m³
- 완공년월일 : 1996. 12. 31

나) 사업비

(1) 수입부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용자	농지관리 자금	지자체		민간	기타
					시/도	시/도		
지원액	7,625,000	6,873,000	651,000	101,000				
지원비율(%)	100	94.3	8.54	1.33				

(2) 지출부

(단위 : 천원)

합계	순공사비	자재비	용지 매수비	개답비	측량설계비	관리비	기타	예비비
7,625,000	4,730,000	468,000	1,587,000			607,000	233,000	

제2절 축산업(畜産業)



옛 우막

축산은 가축을 키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축산의 시작은 야생동물의 가축화로부터 시작한다.

당시에는 사냥에 의하여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 하던 것에서 직접 키워서 손쉽게 구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또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어서 사육하게 되었던 것도 있다.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된 것은 만여년 전쯤이고, 그 후에 닭이나 말 그리고 소가 가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이 지금처럼 규모화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축산업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 바람을 타고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축산규모를 늘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단히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육우의 경우 사육두수는 1979년 128천두까지 증가하다가 1980 ~ 1982년 마릿수 감소로 소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육우의 수입 등의 영향을 받아 1983년부터는 사육두수가 크게 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205천두까지 늘었으나 1986~1987 년간에 걸쳐 소값이 폭락하여 사육 마릿수가 1990년에 116천두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량이 증가하여 소의 산지가격은 꾸준히 올라 1991년에는 황소(600kg)의 산지가격이 처음으로 300만원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후 농가들의 사육선호로 1997년에는 사육두수가 234천두로 늘어나고 1975년 이후 최고의 사육두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995년에 황소의 값이 380만원대까지 오르자 농가의 사육두수의 증가하고, 1997년 IMF, 쇠고기 수입재개, 2000년 구제역발생 등으로 육류의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1996~1998년에 소의 가격이 폭락하여 사육을 기피하고,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였다.

2001년에 이르자 소의 사육두수는 129천두까지 감소하였고, 소값은 한·육우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상승하게 되어 2001년에는 황소가격이 500만원대로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후 쇠고기 수입재개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사육두수는 234천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소의 사육가구 수는 1975년 101,256가구로 감소하다가 1982~1983년 소값 상승 및 육우수입 등으로 1983~1986년까지 다시 사육가구 수가 늘었으나, 1984년부터 1987년에 걸친 가격폭락으로 소규모 사육농가의 폐업과 사육 규모화 추세로 200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는 소폭 반등하여 2007년 16,099가구로 증가하였으나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사육가구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육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축산농가가 규모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젖소의 경우 1975년 이후 희귀식품인 우유소비가 늘면서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0년 44,274로 최고 사육두수를 기록한 후 우유과잉생산으로 소비가 줄면서 사육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젖소 사육두수가 36,075두이며 사육농가 또한 2000년 972농가에서 2007년 517농가로 감소추세이다.

돼지 사육두수는 1975년 115,386두, 1979년 246,858두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1981년에는 156,676두, 1988년 400,596두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0년 319,891두까지 줄었으며, 1991년부터 돼지고기수요가 꾸준히 늘어 2007년 1,118,242두로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호당 사육두수는 1975년 1.6두, 1990년 20.9두, 2000년 282.4두, 2007년 681두로 양돈 농가별 사육시설의 현대화와 사육두수의 규모화로 사육가구 수는 1975년 73,896가구, 1990년 15,275가구, 2000년 3,151가구, 2007년 1,475가구로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닭은 1975년 1,136천수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닭고기 수요가 늘면서 사육마리수가 꾸준히 늘어 1989년 3,257천수, 2007년 17,205천수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70~80년대는 자가 소비용으로 사육하다가 사육여건변화에 따른 용도별 계열화, 규모화 사육으로 가구 수는 줄고 마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 축산물 현황

1960년대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형태는 대개 축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축종 또한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축산의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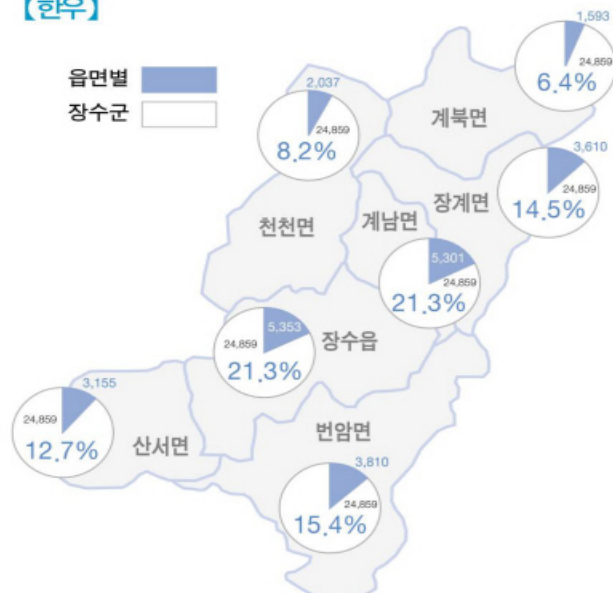
우리군의 주요 축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의 경우 2009년 12월 현재 1,475농가 26,322두로 전체농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소득 또한 26%에 달하고 있다. 1986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2개의 한우 개량단지가 지정되었다.

그 중에 한 곳이 우리군의 천천면 이다. 이곳에서의 계획적인 인공수정사업 등을 통하여 군은 한우 품종 개량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장수축협에서는 장수읍 용계리 산110-2번지 74ha에 7,231평의 축사를 신축하여 2,500두 규모의 장수한우 한우계열화사업장을 만들어 본격적인 장수한우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섬유질(TMR)사료공장 420평을 신축하여 사료통일에 기여하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전국브랜드경진대회 및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우수·최우수상을 휩쓸어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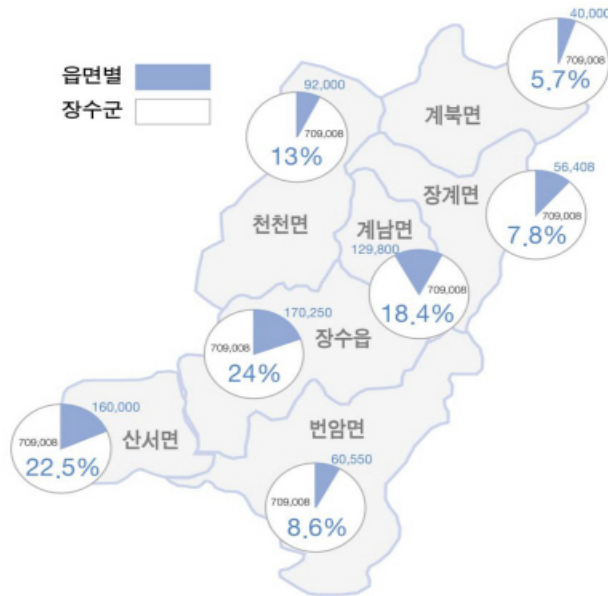
【장수군 주요 축종별 · 읍면별 사육현황】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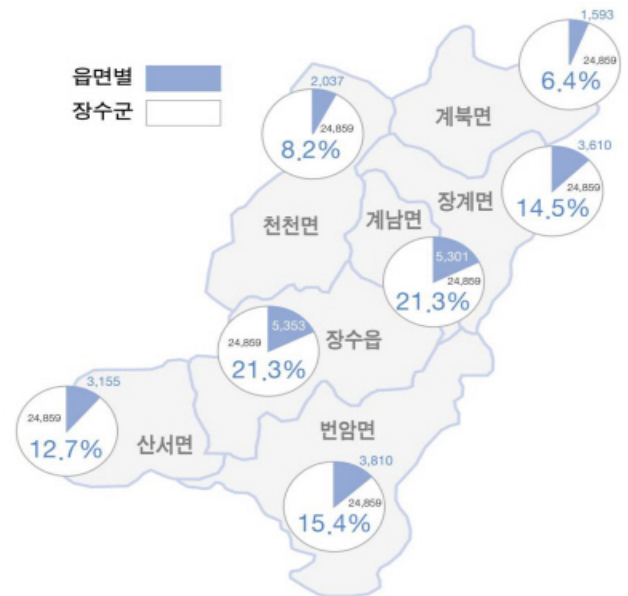


【장수군 주요 축종별 · 읍면별 사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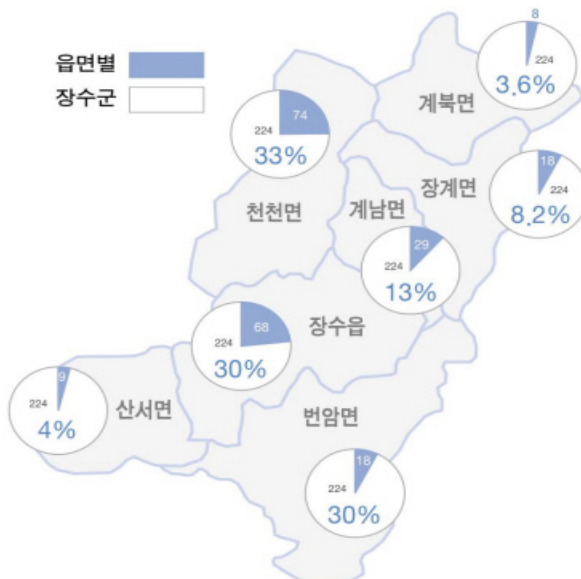
【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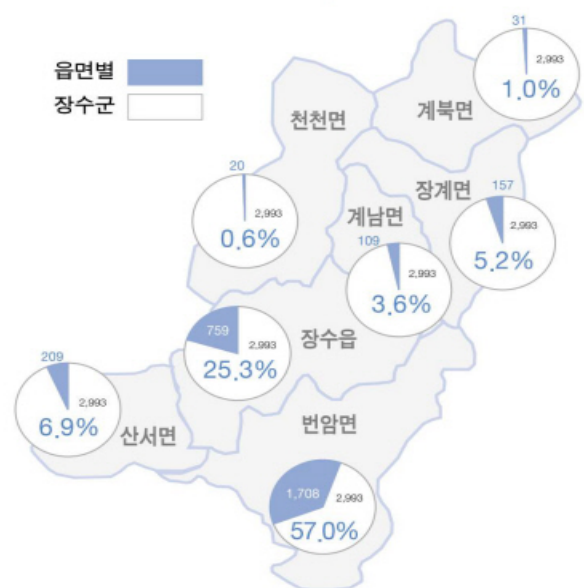
【돼지】



【사슴】



【산양】



조사료를 곤포 램핑하는 작업

2. 조사료 및 초지조성 현황



한미 수입쇠고기 개방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높여야만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장수군의 현 실정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확대하고 견실히 하는데 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라 사료값이 폭등하여 생산비가 증가하는 걸 방지하며, 관외 지역 조사료 구입에 따른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관내의 사료작물 재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장수군 초지조성 면적은 2006년 9농가 215.3ha, 2007년 39농가 214.3ha, 2008년 40농가 217.5ha, 2009년 44농가 375.63ha(경주마 육성목장 초지 조성완료 증가)로 앞으로 비약적인 면적증가는 힘들 실정이다. 초지의 경우 초지관리의 어려움과 비용의 증가로 현재 부실초지가 늘어나고 있어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초지는 초식가축의 육성기 방목을 통한 골격 확대로 인한 육량 증가, 번식우의 운동량 증가를 통한 난산방지, 초식가축의 일조량 증가로 면역력증가 등의 가축의 경제성을 높임은 물론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초지가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우리군의 조사료 재배의 비약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동계 사료작물(청보리)재배가 확대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청보리 재배면적은 2004년 55ha로 시작해 2005년 242ha, 2006년 500ha, 2007년 391ha, 2008년 728ha, 2009년 883ha로 확대 되어 관내 조사료 자급율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

수군은 2012년 까지 청보리 재배면적을 2,000ha까지 확대하여 관내 조사료 자급률이 9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조사료보다 농후사료 급여비율이 높아 암소의 번식장애, 비육우의 증체량 저하 등 생산성 감소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비싼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이 높아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내 조사료 재배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섬유질사료 급여로 초식가축의 경제성 향상은 물론 농한기 답리작 활용으로 경종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장수군은 철저한 초지관리와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가축의 경제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초식가축 사육기반을 확고히 갖추고자 한다.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량(2009)】

구분	작물명	재배면적		ha당생산량	총 생산량	
		(ha)	%	톤	톤	%
합 계		1,418.7	100	30.1	42,704	100
답리작	계	883.0	62.2	20.1	17,730	
	호 밀	737.0	51.9	20.0	14,740	
	청 보 리	139.0	9.8	10.0	2,78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7.0	0.5	30.0	210	
사료포	계	297.7	21.0	59.9	17,834	
	청 예 옥 수 수	151.0	10.6	60.0	9,060	
	유 채	0.7	0.1	20.0	14	
	수 단 그 라 스	146.0	10.3	60.0	8,760	
초 지	목 초	238.0	16.8	30.0	7,140	

【초지조성 실적 및 관리상태(2009)】

(단위 : 호, ha)

읍·면	위치	참여 농가	조성 면적	관리상태			조성방법
				상	중	하	
계		44	375.63	162.08	124.34	89.21	경운137.39, 불경운190.09 축사 및 부대시설48.15
장수읍	동촌, 노곡, 용계 두산, 식천, 노하	13	113.47	3.53	87.03	22.91	경운6.96, 불경운99.14, 축사 및 부대시설7.37
산서면	쌍계	1	3.3	-	-	3.3	불경운3.3
번암면	죽산, 논곡, 교동	7	29.35	-	15.25	14.1	경운6.82, 불경운21.4, 축사 및 부대시설1.13
장계면	대곡, 금곡, 월강, 삼봉, 명덕	6	161.72	151.12	5	5.6	경운116.22, 불경운10.3, 축사 및 부대시설35.2

읍·면	위치	참여 농가	조성 면적	조성방법			조성방법
				상	중	하	
천천면	용광, 춘송, 월곡, 오봉	6	47.55	-	10.65	36.9	불경운 44.35, 축사및부대시설 3.2
계남면	신전, 화양, 가곡	10	19.29	7.43	5.46	6.4	경운 6.69, 불경운 11.6, 축사및부대시설 1
계북면	농소	1	0.95	-	0.95	-	경운 0.7, 축사및부대시설 0.25

【주요 목장현황】

구분	위치	사육두수 (두,수)	시설(m ²)		
			계	축사	부대시설
계		866,027	292,434	240,167	2,267
한우	장수읍 용계리	1,540	29,345	27,200	2,145
	장수읍 노곡리	100	1,423	1,340	83
	장수읍 송천리	32	1,922	1,922	-
	장수읍 개정리	30	1,950	1,950	-
	장수읍 노곡리	50	1,820	1,820	-
	장수읍 용계리	100	1,820	1,820	-
	산서면 동화리	80	1,690	1,690	-
	산서면 마하리	60	2,310	2,310	-
	산서면 오성리	90	1,840	1,840	-
	산서면 하월리	50	1,820	1,820	-
	산서면 신창리	100	1,820	1,820	-
	번암면 노단리	100	1,750	1,750	-
	번암면 교동리	70	1,898	1,898	-
	장계면 삼봉리	220	5,255	5,216	39
	장계면 오동리	50	1,820	1,820	-
	천천면 춘송리	190	1,800	1,800	-
	계남면 침곡리	85	2,055	2,055	-
	계남면 신전리	100	1,820	1,820	-
	계남면 가곡리	100	1,820	1,820	-
	계남면 화음리	100	1,820	1,820	-
	계북면 어전리	30	1,500	1,500	-
	계북면 월현리	30	1,820	1,820	-
	계북면 양악리	100	3,640	3,640	-
	계북면 농소리	150	1,820	1,820	-
낙농	계북면 어전리	70	2,026	2,026	-

구분	위치	사육두수 (두,수)	시설(m ²)		
			계	축사	부대시설
양돈	장수읍 대성리	6,400	55,711	55,711	-
	장수읍 용계리	300	2,157	2,157	-
	산서면 하월리	1,800	4,183	4,183	-
	산서면 백운리	1,800	4,449	4,449	-
	번암면 사암리	8,000	6,098	6,098	-
	장계면 명덕리	3,000	4,954	4,954	-
	천천면 봉덕리	3,500	5,285	5,285	-
	계남면 호덕리	13,900	34,995	34,995	-
	계남면 화양리	1,000	2,445	2,445	-
	계북면 어전리	800	3,717	3,717	-
	계북면 원촌리	500	2,527	2,527	-
양계	장수읍 대성리	230,000	36,071	36,071	-
	산서면 하월리	247,000	11,535	11,535	-
	번암면 유정리	400	8,390	8,390	-
	장계면 금덕리	53,000	2,000	2,000	-
	천천면 남양리	60,000	3,966	3,966	-
	천천면 삼고리	60,000	5,284	5,284	-
	계남면 호덕리	131,000	18,260	18,260	-
	계북면 월현리	40,000	1,803	1,803	-

표 412-2

3. 가축방역대책(家畜防疫對策)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제역,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및 닭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며,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소해면상뇌증(BSE)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사업

1)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2004년부터 매년 12개월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전두수 검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소 브루셀라병 확산을 방지한다.

2)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추진

민관공동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 운영, 예찰요원을 편성하여 질병예찰 및 검색 강화, 재발위험이 높은 11월 ~ 5월(7개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위해 전용전화 (1588-4060)를 운영하고 있다.

나.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 1) 소 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 소 탄저기종저 외 5종
- 2) 돼지 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 돼지열병 외 6종
- 3) 닭 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 뉴캐슬병
- 4) 기타 : 광견병, 꿀벌 응애, 노제마병 구제약품 등

이 외에 농가 자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 소독설비 지원,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도축현황(屠畜現況)

(주)청정돈우사업장



1986년도 연간 도축두수를 보면 소176두, 돼지1,528두로서 연평균 도축두수는 소가 0.5두, 돼지가 4두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1990년부터는 (주)우진산업이 설립되어 현대식 시설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에 (주)청정돈우로 인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2월 14일에는 haccp 시설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1일 도축물량 소500두, 돼지1,000두 규모로 운

영되고 있다.

장수군의 소의 도축은 2004년도 19,712두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점차 도축두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통이 발달되고 도축 기계화시설을 갖춘 서울의 한냉중부, 농협서울등 대단위 도축장과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장수군의 도축현황은 군세인 도축세로 알아볼 수 있다. 도축세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징수되었으며, 2002년도 611백만원을 최고로, 2006년에는 66백만원, 최저평균 징수액 303백만원이고 보면 열악한 장수군세입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9년도 부과액은 188백만원이었다.²⁾

【최근 10년간 도축세 부과·징수액】³⁾

년도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비 고
금 액	318	389	390	611	438	378	147	66	139	157	

2) 장수군청 축산과 제공

3) 자료제공 : 장수군청 세정계

5. 가축시장현황

본군에서는 군청소재지인 장수리(長水里)와 장계면(長溪面) 장계리에 가축시장이 있었으나 가축 거래량으로 보면 장수시장은 매매량이 아주 적은 반면 장계시장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장수시장을 이용할 3개읍·면(장계, 변암, 산서)중 산서와 변암면(蟠岩面)의 일부 주민은 교통관계로 타군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장계시장은 인근에 4개면이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 진안, 무주, 함양 등지에서도 찾아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⁴⁾

4) 장수군청 축산과 제공

가. 장계가축시장 현황



옛 장계 가축시장

1) 현황

- 가축시장주소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27-14 번지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438-63 번지, 호덕리 849-1 번지
- 대지면적 : 5,655 m²
- 개설일자 : 1987 년 12 월 4 일
- 개장일자 : 3 일, 8 일(5일장)

2)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 개장일자 : 2008 년 3 월 3 일(현대화시설 경매시작일)
- 계류두수 : 226 두(경매시장 : 113 두, 일반시장 : 113 두)
- 일반시장 거래두수 : 06년도 3,329두, 07 년도 3,698 두, 08 년도 3,014두, 09년도 4,408 두
- 경매시장 거래두수 : 08년도 238두(평균:24 두), 09 년도 598두(평균:50두)
- 가축시장 : 장계가축시장에 출장하는 진안, 무주, 장수(관내지역)의 충북(영동, 옥천, 보은), 경남(함양, 거창)지역의 소가 거래된다.⁵⁾

5)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제공

6) 장수군청 축산과 제공

6. 주요 가축사육 농가 및 두수현황⁶⁾

(단위 : 가구, 마리)

가축종류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한우	호수	1,706	1,734	1,716	1,572	1,475	
	두수	17,718	19,756	21,746	24,859	26,322	
젖소	호수	6	5	3	4	1	
	두수	257	175	203	192	90	
돼지	호수	82	68	64	59	53	
	두수	37,644	40,854	55,518	49,935	56,249	
닭	호수	331	62	16	22	26	
	두수	588,319	530,050	582,100	709,008	792,551	
마필	호수	2	2	2	4	3	
	두수	72	162	161	138	145	
산양	호수	486	394	353	209	204	
	두수	6,223	5,026	4,140	2,993	3,100	
사슴	호수	29	21	21	23	22	
	두수	316	285	247	224	196	

(단위: 가구, 마리)

가축종류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토끼	호수		56	46	72	37	37	
	두수		574	372	684	420	432	
개	호수		1,533	1,425	1,099	1,103	1,149	
	두수		5,435	5,143	3,612	3,664	2,934	
오리	호수		40	50	31	15	27	
	두수		90,830	81,279	89,280	90,560	136,144	
칠면조	호수		1	5	5	1	3	
	두수		2	23	24	2	11	
거위	호수		11	10	10	5	10	
	두수		28	26	25	15	27	
꿀벌	호수		444	349	354	336	334	
	군수		11,997	9,748	10,035	9,572	8,001	
타조	호수		3	-	2	2	-	
	두수		19	-	6	3	-	
오소리	호수		1	1	1	1	1	
	두수		6	3	3	2	2	

7. 한우 계열화사업소 현황

가. 주요연혁



한우계열화사업소

- 1973년 3월 생축사업 시작(우사 50평, 한우 30두)
- 1976년 3월 한우 70두, 돼지 120두 사육
- 1986년 11월 국유림 74ha 임대계약
- 1993년 6월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장 지정
- 1994년 8월 한우계열화 생산사업장 지정
- 1995년 5월 “장수한우” 상표등록 특허출원 36074호
- 1997년 6월 섬유질(T.M.R)사료공장 신축 2동 420평
유기질비료공장 신축 4동 520평
- 1998년 7월 장수한우 품질인증 획득(인증번호 14-08-16 호)
- 1999년 10월 전국한우 능력평가 대회(최우수상 획득)
- 2003년 11월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최우수상 획득)
- 2006~2008년 소비자 시민의 모임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
-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8년 11월 14일 무진장축협 한우계열화사업소로 명칭변경
☞ 한우계열화사업소에는 생축사업에 필요한 생축장, TMR사료공장, 유기질비료공장, 톱밥공장 등이 있음

나. 현황

1) 일반현황

- (1)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110-18
- (2) 면 적 : 75.4ha(226,00평)
- (3) 주요시설 :
 - 초지 210,000평
 - 부대시설부지 16,000평
 - 축사 34동(7,231평)
 - TMR사료공장 2동(420평)
 - 부산물 퇴비공장 5동(2,700평)
 - 톱밥공장 1동(128평)

2) 주요시설현황

구 분		동수	면 적	사육규모 및 생산능력	비 고
초 지		-	210,000 평	방목 500두	
부대시설부지		-	16,000 평	-	사무실 및 부속창고
축사	A축사	11동	4,000 평	1,050 두	
	B축사	6동	1,086 평	400두	
	C축사	9동	1,087 평	600두	
	방목우사	7동	1,058 평	500두	
	구입우사	1동		150두	
	합계	34 동	7,231 평	2,700 두	
TMR사료공장		2동	420 평	15,000 톤/년	
유기질우분비료		3동	752 평	80,000 톤/년	
맞춤비료 공장		1동	700 평	6,000 톤/년	
툽밥 공장		1동	128 평	3,000 톤/년	

3) 인원현황

구분	08년 12월 31일 현재						계
	4급	5급	6급	기능	계약	일고	
총괄	1						1
생축		1	1			5	7
사료		1		2		4	7
비료					1	2	3
툽밥						1	2
기타						2	2
계	1	2	1	2	1	14	22

다. 실적현황

1) 생축현황

가) 구입현황(2008.01 월 ~ 2008.12 월)

(단위: 천원)

품종	두수	금액	비고
숫송아지	589	1,109,855	

나) 판매현황(2008.01 월 ~ 2008.12 월)

(단위: 천원)

품종	두수	금액	비고
거세 우	752	4,515,930	

다) 사육현황(2008. 12. 31 기준)

(단위 : 천원)

품종	두수	금액	비고
생축(자체)	거세 우	1,597	
위탁		942	
계		2,539	

2) TMR 사료 현황

【판매현황(2008.01 월 ~ 2008.12 월)】

(단위 : 포/천원)

품명	수량	금액	비고
육성우	105,007	761,209	
전 기	164,280	1,253,998	
후 기	221,672	1,837,055	
계	490,959	3,852,262	

3) 비료 현황

【판매현황(2008.01 월 ~ 2008.12 월)】

(단위 : 포/천원)

품명	수량	금액	비고
비료(퇴비)	186,443	522,772	

4) 톱밥 현황

【판매현황(2008.01 월 ~ 2008.12 월)】⁷⁾

(단위 : 포/천원)

품명	수량	금액	비고
톱밥(루베)	22,036	727,188	
옥대펠릿(kg)	211	48,267	
계	22,247	775,455	

7) 장수군청 축산과 제공

제 3 절 잠업(蠶業)



누에치는 모습

우리나라의 잠업은 일제 때는 산(産)이백만석증수(百萬石增收) 계획(1925~39)과 산이 6개년계획(1940~45)를, 8·15 광복 이후에는 산이 3개년계획(1949~51)을, 6·25 동란 후에는 잠업증산5개년계획(1959~63) 등을 시행하였으나 부족한 재정과 어려운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중 제1차 잠업증산5개년계획(1962~66)을 수립하여 잠가(蠶價)를 대폭인상하고 증산의욕을 고취시킨 결과 잠업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어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전북은 66년부터 독자적인 잠업진흥시책을 구상하고 집단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121개 잠업특설지구와 20개 전업부락(지도원 각 1명씩 배치)을 선정 추잠(椎蠶)공동사육 등 기술 지도에 전력하였다.

또한 대대적인 잠실 건축계획이 세워져 66년에 675동, 67년에 900동을 건축함으로써 전북은 68년부터 전국에서 경북 다음 가는 잠업도(道)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장수군에서도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의 시작년도인 67년에 상전규모가 438ha, 양잠호수 7,038호이던 것이 계획이 끝나는 해인 71년에는 상전규모가 797ha, 양잠호수는 7,399 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세계적인 석유파동의 여파로 당시 우리나라의 생사수출국이었던 일본이 1974년 8월 생사수입을 규제하였고 우리나라의 잠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0여만에 이르는 잠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지원과 보상을 하였고, 광대한 면적의 상전을 개설하여 생사의 판로를 마련하였으며, 막대한 투자액으로 가공처리 등에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학적인 기술혁신과 농민의 적극적인 의욕이 통하여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더불어 상전면적과 양잠호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장수군에서도 76년에 상전면적이 8,270ha, 양잠호수가 7,356호로 최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에 들어서면서 또 한 차례의 국제경기 침체여파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잠업 또한 침체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85년말 전북의 양잠농가는 15,980호로 잠업 최성기의 24%에 불과하고 상전면적도 3,582ha로 잠업최성기의 30%에 불과했다. 또한 84년말 장수군의 양잠호수도 3,560호에 불과하고 상전규모도 374ha에 불과한 실정 이었다.

1. 상전(桑田)의 규모와 호수

제1차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잠업소득의 증대로 장수군에서도 상전규모 및 양잠농가호수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76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61년도에 상전면적이 4,512ha이던 것이 76년에 8,270ha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87년에는 불과 330ha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양잠호수도 61 년도의 5,513호에서 76 년도에 7,356 호로 증가하였다가 87년에는 2,141호로 감소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양잠이 위축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석유파동(73년~79년)으로 인한 국제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편농(便農)위주작물로의 농업경작형태의 전환, 그리고 농가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잠업의 피해, 뽕밭의 노후화로 인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저하 등이다.

87년 말 현재 잠업규모별 농가호수를 보면 전체 2,141가구 중 40kg미만의 생산농가가 65.1%인 1,393호이고, 40~60kg의 생산농가가 26.9%인 575호, 60~80kg의 생산농가가 7.1%인 152호, 80~150kg의 생산농가가 0.6%인 14호, 150kg이상의 생산농가가 0.3%인 7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업은 1976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1975~1987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상전면적은 1975년 91.0천ha에서 1987년 17.2천ha로 되어 81%가 줄었고, 누에고치 생산량도 80%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매년 생사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1987년에는 국내 수요량의 71.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잠업의 감소요인은 첫 번째 잠업농가들이 성력화시설 미흡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하여 농가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잠업은 성력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노동력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농가들이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물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잠업은 단위면적당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며, 중국에서의 값싼 누에고치와 생사 등의 수입으로 소득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단위당 소득이 높은 축산, 원예, 특용작물 등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잠업은 천연실크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천연섬유에 대한 선진국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천연실크의 수요와 소비증가가 예상되며 더불어 국내 실크제품의 수요도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누에고치의 수입은 중국의 제품기술발달로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잠업을 확대하여 생사의 자급율을 높이면 고품질의 천연생사로 잠업농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군지역 잠업의 변화추세를 보면 1983년에는 양잠농가가 4,250호이고, 상전면적은 348ha였으나 1987년에는 양잠농가가 2,141호로 줄었고 상전면적도 330ha로 다소 감소되었으며 1996년 15농가로 현저히 감소하여 사양산업이 되었다.

2. 잠업생산 실적

장수군의 잠업생산실적 역시 상전규모나 양잠농가호수의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읍면별 양잠농가수를 보면 장수읍이 550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천천(470호), 계남(389호), 장계(309호) 등의 순이며, 산서면은 평야지역으로 68호에 지나지 않는다.

호당 고치생산량은 번암 및 장계가 54kg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수 48kg, 산서 38kg이나 계북은 겨우 14kg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소잠(掃蠶) 규모별로 보면 1상자(霜子)이하가 전 양잠농가(全養蠶農家)의 85.9%, 전

국평균 43.3%의 배이며, 5상자이상은 겨우 0.5%로 전국평균치 6.0%보다 매우 낮아 본군 양잠농가의 사육규모가 전국평균보다 작다.

한편 누에고치 생산규모별 농가수를 보면 40kg미만이 전 양잠농가 65.1%인 1,393호이고, 40~60kg이 26.9%이며 60kg이상은 전체의 8%에 지나지 않는다.

1987년 잠실(蠶室) 보유현황은 총 1,168동으로 이를 용도별로 보면 보통육이 957동으로 가장 많고, 다음 조상육잠실(條桑育蠶室)이 97동, 상전근접잠실 71동 및 다목적잠실 3동으로 되어 있다.

3. 잠업 통계자료

【잠실보유현황 (1996)】

(단위 : 동)

구 분	계	잠 실	비고
1988	15 동	15	
1989	10	10	
1990	13	13	
1991	70	70	
1992	8	8	
1993	6	6	
1994	11	11	
1995	-	-	
1996	-	-	

【연도별 양잠 농가수】

연도별 읍 · 면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1,295	826	661	364	138	69	45	23	15
장수	370		204	79	49	25	8	6	3
산서	52		58	40	10	5	2	1	1
번암	111		111	57	31	18	9	3	2
장계	224		68	40	9	10	11	7	4
천천	231		114	55	22	5	6	2	2
계남	254		81	38	8	3	3	-	-
계북	53		25	55	9	3	6	4	3

【연도별 상전면적】

연도별 읍·면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305 ha	267 ha	143.2 ha	124.2 ha	117.7 ha	725 ha	725 ha	70 ha	70 ha
장수	58.9		24.7	20.7	15.9	10.9	10.9	5.0	5.0
산서	22.0		25.2	23.2	25.3	14.0	14.0	12.0	12.0
번암	50.6		21.3	20.3	17.4	11.4	11.4	10.0	10.0
장계	60.9		18.5	18.5	17.9	11.6	11.6	25.0	25.0
천천	50.6		19.2	15.2	14.6	8.7	8.7	3.0	3.0
계남	19.0		20.4	13.4	14.6	8.3	8.3		
계북	43.0		13.9	12.9	12.0	7.6	7.6	15.0	15.0

【읍면별 잠업현황(1996)】

읍면	잠업 농가	상전 면적	누에 사육	누에고치 생산	호 당		비 고
					상전면적	잠견생산	
계	15 호	70ha	195 상자	- M/T	4.6ha	- kg	
장수	3	5	9	-	1.6	-	
산서	1	12	35	-	12	-	
번암	2	10	25	-	5	-	
장계	4	25	93	-	6.25	-	
천천	2	3	3	-	1.5	-	
계남				-	-	-	
계북	3	15	39	-	5	-	

【장수군 잠업 변화추이】

구분 연도	양잠농가 (호)	상전면적 (ha)	누에사육 (상자)	누에고치생산 (kg)	비고
1998	1,295	305.0	1,376	48,262	
1989	826	267.0	956	29,720	
1990	661	143.2	939.5	26,750	
1991	364	124.3	576.5	16,412	
1992	138	117.7	333	9,895	
1993	69	72.5	225	5,486	
1994	45	72.5	149	3,234	
1995	23	70.0	108	641	
1996	15	70.0	195		

【소잠규모별 농가호수(1996)】

(단위 : 호)

구분 읍면	계	소 잠 규 모						비 고
		1상자 이상	1-3	3-5	5-10	10-20	20 상자 이상	
계	15	6	3	-	1	-	5	
장수	3	1	1	-	1	-	-	
산서	1	-	-	-	-	-	1	
번암	2	1	-	-	-	-	1	
장계	4	1	1	-	-	-	2	
천천	2	1	1	-	-	-	-	
계남	-	-	-	-	-	-	-	
계북	3	2	-	-	-	-	1	

【잠경생산량】

연도별 읍·면별	연도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48,262	29,920	26,750	16,412	9,895	5,486	3,234	641	-
장수	800 19,034	14,892	8,356	4,042	2,520	1,209	441	63	-
산서	300 2,409	1,936	3,376	3,045	795	450	278	234	-
번암	200 6,340	4,415	4,819	2,785	1,347	657	553	34	-
장계	500 8,277	2,572	2,858	1,661	1,530	1,359	997	-	-
천천	750 6,020	2,783	4,101	2,265	1,574	646	373	66	-
계남	150 5,850	1,668	2,319	1,300	869	324	28	-	-
계북	300 323	1,654	921	1,314	1,260	41	564	244	-

4. 잠업의 폐지

장수지역의 소득원으로서 쌀·엽연초 등에 이어 큰 소득원으로서 잠업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해 짐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력이 필수인 잠업인구가 점차 축소되어 생산량이 70 년대 대비 80%가 감소되었다.

결국 생사업계에서는 국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잠엽농가에서도 상전을 폐지하고 소득이 높은 원예작물이나 축산 등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정부주도 수매사업 또한 1995년도 수매량 641kg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일부잠엽농가에서 생산되는 잠견이 사적으로 거래되거나 약용으로 거래되어오다가 1998년부터 완전 생산이 중단되었다.

제 4 절 산림(山林)

1. 총론

가. 지리적 배경

우리 장수군은 전라북도의 내륙 동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위도 상으로 동남 끝점이 동경 127° 42′, 북위 35° 28′이며 북서의 끝점은 동경 127° 22′, 북위 35° 49′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면적 533km²이다.

이 중 산림면적 431km²로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군으로서 백두대간의 큰 산맥이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덕유산과 (남 덕유산) 영취산, 장안산, 백운산을 이루며 남으로 뻗어 내려 지리산을 이룬다. 금남 호남정맥의 종산인 장안산을 모령으로 하여 서북쪽으로 뻗어 내려 높은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동쪽으로 경상남도 함양군과 거창군의 경계를 이루고, 남으로는 남원시와 접하였고, 서쪽으로는 임실군과 진안군을 접하고, 북으로는 무주군을 접하고 있는 내륙 산림 군이다.



나. 산림과 인류와의 관계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자연은 인간과 공존하였다. 산림은 이 공존관계의 대명제하에서 인류에게 물질적,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초기인류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이었으나 인류문화가 점차 발전하여 가면서부터 산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인류가 부족을 형성하고 취락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산림에서 목재, 연료, 식량(수실과 수피)등을 얻게 되고 그로인하여 산림에 대한 의존도 높아졌다. 인류의 산림에 대한 의존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의 협동과 결속을 다지는 신앙적 존재로 변화 되었다.

나아가 인류와 산림문화에 대한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산림은 오랜 세월동안 인류에게 물질적 혜택을 떠나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을 창출(創出)해 내면서 인류와 더욱 밀접해졌다. 인류는 이러한 산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발달 시켜왔다.

다. 산림의 소유제도 발달

예부터 산림은 무주공산이라 하여 소유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이조 중엽부터 궁중에서 필요한 관방용재(棺房用材)며 연료, 특히 조선재, 건축재 등에 이용되는 구하기 힘든 백년노대목(百年老大木)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산림을 봉산(封山)이라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봉산은 황장봉산(黃腸封山), 울목봉산(栗木封山), 금기봉산(禁杞封山), 향탄봉산(香炭封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국에 양송(養松)이 있는 곳을 양송지(養松地)로 입법화 하였다. 당시 봉산이 충청도 73 개소, 전라도 142 개소, 경상도 63 개소, 황해도 2 개소, 강원도 43 개소였으며 함경도에는 봉산 29 개소, 황장봉산 14 소, 송전(松田) 264 소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봉산은 282 개소, 황장봉산(黃腸封山)은 60 개소, 송전(松田)은 293 개소였다. 그 중 전라도의 142 개소의 봉산은 대부분 장수, 무주, 진안군에서 지정되어 당시부터도 우리군의 산림이 울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림은 봉산외에 양반계급 등에서 소유하는 사양산(私養山)과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송계림(松契林)으로 나뉘었다. 그리하여 양반계급의 분묘 지는 사양산에 두고 타인에 의하여 운영하였고, 일반서민

들의 분묘는 채자장(採紫場)을 오지에 두게 하였다.

이조말기 영조(英祖)·정조(正祖) 때에는 서민들의 건축 등의 목재 수요라든가 연료채취 등의 해소를 위하여 산림의 사점제도를 개혁하였다. 송계제도는 사양림(私養林)을 제외한 산림을 서민들의 공동금양산(公同禁養山)으로 송계화하여 연료 등을 채취하게 하였다.

라. 한 말(韓末) 산림의 임상과 축적

1916년도 조사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산림은 총 1,588만 ha로서 성림지 548만 ha, 치수임지 728만 ha, 미임목지 312만 ha로 임목지가 70%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관북(關北)지방(함경, 강원, 평안)에 우수임목이 많았고, 관동·관남지방에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장수지방에 산림이 편중 되었으며 우수 소나무림은 ha당 평균 203m³이었으므로 당시의 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마. 러시아와 일본의 산림 수탈

대한제국 당시 고종황제의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세력이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러시아의 침탈이 본격화 되었다. 그 중 산림은 러시아가 한·러산림협약을 통해 대산림회사(大森林會社)를 설립하고 우량 적송임지(優良 赤松林地)를 벌채하여 수탈하였다. 그 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체결과 동시 1911년 6월 20일에 법령을 제정하여 국·유림내 산·임산물(產物)처분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동 법령에 의하여 중요 물산 제조업자(重要 物產 製造業者)에게 목재업자 자격증 등을 부여하여 벌채를 강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우량 임목을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산림은 물론 장수군의 산림 또한 황폐 일로에 처하게 되었다.

바. 건국과 6·25 전쟁으로 인한 황폐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정부수립 후 6·25 전쟁과 같은 격변기를 지나면서 일제의 수탈과 전쟁으로 인한 산림의 피해는 컸다. 여기에 무분별한 화전과 화전으로 인한 산불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복구를 위한 무질서한 벌채, 법망을 피한 도벌 등이 흉하게 되어 전국의 산림은 무주공산이 되었다.

산은 더욱 황폐화 되어 매년 우기 때마다 대홍수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농경지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연례행사처럼 찾아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우리군민은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어 산림의 복원이 시급한 문제였다. 1960년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주도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중 산림정책은 산림녹화사업의 기초를 다지게 하였다.

2. 산림녹화사업

가. 산림녹화를 위한 기반조성



196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산림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산림녹화사업에 농촌민은 물론 도시민과 학교, 군·경에 이르기까지 총 동원령을 발동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을 독립 국가산하 단체로 발족시키고, 산림녹화 주체를 조직화하였다. 산림법에 의하여 마을당 산림계를 조직하고 이를 모체로 하여 연료림조성사업, 산지 사방사업(A,B,C,D급 사방), 산림보호 등이 강력 추진되었다.

이에 동원된 산림계원의 인건비는 당시 국가와 산주가 부담 능력이 없어 추후 임목이 성장하여 수확을 하게 되면 산주와 마을 산림계간에 이익금을 분배할 것을 산림법에 명기하여 산주와 산림계간에 수확 부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후 리기다임지 등은 40년 이상이다 되어 벌채 등을 실시하였으나, 법의 제도상 의견이 많아 사유림의 경우에는 산주와 산림계간의 분배는 전무하였고 국공유림의 경우는 산림계에서 수확 분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림녹화 사업의 선행은 농촌 입산 연료를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 방

침에 따라 ① 농촌 부업 아궁이 개량 사업과 병행하여 ②임산연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료림 속성수 조림(리기다, 아카시아, 오리나무, 족제비사리)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산림녹화 사업의 근간이 되어 국민 참여 운동과 민생안정을 위한 임산연료대책조림에 필요한 묘목 생산의 기술 보급 등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녹화사업을 시작한 1962에서 1972까지의 10 년간을 산림녹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연대라고 볼 것이다.

【임야 면적표(1963년)】

(단위 : ha)

총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찰림	사유림
	계	요존림	불요존림			
43,067	6,211	10	6,201	6,964	109	2,973

【임상별 임야 면적표(1963년)】

(단위 : ha)

구 분	총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찰림	사유림
침엽수림	21,758	250	2,507	100	18,901
활엽수림	5,369	853	2,377	—	2,139
침활혼요림	4,994	1,530	1,142	—	2,322
죽림	1	—	—	—	1
요사방조림지	2,260	—	—	—	2,260
요인공조림지	3,704	1,828	431	—	1,445
천연조림가능지	4,447	1,652	407	—	2,388
제지	534	98	—	9	327
화전지	375	18	31	—	326
개간적지	421	11	—	—	410
방목적지	1,232	31	51	—	1,150

【조림실적(1963 ~ 1967년까지)】

(단위 : ha)

합 계	연료림조림	용재림조림	특용수조림	이태리포플러	기타
4,127	2,124	1,668	227	108	—

나. 차산녹화기의 시대적 배경

1)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발초기 불가피하게 파행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 번영의 70년대를 위한 새로운 차

원의 제3차 계획으로서 그 특징은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의 개발과 농업 발전에 기초를 둔 공업의 고도화와 자립경제 구축 국토종합개발에 기초하는 지역개발의 균형에 있었다.

즉 지역개발의 확대 농어촌 생활향상과 개발에 중심을 둔 새마을 운동이라는 농촌개발 운동과 연계하여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그 동안의 개발기반과 국민의 개발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대외지향적인 공업정책으로 수출을 크게 증대시켜 국내 수지를 개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립성장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소득분배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 국민복지의 향상 등을 산림녹화 사업과 연계하여 향상시켜 갔다.

2)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정신혁명 운동이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관을 적립하는 운동 이었다.

농어촌의 근대화의 관전을 농어촌민의 자립 협동 근면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목표 하에 새마을 운동이 1971년 9월부터 태동하게 된 것이다. 당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① 마을의 지도자 양성 ② 주민의 참여의식과 자조 협동하는 자세 ③ 자조의식의 점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요령 등의 중요시책이 제시됨으로서 장수군에서는 1972년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산림녹화 사업을 강화하여 행정지도체계를 강화하고 147개 마을 산림계를 주축으로 조림사업과 마을 책임 산림녹화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다. 치산녹화 사업의 착수

정부에서는 치산녹화를 계획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제 1, 2, 3, 4차 치산녹화 사업을 수립하고 이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68년 농림부 1개국으로 존치되던 산림담당 기구를 산림청으로 확대하여 조직을 개편 제1차 치산녹화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정부조직 확대 개편과 동시 1개 산림계를 과로 승격시켜 식수, 보호, 육림 등 3개계를 신설하고 제1차 치산녹화 사업을 과감하게 착수하게 이른다.

1) 치산녹화사업

가) 제1차 치산녹화 사업의 혁명적 추진

장수군은 1973 ~ 1982년까지를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사업기간으로 수립하고 새마을 운동과 병행 산림계가 모체가 되어 3월부터 5월까지를 온군민 식수기간으로 설정 총 국민 동원령에 의한 새마을 정신과 마을 산림계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12,000ha의 조림계획을 수립 6,410ha의 경제림 조림과 속성수 2,100ha, 연료림 3,491ha 등을 불과 6년만인 1978년에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979년부터 보안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조기달성 하게 된 것은 첫째 온군민이 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산림계와 새마을 운동을 범 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혁명적 사업 추진으로 가능하였다. 둘째 조림과 임산연료 대책 등의 녹화사업을 군민소득과 경제안정을 직결시켰고, 셋째 산지개발 속성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녹화에 성공, 넷째 매년 산주대회를 개최하여 산주의 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산림의 경제적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성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조림실적】⁹⁾

(단위 : ha, 본)

연도	총 수		국유림		공유림		사찰림		사유림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1972	1,887.5	5,690.5	-	-	89	267	-	-	1,798.50	5,423.7
1973	1,582.5	4,426.8	32	96	69	207	-	-	1,481.56	4,123,800.0
1974	1,109.0	3,192,000.0	-	-	50	150,000	-	-	1,059.00	3,042,800.0
1975	1,521.0	43,639,240.0	183	732,000	126	342,000	-	-	1,212.40	2,583,240.0
1976	2,217.0	5,029,120.0	199	718,400	18,348	516,992	-	-	1,834.52	3,568,728.0

나)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과 착수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조기 달성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사업(1979년 ~ 1987)을 수립 추진하게 이른다.

정부계획에 의하여 장수군은 6·25 전쟁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산지를 이용한 화전민이 수백가구에 이르렀으며 산지 화전 면적도 375ha 이었던 화전지를 정부법령에 의하여 (1974 ~ 1978) 4개년에 걸쳐 화전민을 이주시키고 과감한 조림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 때, 농경지로서 가능한 임지는 경작자에게 매각(연부상환)하여 경지로 전환시키게 된 것이다.

9) 군 통계연보 제공

제2차 치산녹화 산업은 용재림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림 조림을 집단 단지별로 조성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산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 개발 기금을 조성(조림, 육림, 임지매입) 저리로 산주에게 융자하여 산림 사업에 투자토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조림 실적에 따라 독립가, 모범독립가, 우수독립가 등을 선정 매년 산주대회 시에 훈포장·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이에 힘입어 제2차 치산녹화 계획기간 내에 군내 총 80개의 경제림단지 12,778ha 조림과 수종갱신조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다. 또한 우수 천연 치수 임지를 선정 천연림 보육 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이른다.

※ 집단 단지 : 장수군의 대표적 용재림단지조림은 장수수분지구단지, 동촌두산 지구단지, 천천 월곡 지구단지, 삼장지구단지, 춘송 지구단지, 용광 지구단지, 계남 호덕 지구단지, 침곡지구단지, 장계 금덕 지구단지, 무농 지구단지, 삼봉 지구단지, 계북 농소 지구단지

다) 제3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착수

제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3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88~1997)을 산림자원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화(山林資源化)를 위한 산림소득 개발사업과 공익적 기능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산림효용(山林效用)을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하여 ① 우량 임분의 자원화 ② 산림부산물 생산 확대지원 ③임산물 유통체계 확립 ④임도시설의 확충 ⑤ 임업기능인 양성(작업단 구성)등 산림기술 향상 등으로 이제까지 조림목의 육성사업과 천연림의 육림사업 우량 임분의 육림간벌 등 산림자원화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다.

이렇게 온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 산림계원의 희생정신에 의한 산림보호 운동으로 산지 치산녹화 사업이 시작 된지 30년만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산림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치산녹화 사업에 의한 울창한 산림을 배경으로 제4차 치산녹화 사업계획이 착수하게 이른다.

라) 제4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착수

제4차 치산녹화 기본계획(1998~2007)을 수립 그간 식재하였든 경제성



이 적은(리기다, 낙엽송 등) 수종개신 별채와 자원화 된 산림을 인간 친화적 환경림 조림을 매년 250ha 이상을 실시하게 되었고 산림 휴양림의 조성 보수 및 산림욕장, 가족 휴가촌, 산림 수련장, 산촌 종합개발사업 등과 산사태 예방과 수자원의 함양 홍수에 수량조절 등을 위한 산지 사방댐의 확대 시설과 산화 방지와 산림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지속적인 임도시설(평균 ha 당 10m 목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 휴양과 관광 등산객의 유치를 위한 유명산 등산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숲 가꾸기와 공공근로 사업을 연계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숲 가꾸기 5개년계획 하에 추진 중이며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국민 복지지표가 중요시되는 이때 산림자원화로 인한 경제발전과 환경임업 육성으로 국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으로 인한 산림 자원육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차 치산녹화(2008~2017) 기본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2) 치산녹화사업의 세부사업

가) 양묘사업(養苗事業)

황폐된 산림을 계획대로 조림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묘목이 소요되었기에 이에 필요한 묘목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생산 주체를 지정 계획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제림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일반 기술이 많은 양묘업자와(양묘협회) 산림조합에서 생산을 하고 연료림 조림에 필요한 리기다, 아카시아, 족제비싸리, 포플러 등은 마을 산림계에서 생산하였다, 더

10) 군 통계연보 제공

육이 적지적수(適地適樹) 원칙에 따라 장수군내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 등 산림계 사업으로 많이 생산하였으며 기술지도는 산림조합 양묘기사가 전담하여 생산하였다.

이에 필요한 종묘는 군에서 지정한 채종림에서만 채취하여 종묘를 공급받아 장기수를 제외한 연료림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장수군내 마을 산림계에서 생산하여 조림과 사방에 전량공급하였다. 마을 양묘는 1962년부터 1980년까지 생산하였다.

【양묘(수묘) 생산실적】¹⁰⁾

(단위 : 천㎡, 천본)

년도	사업 개소수	사업면적	상면적	양묘			비고
				계	성묘	유묘	
1967	1	2,680	168,000	1,300	690	620	
1968	1	4,140	248,000	3,060	2,033	1,027	
1969	7	10,620	8,340	3,890	1,857	2,033	
1970	4	16,640	11,000	12,118	6,997	5,121	
1971	4	139,421	95,822	6,503	1,324	5,179	
1972	19	55,190	42,828	5,917	3,008	2,909	
1977	25	116,594	77,783	1,388	1,348	40	
1978	25	159,010	106,060	1,035	968	167	
1979	13	82,028	54,684	10,108	338	180	
1980	4	295,000	19,677	301	301		

나) 조림사업(造林事業)

(1) 연료림 조성사업

우리나라는 예부터 산림은 무주공산이란 개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유 온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반 연료가 임산연료이었기에 임산연료 채취를 위한 산림의 피해가 지속되었으며 6·25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은 극도로 피해되어 총 43,000ha의 전체 임야 중 약 50%에 달하는 임지가 무임목 상태여서 1959~1967년까지 3,491ha의 연료림을 조성하였으며 전 군민이 임산 연료 절약에 최선을 다하였다.

(2) 경제림 조림

제1차 치산녹화 계획에서 장기수 조림, 연료림 조림, 속성수 조림 등 미림목지 조림을 완료하는데 치중하였고 제2차 치산녹화 계획기간 산지 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림이 치중하여 지역별 완결 조림원칙에 따라 경제림 단지

조성 (장수군 80개 단지) 완료하였고, 유실수(밤나무)조림과 속성수(포플러, 은수원사시, 오동나무)조림을 실시하였다.

미립목지 조림이 완료됨으로서 제2, 3차 치산녹화 계획 기간 중 산림자원화 사업에 따라 수종갱신 별채로 인한 조림과 수확별채로 인한 임지를 조림하는데 치중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사업으로 식재하였던 리기다소나무는 경제성이 없다 하여 점차 별채하고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군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조림 실적】

(단위 : ha)

년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실적	12,778	2,639	2,309	1,523	1,808	1,445	1,077	593	581	435	368

【수종갱신 조림 실적】

(단위 : ha)

기 간	제3차 치산녹화 기간 (1988~1997)	제4차 치산녹화 기간 (1998~2008)
합 계	6,005	2,748
		3,257 (단위 : 면적 : m ² 분수 : 천분)

(단위 : 면적 : m², 본수 : 천본)

(3) 사방조림 및 사방댐

황폐된 산림을 하루 속히 녹화시키기 위하여 1961~1968년까지 정부의 동원령에 의하여 마을 산림계가 총 동원되어 우선 황폐지 복구라는 대명제 아래 A, B, C 급으로 구분하여 떼 입히기 풀씨뿌리기, 아가시아, 리기다, 산오리나무, 싸리나무, 사방오리나무 등 속성수를 조림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제 식량기구에서 나온 480 양곡 (밀가루)등을 일당으로 약간씩 제공하였으며 사방조림 후 수확기에 산림계와 산주 간 수익을 분배하도록 산림법에 규정하여 수익 분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장수군의 대표적 사방 사업지로서는 계남면 난평, 침곡, 신전, 위계, 사계, 월곡, 천천면 장관, 월곡, 장수읍 선창, 노하, 산서면 건지, 이룡, 쌍계, 사계, 봉서 사상 등 산서면 남부지역 전 마을이 벌거벗은 라지(裸地)였던 임지를 전 산림계원의 새마을정신으로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착수되면서 60년대에 실시한 사방지에 대한 보안공사와 새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완결 사방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 11)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12) 군 통계연보 제공
 13)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그 후 1987년도 장수군의 집중호우(2일간의 700mm 폭우)로 인한 큰 피해로 복구에 약 800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 홍수였다.

2005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계북면 농소, 임평지구와 천천면 춘동 삼고리 지구의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과 농경지가 매몰되고 인명피해 등으로 약 2,500억원의 재산 손실을 보게 된 근대 역사상 큰 재앙이었다.

【2005년 매미태풍 집중 홍수 산사태 피해규모 및 복구 실적】¹¹⁾

구 분	피해현황		복구현황		비 고
	피해사업량	피 해 액	복구사업량	복 구 비	
계		23,348,085천원		23,348,085천원	
산사태	122 ha	11,224,689천원	122 ha	11,224,689천원	
임 도	6.3 km	790,643천원	6.3 km	790,643천원	
야 계	45.8 km	9,963,848 천원	45.8 km	9,963,848 천원	
사방댐	5 개소	1,368,905 천원	5 개소	1,368,905천원	

【사방사업실적】¹²⁾

연 도	총 수		산지사방		해안사방		기 타	
	시행 면적	조림 본수	시행 면적	조림 본수	시행 면적	조림 본수	시행 면적	조림 본수
1967	20,845	1,042	195	975			1,345	67
1968	60	240	60	240			380	
1969	380							
1970	1,115							1,115
1972							620m	

※ 72년이후 사업완결(71년사업은 없었음)

【사방댐 시설 실적】¹³⁾

시설년도	개 소 수	리 동 수	비 고
1990~2008	35	31	

다) 농촌 부업 아궁이 개량사업 (1963~1976)

산림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 임산 연료 소비에 큰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각 가정마다 가옥 구조 조정을 통하여 부업 아궁이를 최대한 수량을 줄이고 축소된 아궁이로 개량 보급함으로써 임산 연료절약과 농촌 연료 채취 인력을 감소함으로써 산림녹화는 물론 연료 채취 인력의 절감효과를 가져오



게 된 것이며, 이 사업은 군 행정의 지원을 받아 산림조합이 각 마을 산림계 단위로부터 부역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국가경제가 점차 부강해짐과 동시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에도 석유, 가스, 연탄, 전기등으로 연료가 대체되면서 연료림 조성지는 80년대부터 용재림으로 전환 육성되게 된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

【아궁이 개량 실적표 (1963~1976까지)】¹⁴⁾

(단위: 개)

면 별	총호수	총아궁이	개량아궁이	미개량아궁이	기 타
장수	2,572	6,090	5,097	993	
산서	1,716	4,103	3,391	712	
번암	1,743	3,910	3,201	709	
장계	2,120	5,160	4,360	800	
천천	1,402	3,959	3,218	741	
계남	1,164	2,955	2,416	539	
계북	1,027	2,696	2,190	506	
합계	11,744	28,873	23,873	5,000	

14) 군 통계연보 제공

라) 육림사업(育林事業)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1978년까지 4년이나 조기 달성함으로서 심어 놓은 조림목을 가꾸기 위하여 조림목 풀베기 작업 년 2회 실시와 조림목에 대한 시비(施肥)와 추비(追肥) 1회 이상을 실시하였으며 천연림(天然林), 우량임분(優良林分)에 대한 치수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1) 육림의 날 제정과 시책 수립

1977년부터 (대통령령 제6615호) 대통령 특령에 의하여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육림(育林)의 날로 정하여 조림지에 대한 비료주기, 활·잡목 솎아내기, 천연림 가꾸기, 병충해방제, 월동기 보호시설 등을 실시토록 육림의 날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치산녹화 1, 2차 기간 동안에는 산주, 마을 산림계원 학교, 공무원 등 전국민이 참여하였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접어들면서부터 국가경제가 높아지고 산업화 되면서 조림과 연계하여 산림에 대한 육림작업에 정부시책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1, 2차기에 심어진 조림지의 철저한 육림작업 실시로 성공시킨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시책을 수립하여 육림을 이룩하였다.

- (가) 식재지 사후관리를 연계하여 육림사업 확행과 사후관리 철저
- (나) 육림의 날을 기하여 범국민 산림보호 강화와 육림기술의 확대
- (다) 조림지에 대한 3년간의 시비
- (라) 조림 목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2년에 거친 임목 생장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2) 녕쿨제거 사업 실시

1978년부터 조림 목에 대한 녕쿨제거 (찰녕쿨, 머루, 다래, 덩굴, 기타 등) 작업이 조림사업 못지않게 철저히 제거하게 되었으며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1985년부터는 약제(케이핀)를 사용하였고 1986년부터는 값싼 약제(근사미)를 사용 현저한 효과를 보게 되어 조림목 육림에 성공하게 이른다.

또한 조림지 책임담당제와 조림목에 대한 철저한 검목으로 제2차 치산녹화 사업은 성공리에 완수된다.

(3) 육림간벌(育林間伐)

제3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88~1997) 산림자원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2차 치산녹화 사업에 연계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실시하면서 기히 육성된 천연 조림지와 인공조림지가 소경목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육림간벌 작업이 요하게 되어 1990년 이후부터 조림지에 대한 육림간벌이 실시된 것이다.

이때부터 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리기다) 등의 육림간벌로 인한 벌채 목은 표고재배용 또는 해태 양식에 필요한 해태 양식말목 건축자재 등으로 공급되고 폐·잔목은 임산연료로 공급되게 이른다.

(4) 숲 가꾸기 사업

제4차기 산림기본계획안(1998~2008)까지는 자원화 된 산림을 토대로 한 환경임으로 전환해 가는 변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육림사업도·임내정

리 등 숲 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실업자들의 지원사업 등으로 병행 되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¹⁵⁾

년 도	사업실적(ha)			비 고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덩굴제거	
1998	90	60	400	
1999	45	140	320	
2000	17	125	300	
2001	50	110	200	
2002	78	151	1000	
2003	140	300	600	
2004	200	110	400	
2005	144	212	200	
2006	161	225	118	
2007	70	130	140	
2008	320	250	140	

(5) 장작 보일러의 등장

1997 년도 IMF 의 경제 악화로 인하여 난방의 주 연료였던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석유공급이 어려워지자 농촌 난방에 임산연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무육이나 육림간벌로 얻어지는 간벌목이나 폐·잔재 임내 정리로 인하여 얻어지는 임목을 농촌 난방용으로 공급하여 농촌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일손이 없는 노약자 또는 결손가정 등에 정부지원을 받아 장작보일러를 설치하여 줌으로서 일석이조의 경제혜택을 보고 있으며 장수군 보일러 공급실적은 아래와 같다.

【장작보일러 설치현황 및 임산연료소요량】¹⁶⁾

읍 면	대수(개)	임산연료소요량(TON/1 일)	비 고
계	1,115	22.3	
장수읍	266	5.32	
산서면	118	2.36	
번암면	190	3.80	
장계면	216	4.32	
천천면	141	2.82	
계남면	120	2.40	
계북면	64	1.28	

15)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16)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6) 사유림 임도시설

육성된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병해충 방제와 산화방제 등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생산목의 운송 등 산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00ha 단위로 산림을 구분 설정하여 198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 형편상 일반도와 같은 완결임도를 개설하지 못하여 홍수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1988년부터 제 4차 치산녹화 계획이 시작되면서 기존 시설된 임도에 대한 재 보수 시설과 완결설계에 의한 임도시설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임도시설 실적(개보수)】¹⁷⁾

(단위 : 천원, km)

년도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계	임도 보수	구조 개량	계	임도 보수	구조 개량	
2000	243,880	18,000	225,880	16.10	5.00	11.10	
2001	494,279	20,000	477,279	4.10	0.50	3.60	
2002	485,195	82,215	402,980	24.90	7.90	17.00	
2003	454,251	23,222	431,029	19.60	5.60	14.00	
2004	460,607	25,071	435,536	17.18	11.50	5.68	
2005	388,750	56,313	332,437	12.77	11.00	1.77	
2006	519,489	43,237	476,252	14.10	11.00	3.10	
2007	509,253	49,500	459,753	14.50	11.00	3.50	
2008	360,000	50,000	310,000	19.30	11.00	8.30	

라. 산림녹화 초기와 현재 산림비료

1960~2008년까지의 장수군 산림녹화사업의 추진결과와 60 년대의 산림과 2008년대 현재의 산림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임야면적비교 (2008 년)】

(단위 : m²)

년 도	총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증 감 사유
1963	43,067	6,964	29,892	29,892	국유림 증가는 집단화 사업에 의한 매입 증가
2008	40,543	5,054	5,054	25,800	공유림 감소 사유는 매각으로 인한 사유림 감소는 개간으로 인한 감소
증 감	-2,524	+3,433	-1,190	-4,092	전체 면적의 감소는 개간으로 인한 농경지 증가

【임상별 축적비교 (2008년)】

(단위: m³)

년 도	총재적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증 감 사유
1963	800,377	655,536	144,841		총 재적이 증가한 사유는 치산녹화계획의 성공과 40년이탄 육성기간의 성과이며 혼효림은 치산녹화 후 정부의 계획에 의한 식재
2008	4,531,625	2,058,428	1,615,517	858,041	
증 감	+3,731,248	+1,402,892	+1,470,676	+858,041	

3. 산림보호사업

1948년 정부수립 후 농림부는 임업정책의 하나로 기본방향을 ① 5식(5植1伐), ② 토탄개발, ③ 도난 벌 방지로 정하고 산림피해 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나 6·25전 쟁으로 인하여 더욱 더 산림이 황폐하게 되자, 1951년 9월 산림보호 임시 조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마을 산림계 조직을 통한 자발적 산림보호를 유도하였으나 임산연료 채취와 농촌 식량부족으로 인한 방화 등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61년 5·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산림법이 1962년 1월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산림계 산림조합이 공법인체로 발족하여 산림조합 계통 조직을 통한 산원 주민에 의한 산림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6·25 전쟁이후 도시의 복구를 위한 목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난벌이 성행하게 되자 군의 허가에 의한 벌채와 반출은 검인 타기에 의한 반출허가증을 소지하고 반출하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단속이 철저 하였다.

가. 산불방지



1962년부터는 입산을 통제하게 되며 마을 산림계에서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산불방지 등 제반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림계원 전원이 윤번제로 산림 순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임산연료 소비

산불방지 초소

전략 책으로 부엌 아궁이 개량(1962~1976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는 군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과 읍·면장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산화방지 등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임산연료 확

보를 위한 낙엽 채취가 성행하게 되자 낙엽 채취금지 등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산불예방과 조기 산불진화가 중요하고 산불은 일시에 잿더미로 재산이 손실되는 관계로 산림시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1977년 9월 자연보호 운동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산불 감시초소 설치와 유급 감시원을 이용 정기적 순산과 마을 산림계를 통한 홍보 강화와 매년 3월~5월, 10월~12월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 산림순산원의 배치와 군청 내 산화·진화대를 편성 철저를 기하여 오고 있으나 매년 수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산불피해 상황】¹⁸⁾

(단위 : ha)

구 분	위 치	피해상황	비고
총 계	12 건	6.73	
소 계	1 건	0.03	
2004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산 92	0.03	
소 계	5 건	1.50	
2005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51	0.50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37	0.70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53	0.10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54-1	0.10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54-1	0.10	
소 계	1 건	0.50	
2006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산 11-1	0.50	
소 계	1 건	0.50	
2007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 59	0.50	
소 계	4 건	4.20	
2008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산 1-1	0.30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산 25-1	0.10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 32-31	0.30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산 8, 9, 10	3.50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산 1		

나. 산림 병충해 방제

산림 병충해 방제는 1960년대만 해도 극히 소극적 이었으며 병충도 그 심도가 극심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면서 우리 장수지역에 솔나방(송충)이 만연되어 군 전 지역의 소나무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엇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로부터 들어 온 솔잎혹파리(오배승)가 급속도로 소나무를 잠식하여 군 내 소나무 임지 60%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또한 활엽수인 오리나무와 포플러, 은수원 사시, 벚나무 등 조림한 나무에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 온 병충들이 만연되어 정부의 지원 하에 우리 군에서도 방제를 위한 기계의 도입과 약제를 확보하고 병충 구제에 전력하게 된다.

70~80년대에는 병충해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병충이 극심하였으나,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항공 방제는 물론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인력으로 약제를 주사하는 작업을 통하여 1990 년대를 넘어 오면서 솔잎혹파리와 솔나방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간혹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2001년도를 들어오면서 소나무 재생충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소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으나 우리 장수군은 아직 발생되고 있지 않아 다행이라 하겠다.

활엽수에 많은 피해를 주는 오리나무 잎벌레와 흰불나방 등은 2006년 이후에도 가로수나 정원수 사방지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군청 산림당국으로부터 매년 구제를 하고 있으나 피해 발생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해충 (솔잎혹파리) 구제 실적】¹⁹⁾

년 도	면적 (ha)	위 치	비고
2003	50	산서면 백운리 산1번지외 35 필	
2004	100	산서면 봉서리 산18 번지외 56 필	
2005	59	번암면 유정리 산138번지외 35 필	
2006	55	산서면 학산리 산42번지외 15 필	
2007	120	산서면 마하리 산 28-1번지외 42 필	
2008	100	장수읍 선창리 43번지외 18 필	
계	484		

19)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4. 임산물 생산 및 소득

가. 임산물 생산

에서 얻어지는 산물은 주산물인 임목생산과 부산물인 녹비, 연료, 사료, 수실, 버섯 산나물 수지 수피, 탄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목생산을 위주로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황폐된 산림을 우선 녹화시키는데 치중하여 1·2·3·4차 치산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전 산림이 이제 겨우 유령 임분을 벗어나 청장년임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주 산물인 목재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영체제로 운영되지 못한 실정이며 1963년 헥타 당 평균 축적이 18m³에 불과 하던 것이 2008년 현재 헥타 당 평균 118m³으로 무려 10배나 증가되었다.

나. 임목 생산사업

장수군은 대 다수의 산림이 2령 3~4령임이 대부분이어서 특수 목재 생산 외에는 수확 벌채가 많지 않으며 피해 목 벌채나 수종 갱신 벌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산녹화 기간에 심어진 리가다소나무는 사령급 이상의 소나무로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갱신벌채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된 목재는 일부 펄프 용재와 같은 특수용으로 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수 관내에 소재하는 제재소에서 반제품으로 생산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년도 별 임목 벌채 량】

(단위 : ha, m³)

년 도	구 분	주 별			왜 립	간 벌	비 고
		계	개 벌	택 벌			
2008	면적	296.3	25.9	269.4	1.0	509.4	
	재적	21,742.0	2,250.0	19,436.0	55.0	14,367.0	
2007	면적	237.6	72.5	112.9	5.0	230.4	
	재적	17,584.0	7,580.0	9,682.0	352.0	6,090.0	

다. 목재 가공시설

1) 제재시설

피해목과 수종 갱신 벌채 등으로 얻어지는 목재를 군 관내에 소재하는 제재소에서 판재나 각목 등으로 제재하여 반제품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1980 년대에 각 읍면에 1개소 이상 설치되었던 제재소가 벌채가 억제되고 임목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제재소가 거의 폐쇄 되고 일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목재 제재시설 (2009 년)】²⁰⁾

20)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제재소명	시설규모	생산능력	목재사용량	고용인원	연간매출액	위 치
평화제재소	1,157㎡	1,000㎥	1,000㎥	3명	120백만	장계리 522번지
청산제재소	3,942㎡	600㎥	200㎥	2명	112백만	삼봉리 22-2번지
장계제재소	6,000㎡	15,000㎥	15,000㎥	5명	200백만	계남면 호덕리 620번지
한성제재소	3,305㎡	1,800㎥	1,200㎥	6명	200백만	장수읍 개정리 474번지
대성제재소	4,958㎡	3,450㎥	3,449㎥	5명	835백만	변암면 대론리 839
계		8,350㎥	7,349㎥	21명	1,467백만	

2) 가공시설



특수 목(들메나무,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느티나무)으로 생활필수품이나 장식품 목기 등을 가공 생산하는 목공예 가공 공장이 소규모 가내 수공업으로 장계면 일원

목공예 가공공장

과 변암면 지리리 등 여러 곳에서 생산하여 1970년부터 대도시와 사찰 등에 판매하여 왔으나 1996 년도의 정부 시책에 의하여 정부 지원에 의하여 목공예 공장을 집단화하여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 목공예공장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공예품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2008년 현재 목공예 단지 전원이 폐쇄된 실정이다.

라. 부산물 생산

산림 내에서 부산물이라 함은 목재 생산외의 모든 생산물은 산림 부산물이라 칭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산림 부산물 생산은 농촌 소득원으로 큰 역할을 하여 왔으며 식량대용이나 산채 등 뿐 아니라 약용이나 공업용 원료 등 용도가 다양하게 공급되어 왔으며 산업발달과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해 왔다.

1) 갈저(쥬녕쿨) 및 멧게 잎 생산

갈저는 쥬 속껍질을 이용한 고급벽지로 가공 생산하는 원료로서 전량 수

출하는 품목으로 선진국의 각광을 받았으며 장수지역 산촌 민들의 소득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었다.

1970~1980년대 초까지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장수군 산림조합에서 수집 가공(벽지공장)까지 운영하였으나 산림녹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 인력이 극감되고 산림녹화로 인한 침이 점차 고갈되어 가면서 1980년 초에 생산을 중단하였다.

2) 식용 부산물



보리 고개를 면치 못하였던 60~70년대의 산촌에서는 산에서 식량을 얻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산나물을 비롯해 수실, 수근, 수피, 버섯 등의 다양한 생산품의 농산촌의 생활식량이 되어 준 것이

다. 1980년대를 넘어 서면서 국가산업이 발달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품목은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고사리, 두릅, 취나물, 도라지, 더덕,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은 인공재가 성공됨으로서 고급 식품으로 공급되고 있다.

약용으로는 봉양, 천마, 세신, 구절초 등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가시오가피, 오미자 등은 8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집단 배재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수집과 판매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물(수실, 버섯, 산채)의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계통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수집체와 생산자를 위한 출하를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아 산림조합에 임산물 집하장을 개설하여 부산물 수립공판장을 설치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4) 약용수 생산(약용)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목류 중 가시오가피나무, 율나무, 두충나무, 느릅나무, 황벽나무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율나무, 두충나무, 가

시오가피나무 등은 국가 장려품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많은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옷나무 등 일부 품목 외에는 판매 시장이 여의치 못하여 농가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5) 표고버섯

장수군 전역에 재배가 분포되어 있으나 장계면과 장수읍 몇 개 마을에서 집단 재배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건 표고로 생산 판매하였으나 수요자의 급증과 신선한 식단을 즐기는 호식가들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생 표고로 시판하고 있으며, 작목반 등을 조직, 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량의 공동 판매로 출하의 조절과 판매시장의 선택 등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산채류

1960년대 농산촌의 식량이 되었던 산채의 분포는 품목이 많다. 취나물, 곰취, 고사리, 고비, 도라지, 더덕, 두릅, 다래순 등 다양한 산채가 채취되었으나 산에 임상이 무성하여지고 농가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고사리, 취나물, 두릅, 도라지 등 일부 품목만이 인공 재배에 의해 생산이 되고 있을 뿐 자연생산은 극히 저조하다.

재배된 품목은 도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두릅

7) 수실류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수실류는 오미자를 제외한 경제성이 높은 수실은 없다고 하겠으며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대추, 호두, 밤, 감, 은행, 산수유, 도토리, 산머루, 다래와 같은 많은 품목이 재배되고 있으나 기후 등 기반 여건이 좋지 못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보며 오미자는 1970년대부터 인공재배에 성공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조직 장수군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8) 수피류

수피는 식용, 약용, 공업용 등 다양한 품목이 자연산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람채로 인하여 고갈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1970년대에 각광을 받아왔던 굴참나무 수피(콜크용)는 장수읍 덕산리, 장계면 대곡리, 천천면 비룡리, 장판리, 계남면 장안리, 번암면 지지리, 동화리 등 고산지대

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농산촌 소득에 크게 기여했으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장수에서 생산 되는 수피는 굴참나무수피, 느릅나무, 옻나무수피, 두충나무, 오가피나무가 대표적 수종이다.

9) 수액류



수액은 식용, 약용 등으로 옛부터 허약자의 질병에 치료나 보양식으로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소나무 수지의 경우는 공업용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소나무에서 생산되는 송지(松脂)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에서 채취하여 수요가 희소한 관계로 생산이 극히 감소하였다.

고로쇠나무는 우리 장수군의 고산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수액 채취 시기는 경칩을 전후하여 삼월 초부터 사월 초까지 생산이 가능하나 매년 기후에 따라서 생산 시기나 생산량이 조절되기도 한다.

생산은 주로 국유림 내에 분포되어 있어 산림당국으로부터 마을 공동채취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채취하며, 수액은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 하여 도시민들의 기호음료로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장수군 농촌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군 산림관광과 및 농촌기술센터 제공

【산림부산물 생산실적(2008 년)】²⁾

(단위: 천원kg)

구 분	품 명	참여농가수	재배량	생산량	소득액	비고
버섯류	송이	150		5,500	550,000	
	표고	16		8,935	893,500	
산채류	취나물	8	1.83	44,526	44,526	
	드릅		11,079	11,079	661,474	
	더덕		6,493	6,493	71,423	
	도라지		4,222	4,222	14,777	

(단위: 천원/kg)

구 분	품 명	참여농가수	재배량	생산량	소득액	비고
수 실 류	오미자	653	159	128,100	3,843,000	
	밤		148,375	148,375	445,125	
수 피 류	오가피나무		9,340	9,340	28,020	
수 액 류	고로쇠나무			925,500	138,750	
구 근	천 마	21	4	34	17,000	

5. 자연휴양시설

자연휴양림은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경제가 부흥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도 높아져 건강과 문화, 복지 등이 우선하면서 산림이 목재 생산이나 부산물 생산의 주산지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휴양 등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인식 발전되면서 산림이 건강 휴양과 여가 휴식 공간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의 복지와 여가 문화를 즐기는 장소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휴양시설을 1991 년부터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시설하게 되어 장수군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국유림내에 100ha 의 휴양림을 선정 산막, 평상 등 숙박시설과 설매장, 물놀이장, 오락장, 탐방로, 산림욕장, 체육시설 등을 1998 년까지 완료하고 당년부터 개장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보건휴양에 크게 기여하고 산림문화 발전 도모와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군 세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가. 외룡자연휴양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발전하는 문명에 지쳐 있다. 삶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숲을 그리워한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산의 정기를 마시기를 기원한다. 산의 침묵에 안길 때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아늑한 숲의 오솔길을 걸어 보라.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외룡휴양림 내 오솔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깊숙이 아늑하게 자리 잡은 산막이 보인다.



와룡리 물썰매장

1) 시설현황



- 위 치 : 천천면 비룡리 산 84 의 2번지 외 25필
- 지정면적 : 104ha(국유림 100ha, 군유림 4ha)
- 조성연혁 : 조성계획 승인 1991 년 10 월
- 개 장 : 1996 년 6 월 1 일
- 시 설 물 : 산막 9 동(80 평), 복합산막 1 동(12 실), 휴양관(6 실)
- 편의시설 : 야영테크 80개, 취사장 5 개소, 공중화장실 9 개소, 산림욕장 3 개소
- 놀이시설 : 썰매장 1 개소, 물놀이장 1 개소, 산림문화휴양관 1 개소
- 주 차 장 : 2 개소

2) 연간 이용객

(단위 : 천원)

년 도 별	이용객수(명)	수입액	비고
1996~2007	231,571	1,344,994	
2008	20,165	151,771	
합 계	251,736	1,550,994	

나. 방화동연휴양림

1) 시설현황

- 위 치 : 번암면 사암리 산 206 번지 외 1 필
- 지정면적 : 106.1ha(군유림)
- 조성승인 : 2001 년 10 월
- 개 장 : 2003 년 3 월



- 시설개요 : 산림문화휴양관, 수련관(16실), 산림문화관(1실, 59평), 숲속 의집 4동), 화장실 1개소, 산림욕장 1개소, 식당 1개소, 인공폭포 1개소

2) 연간 이용객²²⁾

(단위 : 천원)

년 도 별	이용객수(명)	수입액	비고
2003~2007	18,812	365,176	
2008	14,920	141,767	
합 계	33,732	506,943	

22)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다. 방화동 가족 휴양촌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숲이란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조성된 것이다. 도시민이 도시문화의

찌들인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건강과 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다. 보건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도 시민들의 질병의 치유와 예방의 숲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 시설현황

- 투자사업비 : 3,370백만원(국비 1,627, 도비 322, 군비 1,421)
보상비 461, 토목 1,516, 건축 438, 조경 370, 기타 585
- 위 치 : 장수군 변암면 사암리 625번지
- 지정면적 : 250,000㎡(25ha), 건물 : 관리사 1동(117.28㎡)

2) 조성연혁

- 1988. 2. 19 관광지 지정(교통부령)
- 1988. 10. 4 조성계획 승인
- 1988. 10. 5 국내최초 국민관광지 지정
- 1992. 5. 2 준공
- 1992. 7. 1 일 개장(국내최초, 교통부령)

3) 주요시설 현황

시 설 명	개소수	면 적	시 설 명	개소수	면 적
계	12 개소				
관리사무실	1동	117.28 m ²	모험 놀이장	1개소	1,530 m ²
전 망 대	1동	15 m ²	수 도 시 설	1식	45 m ²
공중화장실	5 동	374.1m ²	가족 놀이장	1개소	1,230m ²
취 사 장	3 동	195 m ²	수변피크닉장	1개소	1,590 m ²
자동차야영장	2개소	11,130 m ²	토산품전시장	1개소	50 m ²
야 영 장	3 개소	2,100 m ²	상 가	1개소	167m ²

4) 연간 이용객²³⁾

(단위 : 천원)

년 도 별	이용객수(명)	입장료	시설이용료	합계	비고
1992~2007	295,962	310,472	320,972	631,444	
2008	30,535	53,035	42,535	95,570	
합 계	326,497	363,507	363,507	727,014	

23)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6. 공원과 명산 그리고 등산로

가. 공원과 명산

장수군은 산림 군으로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천혜적인 조건에 의하여 신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무성한 숲과 화려한 풍경과 더불어 유명한 명산과 심산유곡 등 뛰어난 산과 계곡이 많은 고장이다. 그리하여 계북면 양악리에 위치한 덕유산 국립공원과 장수읍 덕산리에 위치한 장안산 군립공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사철 관광객과 여름철 피서객이 운해처럼 몰려들고 있다. 또한 ① 논개생가 주변과 ② 논개사당 주변의 성역화 사업과 병행 공원화 사업으로 주변 정화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이 곳을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완전 성역화 되었으며 변암면 노단리에 위치한 봉화산 철쭉 공원은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장수군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1) 공원, 유원지

가) 공원현황(2008년기준)²⁴⁾

공 원 명	위 치	공원면적(m ²)	비 고
덕유산 국립공원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231,650	
장안산 군립공원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6,274,594	
논개생가 경내 외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64,772	
논개사당 경내 외	장수읍 장수읍 두산리	49,926	
봉화산 철쭉공원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30,000	2007년부터 2009까지 9 천만원 투자정리

24)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나)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산 향적봉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뻗어 내려 해발 1,507m의 남덕산을 이룬다.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남덕유산 서봉은 백두대간의 정간에 솟구쳐 있으며, 천연 산림이 무성하여 수려하며 깊은 계곡의 협곡을 흐르는 맑은 물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경관을 연출한다. 토옥동계곡의 폭포수와 협곡의 기암괴석은 찾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 곳의 산천어와

토옥동 계곡

송어는 맑고 깨끗한 물에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다) 장안산 군립공원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영취산을 이룬다. 영취산에서 뻗어 내리는 산맥이 금남 호남정맥이다.

호남정맥의 주봉이 우리나라 팔대종산의 하나인

장안산이다. 장안산은 백두대간에서 계남면 장안산 계곡을 이루어 금강의 지류인 유천을 이루고 남쪽으로는 자장 25km에 이르는 변암면 지계곡과 장수읍 덕산으로 흐르는 덕산계곡을 형성한다.

계곡의 푸른 숲과 반석 위를 흐르는 은빛 맑은 물은 급기야 덕산용소 폭포수를 이루고 계곡을 진동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장식한다.

계곡 하류에는 자연휴양림과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있어 국민휴양소로 유명하다.

라) 봉화산 철쭉



백두대간의 거대한 산줄기가 백두산 장군봉을 출발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남으로 1,621.5km을 뻗어 내려가면서 유명한 명산들을 배출하였다. 덕유산, 영취

산, 백운산을 지나 해발 919m의 봉화산(烽火山)을 솟구쳐 놓았다.

봉화산은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와 남원시 아영면과 경계를 이루며 봄이면 약 30ha에 이르는 철쭉 꽃 단지는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철쭉제가 열리며 2m가 넘는 철쭉은 장관을 이룬다.

마) 노하숲 유원지(遊園地)



노하숲의 조성년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1413년(태종 13년) 장수현청이 선창리에서 장수리로 이전하여 오면서 당시 장수의 유일한 통로였던 노하리에 장수천의 풍수해 방지와 노하리와 장수리의 보안과 풍치 등을 고려하여 수구막이 숲이 조성된 것으로 전해오며, 숲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등 노거수가 많고 수종이 다양하며 맑게 흐르는 장수천을 끼고 있어 숲의 경관이 뛰어나 1985년도에 전라북도 고시 제85-137 호 유원지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도 산림청이 주관하고 유한킴벌리가 후원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마을 숲으로서는 유일하게 유원지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의 피서지로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연관찰학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숲의 실태

위 치 : 장수읍 노하리숲일원

입 상 : 느티나무, 소나무, 서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은수원사시 등

수 령 : 600~15년생(대부분 노거수)

하층식생 : 야생화단지(인공식재) 2,300㎡, 잔디밭 2,000㎡

주요시설 : 평상 11개, 음수대 1개, 산책로 500m, 총흔탑 3개(6.25 전쟁 참전용사), 운동시설 21종, 어린이 놀이시설 3종, 의자 40개

2) 장수명산

산 명	표고(m)	위 치	비 고
팔 공 산	1,147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시 무 산	897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사 두 봉	1,014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봉 황 산	853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수 락 봉	759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남덕유산	1,507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구시봉(봉화산)	1,014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백 화 산	851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영 취 산	1,015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백 운 산	1,278	"	
봉 화 산	920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상 서 산	627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사 계 봉	322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성 수 산	1,059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천 반 산	647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장 안 산	1,237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나. 등산로

【등산로 시설 (2008 년 현재)】²⁵⁾

읍 · 면	길이(km)	주요산	구 간
계	95		
장수읍	14.8	장안산	- 장안산 정상 ~ 범연동(5.5km) - 장안산 정상 ~ 밀목재(9.3km)
	22.1	팔공산	- 밀목재 ~ 자고개(9.4km) - 대성리 ~ 와룡자연휴양림(12.7km)
번암면	2.0	봉화산	- 봉화산 철쭉단지(2km)
장계면	3.0	장안산	- 무령고개 ~ 장안산(3 km)
	22.5	남덕유산	- 지보 ~ 남덕유산(5 km) - 무령고개 ~ 육십령 ~ 남덕유산(15km) - 논개생가 ~ 북바위(2.5 km)
계남면	5.3	장안산	- 괴목동 ~ 무령고개(2.6 km) - 지소골 ~ 장안산정상(2.7km)
	9.8	봉화산	- 침령산성 ~ 싸리재(9.8 km)
계북면	15.5	남덕유산	- 토옥동 ~ 남덕유산(15.5 km)

장수군의 산림은 해발 1천미터가 넘는 명산이 16개나 위치하고 있을 뿐

25)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아니라 산림이 무성하고 임상이 풍부하다. 이에 무단 입산하여 일어나는 산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나 탐방객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등산객이 일정한 등산로를 통한 등산을 함으로서 등산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조성해 주고 산림보호를 위하여 유명산 등 일정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입산토록 하고 타 지역 산림 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7. 산촌개발사업



산촌마을 전경



물레방아 전경

농촌마을의 산지를 이용한 소득향상과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감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시책에

의하여 산림욕장 임간 수련장 등과 민박, 숙박, 무공해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휴양과 여가선양을 위하고 산촌마을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995년부터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수군의 지정마을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조성년도	개소수	사업비(천원)	위치	사업내용 (마을현황 등)	
계		7				
중상마을 산촌개발 사 업	1996~ 1997	1	1,870,000	천천면 비룡리 중상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 담장정비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개설, 저온저장고, 임산물건조기 	완료
성곡마을 산촌개발사업	2002~ 2003	1	1,200,000	장계면 대곡리 성곡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안길확 · 포장, 마을진입교량보수 	완료
상동마을 산촌개발 사 업	2003~ 2004	1	1,200,000	번암면 동화리 상동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문화회관, 공동창고 및 저장고 문화복지시설 등 4 종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단지조성, 소득원포장 등 2 종 	완료
장안마을 산촌개발 사 업	2005~ 2007	1	1,300,000	계남면 장안리 장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문화회관, 컴퓨터정비, 배수로정비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휴양관 2개지구 5동, 화장실 1동, 표고버섯 재배시설 	완료
백암마을 산촌개발 사 업	2006~ 2008	1	1,400,000	계북면 임평리 백암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작업장, 컴퓨터 2동, 산촌마을안내판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리재배시설외 6종, 소득원 도로정비, 저온저장고 시설 	
광산마을 산촌개발 사 업	2007~ 2009	1	1,000,000	천천면 용광리 광산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3종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초외 2종 재배시설, 임산물진입로 보수 • 생산녹색체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문화관 신축 	
구신마을 산촌개발 사 업	2007~ 2009	1	1,000,000	천천면 연평리 구신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컴퓨터조성, 들꽃 산책로 조성외 2종 •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자외 2종 재배시설 • 산촌녹색체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문화관 신축, 방문자 센터 신축 	

8. 가로수 조성



노단~동화간벚꽃가로수

가로수 조성 사업은 국토녹화와 가로 경관 조성 공해방제 등의 목적으로 벚나무, 포플러 등을 부분적으로 식재하였으나 1990년부터 도시 내 가로수는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이팝나무, 벚나무 등이 식재되었으며 외각 가로수는 벚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이 많이 식재되었다.

1995년부터 외륜산림휴양림이 조성되면서 천천 소재지로부터 비룡 간 단풍나무, 벚나무 식재와 논개 생가지를 복원하면서 오동~대곡 간 벚나무 식재, 동화댐 주변의 노단~동화 간 벚나무 식재지는 완전 성목이 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장수읍 대성고원지구 입구에서부터 장수읍 경계까지의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 공원화 사업은 순수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식재한 것으로 대성리 전주민의 성금으로(대표:양춘웅) 조성되어 더욱 뜻이 깊다.

【대성고원 국도변 공원화사업 조경수 식재 현황】

식재년도	식재구간	식재거리	참여농가	소요예산	식재수종		대표자	비고
					관 목	교 목		
1997 ~1999	식천 ~대성	4.5 km ²		169,060 천원	23,000 본	1,800 본	양춘웅	

【장수군 도로변 가로수 식재현황 (2008)】²⁷⁾

도로명	식재개소수	식재연장	식재수종	식재본수
국도 13 호			벚꽃나무	
국도 26 호			이팝나무	
지 방 도			단풍나무(홍단풍)	
군 도			느티나무	
기 타 도 로	49	108,348m	선 주 목	12,074본

27) 군 산림과 제공

9. 마을 숲



마을과 숲은 인류역사가 시작되고 인류가 취락을 이루어 집단마을을 형성하고 거주를 하면서부터 숲과 맥을 같이 하였다고 본다.

마을은 행정,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단위이며 인류 문화 발전의 중심이라 하겠다.

마을에 숲을 조성하여 마을의 화합과 협동정신의 함양, 안녕과 질서, 길복을 축원하고 흉화와 재앙을 비는 곳으로 숲을 신앙 시 여겨왔으며 숲에 산신(山神), 목신(木神), 천신(天神), 토신(土神), 석신(石神) 등을 안치, 조탑(窠塔)과 장승 솟대 등을 세우고 마을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온 것이다.

이외에도 숲의 위치를 살펴보면 풍수지리에 맞추어 마을의 방풍과 풍치, 휴양(休養), 보안(保岸), 차폐(遮蔽)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있어 옛 선인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숲은 인류문명과 명맥을 같이 해 온 곳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며 장수군은 대부분의 마을이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숲에는 조탑이나 장승, 솟대 등이 있고 일년에 한번 정월 초하루 또는 정월보름, 이월 초하루 등 다양하게 당산제, 또는 조탑제, 목신제 등을 지내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숲의 문화가 현대화되면서 체육시설 유치, 정자 건립 등으로 마을의 화합과 정서함양, 건강휴양, 체력단련, 피서,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마을 숲 현황】²⁸⁾

28)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면 별	마을 숲 개 소 수	분포 수종
장 수 읍	16	느티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상수리, 층층나무, 팽나무
산 서 면	2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번 암 면	9	소나무, 느티나무
장 계 면	4	팽나무, 느티나무, 산딸기나무, 소나무, 능수버들, 상수리
천 천 면	12	느티나무,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계 남 면	9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젃나무
계 북 면	3	느티나무, 산벚나무, 소나무, 서어나무
계	55	

10. 야생조수

산림이 무성하였던 옛날에는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비롯하여 반달곰, 늑대, 여우, 노루, 고라니, 산양노루 등이 우리 장수지역에도 많이 서식되고 있었으나 산림이 황폐됨으로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총기와 밀렵 도구 등을 이용한 남획으로 인하여 많은 개체수가 멸종됨으로서 정부에서는 1967 년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적극적인 조수 증식을 위한 단속을 함에 따라 많은 개체수가 산림의 녹화와 더불어 증식 된 것이다.

많은 개체의 조수가 증식됨으로 인하여 산촌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여 지자 1977 년 10 월 19 일 내무부령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참새, 까마귀, 까치, 멧돼지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총기를 사용한 수렵도 윤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야생 조수는 산림병충의 천적으로 중요할 뿐 만 아니라 군민 정서함양과 국내외 수렵 관광객 유치에도 중요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야생조수의 증식과 보호가 중요하다.

◎ 장수지방 서식 조수

- 유해조류 : 참새, 까마귀, 까치, 멧비둘기
- 유해수류 : 멧돼지, 멧토끼, 고라니, 서류, 두더지, 다람쥐, 청설모
- 보호조수 : 박새, 피꼬리, 딱따구리, 물총새, 오리, 수달피 등

11. 천연기념물 및 노거수

가. 천연기념물

노거수로서 관상이 뛰어 나고 사료적 가치가 있고 전설이나 설화 등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신성시 여기어 우상화 되어 있는 나무들 중 수종에 관계없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구가에서 지정고시한다. 장수에는 천천면 봉덕리 느티나무와 장수군청의 의암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어 있다.

1) 장수 봉덕리(鳳德里) 느티나무



국가 천연기념물 396 호

천천면 봉덕리

수령 500 년

수고 20m

흉고직경 220cm

봉덕리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서 있는 이 나무는 수령이 약 500 년이나 되는 것으로 봉덕리 사람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이다.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내는 당산제도 이 나무에서 지내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도 언제나 이 느티나무 밑이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 준 나무를 바라봄으로서 봉덕리 사람들은 마을의 평온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얻고 있다.²⁹⁾

29) 천연기념물 비문 전문

2) 의암송 (義岩松)



국가 천연기념물 397 호

장수읍 장수리

수령 500 년

수고 12m

흉고직경 110cm

의암송은 임진왜란 때 진주 축석루 아래 의암에서 일본군 장수를 꺾이고 외롭게 죽은 주논개의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1,500 년대 후반쯤

에 당시 장수 현감으로 최경희 또는 논개가 심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장수군민들은 이 나무에 논개의 의로운 정기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다. 용트림하듯 휘감은 두 줄기와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른 모습은 마치 장수군민들의 드높은 기상을 상징하는 듯하다.³⁰⁾

30) 천연기념물 비문 전문

나. 노거수 및 지정보호수

장수군은 각 읍면별 55개소의 마을 숲이 있다. 마을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마을의 탄생과 같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 매우 오래된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 숲이 노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상이 뛰어나고, 사료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나무를 선정 노거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관리 하고 있다.

1) 노거수 지정현황³¹⁾

31)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면별	마을수	저정보수	지정수종
계	80	310	
장수	18	70	느티나무, 서어나무, 팽나무, 벚나무, 소나무
산서	13	38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팽나무, 서어나무, 버드나무
번암	13	38	느티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젖나무, 감나무
장계	8	18	느티나무, 소나무
천천	17	77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계남	6	18	느티나무, 소나무
계북	6	12	느티나무

〈노거수 수종 별 사진〉



군 민원실 앞 은행나무

지정번호 9-9-2

수령 410년

수고 22m

흉고직경 200cm



장수읍 노곡리 신리마을 뒤편 소나무
지정번호 29
수령 200 년
수고 8m
흉고직경 80cm

2) 장수군 지정보호수

장수군에서는 각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들 중 전설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같이 해온 마을의 수호신격인 나무 더불어 풍치적 가치까지 뛰어나 희귀성을 갖춘 나무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 고시하고 마을 총 책임 하에 보호하고 있다.

【장수군 지정보호수 내역】³²⁾

(단위 : 본)

면별	마을수	지정수종				
		계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장수	4	4	1	1	2	
산서	5	13	2	1	7	3
번암	4	4			4	
장계	5	5			5	
천천	3	4	1		3	
계남	7	7			7	
계북	5	6	2		4	
계	33	43	6	2	32	3

12. 21세기의 환경 임업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산림을 어떻게 하면 자연친화적 산림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산림을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하게 된 것이다.

즉 산림문화란 환경문화를 포괄한 환경윤리를 실천할 이념을 제공하여 주는 새로운 문명체계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산림에 대한 인식변화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가치를 산림으로부터 창출함으로서 산림문화 창달에 노력하게 된 것이다. 자연과 인간

32) 군 산림문화관광과 제공

의 공존이라는 대명제하에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물리적·정신적 기반을 제공하는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문화가 21세기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과 도시속의 숲 생태공원인간의 건강과 휴양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휴양림 조성 임간육장 수련장 임산소득원의 개발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산림육성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단위면적 (ha 당) 임목축적 ----- 111.77

【소유별 임상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 (2008 년)】

(단위 : ha)

현 황	총 계	국 유 림			공 유 림			사유림	비고
		계	산림청	타부처	계	도유림	군유림		
면적(ha)	40,543	9,644	9,543	134	5,054	1,003	4,063	25,800	
축적(m³)	4,531,626	904,939	887,130	17,809	555,944	110,067	445,877	3,070,743	
구분	침엽수	2,058,428	272,141	254,332	17,809	161,854	32,544	119,310	1,624,433
	활엽수	1,615,517	494,842	494,842	-	263,656	55,618	208,038	856,659
	혼효림	858,041	137,956	137,956	-	130,434	21,905	108,529	589,651

【소유별 영급 현황 (2008 년)】

(단위 : m)

구분	임상별	계	I영급	II영급	III영급	IV영급	V영급	VI영급
국유림	총계	4,531,626	-	83,226	1,028,810	2,595,881	646,197	177,512
	침엽수	272,141	-	920	112,928	147,212	11,081	-
	활엽수	494,842	-	30,803	87,215	100,405	164,091	112,328
	혼효림	137,956	-	2,371	77,263	57,102	1,220	-
	소계	904,939	0	34,094	277,406	304,719	176,392	112,328
공유림	침엽수	161,854	-	2,572	32,855	113,644	12,428	175
	활엽수	263,656	-	355	28,198	176,183	56,034	2,886
	혼효림	130,434	-	1,620	47,469	73,847	7,081	417
	소계	555,944	0	4,727	108,522	363,674	75,543	3,478
사유림	침엽수	1,624,433	-	33,828	407,579	962,327	215,973	4,726
	활엽수	856,659	-	5,260	78,620	576,291	151,708	44,780
	혼효림	589,651	-	5,317	156,683	388,870	26,581	12,200
	소계	3,074,743	0	44,405	642,882	1,927,488	394,262	61,706

제5 절 농업관계공사 및 협동조합

1.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한국농어촌공사는 4,900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조성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발전을 주도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이다.

가. 연혁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김병호)는 1937 년에서 1953 년 사이에 설립된 쌍용, 장원, 장계, 산서 등 4 개 수리조합을 통합하여 1961 년 12 월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서 시작하여 1962 년 1 월 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70 년 1 월 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2 년 2 월 장수농조는 남원농지개량조합으로 진안농조는 전주농지개량조합으로 흡수 · 합병되어 각 조합 장수지소와 진안지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정부의 방침과 시대적 조류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등 유사 농업관련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2000 년 1 월 1 일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함에 따라 그 하부 조직으로 전라북도본부 산하 남원지사 장수지소와 전주시사와 진안지소 체제로 운영하여 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의 수리관리 위주에서 행정구역 중심의 새로운 조직체계로 전환,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와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

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1월 장수군에 무진장지사를 신설하였다.

나. 지사현황

1) 조직 및 정원현황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2008년 1월에 부임한 김병호 지사장을 중심으로 3팀(농지은행팀, 지역개발팀, 유지관리팀) 1지소(진안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군(진안, 무주, 장수)관내에 5,020ha의 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며 농업용수 또한 1만 4천710명이 이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자문기관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관리지역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운영대의원(14명)과 용수관리회(155명)가 담당하고 있으며, 쌀 생산전문 경영체 육성을 위해 쌀 전업농 800명(진안305명, 무주150명, 장수34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로는 저수지 61개소, 양수장 3개소, 취입보 133개소와 대형관정 9개소가 있으며, 용배수로 구조물은 용수로 650km 중 435km(67%)이며, 배수로 221km 중 16km(7%)로 용수로의 현대화율은 높으나 배수로의 현대화율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2) 농업기반 시설현황(장수군 관내)

구분	계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일반관정	
	개소	면적(ha)	개소	면적(ha)	개소	면적(ha)	개소	면적(ha)	개소	면적(ha)
장수군	78	2840	29	2719	3	(2000)	30	121	14	(42)

※()는 보조수원공 면적임

3) 역대 지사장

직종	직급	성명	담당업무	관리기간	비고
토목	2급	김정수	지사장	04.01.01 ~ 04.12.31	
행정	1급	김익수	지사장	05.01.10 ~ 05.02.22	
행정	2급	송홍섭	지사장	05.03.01 ~ 05.07.19	
행정	1급	국기천	지사장	05.07.20 ~ 06.12.31	
행정	1급	서삼석	지사장	07.01.09 ~ 07.12.31	
관리	1급	김병호	지사장	08.01.01 ~ 현재	

다. 업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21C농업을 지향하며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 종합관리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어촌개발사업 시행,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 및 직불사업 확대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용수와 간척지 개발,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 지하수자원 관리 등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세계 최고의 간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면적의 2.5배에 이르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 냈으며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도농교류, 신활력사업과 공사법 개정에 따른 어촌개발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개발지원을 위한 해외사업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른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4대강 금수강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한국담배인삼공사 장수지점



가. 연혁

- 1921.07.01 조선연초매판 주식회사 장계영업소 개설
- 1945.01.01 전주 전매지국 장수출장소 장계판매소
- 1950.11.01 장계판매소를 장수전매서로 명칭 및 위치변경

- 1972.01.01 산서면이 임실전매서에서 장수전매서로 편입
- 1981.04.01 정부조직 축소 개편에 따라 남원지청 폐쇄로 전주 전매지청으로 편입
- 1987.04.0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한국전매공사 장수지점으로 개칭
- 1989.04.01 한국담배인삼공사 장수지점으로 개칭
- 1994.04.01 통폐합으로 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진안지점 장수영업소로 개칭
- 2009.06.01 KT&G 장수지점으로 개칭

3. 협동조합(協同組合)

가. 농협협동조합

1)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가) 군지부

1961년 8월 14일 농업은행 장수지점과 구장수군농협을 통합하여 장수군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고, 초대조합장에 이종현씨가, 초대전무에 최준혁씨가 취임하였다. 장수군농협이 설립 당시에 73개의 리동조합과 1개지소(장계지소)가 있었으며 1963년 2월 9일 군조합산서지소가 개설되었다.

1967년도 변암농업협동조합을 시초로 리동조합을 경제권 중심의 읍면단위조합으로 합병하기 시작하여 장계단위조합의 합병을 끝으로 7개의 면단위조합으로 조직되었다.

1972년 5월 31일 군조합산서지소를 폐쇄하였으며, 1978년 2월 28일에

군조합장계지소를 폐쇄하여 시설물을 장계단위조합에 양도하였다. 1980년 12월 30일 농협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2단계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수군농협에서 그 명칭이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로 변경되고 중앙회 지사무소로 되었다.

1989년 말에는 경영이 약세인 3개 단위조합을 흡수 통합하여 4개 농협(장수, 번암, 장계, 천천) 3개 지소(산서, 계남, 계북)로 조직되었으며, 95년 말 조합원수는 7,346명이며 직원 수는 군 지부 23명, 회원조합 157명이었다.

1994년에는 장수농협 북부지소를 개점하였으며 1997년에는 경영약체인 번암농협, 천천농협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2개 농협(장수, 장계)에 6개 지소(산서, 번암, 북부, 계남, 계북, 천천)를 관할하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7,608명이며 직원 수는 군지부 19명, 회원조합은 185명에 이르고 있다.

나) 지역농협

1961년 8월 15일 종합농협으로 발족 당시에는 73개 리동조합에 조합원 8,729명으로서 조합당 조합원이 119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었다.

1967년부터 시작된 단위조합의 합병과정을 살펴보면 1967년 번암면 관내 8개 리동조합이 도내에서 최초로 번암리동조합으로 합병을 시작하여, 계북면이 1969년도에 면단위조합으로 합병되었으며, 1971년도에 3개면(산서, 천천, 계남)이, 1972년도에 2개읍·면(장수, 번암)이, 1973년도에 장계 단위조합이 합병됨으로서 총 7개의 단위조합으로 합병 완료되었다.

리동조합으로 합병과 때를 같이하여 1970년도에 상호금융업무를 취급 개시하였고, 1971년도에 비료, 농사자금, 정책구·판매, 공제업무 등의 4대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으며 1970년 7월 16일 장계단위조합을 선두로 연쇄점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대농민 업무를 단위조합에서 전담하도록 되었다.

1985년 말에는 단위조합의 발전형태를 살펴보면 자립조합 6개(봉사조합 1개, 성장조합 5개), 지원조합이 1개였으나, 1988년도부터 1989년도를 걸쳐 온 단위조합 사무실에 온라인이 개설되고, 1989년도 영세조합의 합병으로 복지조합 2개(장수, 장계농협), 성장조합 2개(번암, 천천농협)로 복지조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4년에는 제2기 민주농협 출범과 함께 「농민본위, 향재농장, ~~그~~실사구

시」의 농협방침에 따라 임직원 정신을 개혁하고 농업인과 하나 되고 고객과 하나 되며 계통간 하나 되기 위한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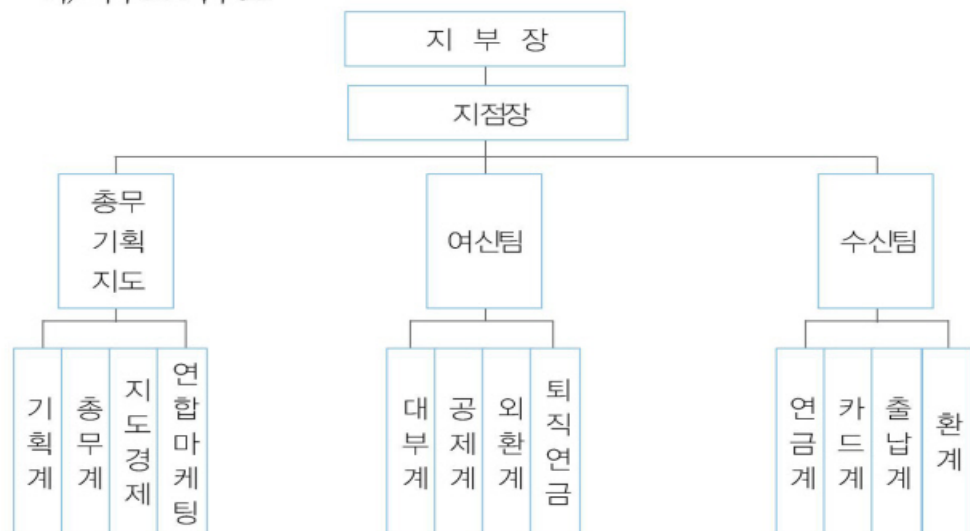
2003년 9월부터 시작된 「새농촌 새농협」운동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조합의 완전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농촌·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도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실천운동으로, 농협이 지역의 경제·금융·문화 복지의 중심이 되는 명실상부한 지역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최고 품질의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이 되고자 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 연혁

- 1961.08.15 현 위치에서 농업은행장수지점과 구장수군농협이 통합 장수군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 초대조합장 이종현 취임
- 1963.02.09 군조합산서지소 개설
- 1967.06.29 변암면관내 8개리조합 합병 변암리농업협동조합 발족
- 1969.07.20 계북면관내 리동조합 합병 계북단위조합으로 발족
- 1970.05.18 장계리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업무 취급 개시
- 1971.04.20 군지부 업무 중 대조합원 업무 단위조합 이관
- 1972.05.31 군조합산서지소 폐쇄
- 1974.11.05 장계단위조합 대통령 표창
- 1975.12.27 장수군농협 사무소 신축(건평 287 평)
- 1978.02.28 군조합장계지소 폐쇄
- 1984.09.28 군 지부 온라인 개설
- 1984.12.31 장수단협 봉사조합 육성
- 1985.12.31 장수단협 종합업적 전국 3위 수상
- 1986.12.31 장수단협 봉사조합 육성
- 1988.05.10 장수단위 조합 종합시설 청사 준공
- 1988.10.15 장계단위 조합 온라인 개설
- 1988.12.05 장수단위 조합 온라인 개설
- 1988.12.01 장계단위 조합 종합시설 청사 준공
- 1989.04.01 단위농협을 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89.08.18 산서농업협동조합 온라인 개설
- 1989.11.17 장계, 계북농협 합병

- 1989.11.20 장수, 산서농협 합병
- 1989.11.27 장계, 계남농협 합병
- 1990.01.13 변암농협 온라인 개설
- 1990.02.03 천천농협, 계남, 계북지소 온라인 개설
- 1990.05.15 제12대 문현모 지부장 취임
- 1990.12.31 발전형태별 복지농협 달성
- 1993.02.11 제13대 이남일 지부장 취임
- 1995.02.08 제14대 박성수 지부장 취임
- 1997.06.30 천천농협 흡수합병
- 1997.12.26 장수농협 미곡처리장 준공
- 1999.02.13 제15대 육영수 지부장 취임
- 2000.07.22 제16대 이희찬 지부장 취임
- 2001.01.01 제17대 박길현 지부장 취임
- 2001.09.21 장수농협 하나로 마트 대형화
- 2001.12.15 장계농협 파머스 마켓 준공
- 2003.01.21 제18대 조옥현 지부장 취임
- 2005.01.21 제19대 박형규 지부장 취임
- 2006.01.01 장계농협 새농협상 수상
- 2008.01.30 제20대 류정용 지부장 취임

라) 사무소 기구표



마) 사업

(1) 신용사업

1961년 8월 15일 종합농협이 발족됨으로써 농협의 신용사업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농협의 타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사업을 보면 농업금융의 전담기관으로서 농업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자금을 동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협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농업 생산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농협 발족 다음해인 1962년도 말 예수금 잔액은 7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1970년도에는 2억원, 1980년에는 8억원, 1985년 말에는 23억으로 328배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1989년 말에는 70억원으로 농업자금 조달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1969년부터 취급 개시한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은 농가주택부금, 농가목돈마련저축, 자립예탁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부락마다 저축반을 조직 1농가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부락을 순회 집급하는 순회 파출제를 실시하였고, 1974년에는 농어촌 1조 저축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단위조합이 동운동의 주역을 맡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저축 추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저축 추진활동에 힘입어 실시 초년도인 69년 말에는 2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75년에 3억원, 80년 말에는 19억원, 85년 말에는 62억원으로 성장하였고 1989년 말에는 193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종합농협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90년도 말에는 240억원 돌파를 계획으로 하고 지속적인 저축 추진활동을 강화하였고, 2000년도에는 지역조합이 요구불 예금에 있어서는 지역조합이 49억원, 장수군지부가 16억원, 저축성예금은 지역조합 1,210억원 장수군지부가 51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지역조합이 요구불 예금 107억원, 저축성예금 2,122억원, 장수군지부가 요구불 예금 59억원, 저축성예금 676억원을 각각 달성하였다.

한편 예수금의 급성장에 수반하여 대출규모도 급격히 증대되었다. 1961년에는 고리채를 신고 받아 농업금융 채권을 발행 대위변제함으로써 농촌의 고질적인 고리채를 정화하는데 기여 하였다. 1965년 이후 농업 개발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1965 년과 1966 년에는 농촌개발의 주축이 될 안정 농가를 조성하기 위한 안정농가조성 사업으로 농지규모가 5~10 단보인 소농을 대상으로 장·단기 농업자금을 공급하였고 1967 년에는 주산지 조성자금을 공급하였다.

대출금 지원상황을 보면 군지부 대출금은 70 년도 말에는 3 억원이던 것이 85 년도 말에는 79 억원으로 증가하였고 89 년도 말에는 231 억원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며 상호금융대출금을 포함한 단위조합의 대출실적은 취급 첫 해인 70 년도 말에는 20 억원이던 것이 1985 년도 말 116 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1989 년도 말에는 320 억 원으로 농촌의 농업자금 확대 공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5 년 말 대출금 잔액이 495 억이었으며 2000 년도에는 상호금융대출금을 901 억을 지원하였으며 2003 년도에는 1,166 억원을 2006 년에는 1,415 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 년에는 1,559 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업자금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지도사업

1961 년 8 월 15 일 종합농협으로 발족 당시 장수군지부의 리동조합은 73 개로써 조합원 8,729 명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직된 리동조합은 사업기반이 취약하여 대규모조합으로 합병이 불가피하여 1967 년 변암면내 8 개리동조합이 변암리농업협동조합으로 합병을 시작으로 1973 년에 7 개의 대단위조합으로 합병을 완료하였고 1989 년에는 경영여건이 영세한 3 개조합을 흡수·합병하여 4 개조합(장수, 변암, 장계, 천천)에 3 개지소(산서, 계남, 계북)를 두게 되었다.

1994 년에는 장수농협 북부지소를 오픈하였으며, 1997 년에는 경영약체인 변암농협, 천천농협을 흡수·합병하였다. 2008 년 말 현재 2 개농협(장수, 장계)에 6 개지소(산서, 변암, 북부, 계남, 계북, 천천)가 있으며 조합원수는 7,608 명에 이르고 있다.

농협 장수군지부는 「항재농장, 실사구시, 농민분위」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해 95 년도에 시험재배 성공한 감자를 96 년도에 대대적으로 권장 530 여 농가가 참여 60ha 면적에 파종, 농협과 전량 계약재배, 종자보급부터 재배, 수확, 판매까지 농협에서 관리해 주는 등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하는 경영으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96 년을 지도사업 개혁의 해로 정하고 새롭고 진보된 지도사업을 펼쳐 영

농 지도사 군단위 Pool 운용으로 군지부의 지도기능 강화와 다양한 농업인 봉사(기술지도, 경영지도)등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2001 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계약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을 추진하여 지자체와 공동체인식제고로 군단위 통합 발전계획 수립계기를 마련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지도사업에 대한 역할 강화 및 농업인의 기대 부응하였다.

2002년도에는 군지부 주관 연합마케팅사업에 성공적으로 착수하였는데 사업품목은 사과이며 물량은 70t, 판매금액 257 백만원 달성하였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일꾼 양성을 목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협여성자치대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였다. 지역 특색사업발굴(가시오가피 특산단지 조성사업, 흑염소 고 급육생산전업농 육성사업, 장수배 선과장 지원사업, 성암부락 녹색생태문화 만들기 조성사업, 아카시아꿀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하여 160백만원 지원 하였다.

2005년도에는 새농촌 새농협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업인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계농협과 남인천농협이 농촌사랑 도·농 자매결연을 맺었고, 장수농협과 전주예수병원도 자매결연을 맺어 농업인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수축협에는 동물병원을 개원하였으며, 장계농협에서는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농촌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사 1촌 자매결연건수가 2004년에는 5건이던 것이 2005년에 2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한 지역자율 특색사업 17 건 357백만원(협력 131백만원, 자체 22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장수사과, 취나물, 오이, 토마토 등 15억원 가량 판매하여 연합(聯合)마케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장수군 공동 브랜드인 「하늘가득 장수사과, 장수메뚜기 쌀」을 지자체와 농협 공동 분담(개발비용 45백만원)하여 개발완료 하였으며, 200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수메뚜기 쌀 판촉 활동을 강화하여 까르프 상암동 본점과 전주점에 입점하여 장수 쌀 판매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 년도에는 새농촌 새농협 우수실천 사례 3 건(새농촌 새농협 운동 관내 조합 릴레이 토론 및 교육 장수사과 바이 전북상품 선정, 장수사과나무

분양 1,560 그루)이 선정되었으며 2007년 10월 18일부터 19일(1박2일) 농촌사랑지도자교육원에서 군수, 의회의장, 조합장, 농민단체임직원등 120명이 참석하여 민관합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41농가 53ha에 농협이 120백만원 지원하여 농가당 연40백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2007년 11월 17일 장수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 한마음 대회를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개최하여 관내 임직원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8년도에는 장수군·관 합동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인삼배단지 조성사업 및 S-APC 유통활성화)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수 S-APC를 2008년 6월 9일 농협(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인수하여 사업초기 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였고 매출액은 44억원, 순이익은 2억원을 달성하였다. 새농촌 새농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사1촌상을 2회(2008.5.2동동정보화마을, 2008.12.9안양마을)수상하였고, 2008년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실적은 480백만원이나 되었고 820 그루의 장수사과나무를 분양하였으며, 2008년 11월 15일 장안산에서 장수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 전임직원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바) 농업협동조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조합원수	직원 수			이용사업 (개소)
		남	여	계	
2000	3807	46	24	0	24
2004	3851	45	24	0	13
2006	3922	50	29	0	7
2008	3948	47	29	0	

2) 장수농업협동조합

가) 연혁

- 1971.07.01 장수단위농협 설립
- 1972.06.16 업무개시
- 1988.04.30 종합청사 준공
- 1989.11.20 산서농협 합병
- 1992.12.31 경제종합센터 건립
- 1993.12.31 판매사업 50억 달성 탑 수상

- 1996.03.31 장수농협 흑염소 가공공장 준공
- 1997.06.30 변암농협 합병
- 1997.12.26 장수농협 미곡처리장 준공
- 2001.09.21 장수농협 하나로마트 대형화
- 2003.12.31 지도업적평가 전국 1 위 달성
- 2004.12.31 지도업적평가 전북 1 위 달성
- 2005.08.15 농협총화상 수상
- 2005.12.31 지도업적평가 전북 1 위 달성
- 2007.06.30 13대 김창수 조합장 취임
- 2008.12.31 총자산 1,973억원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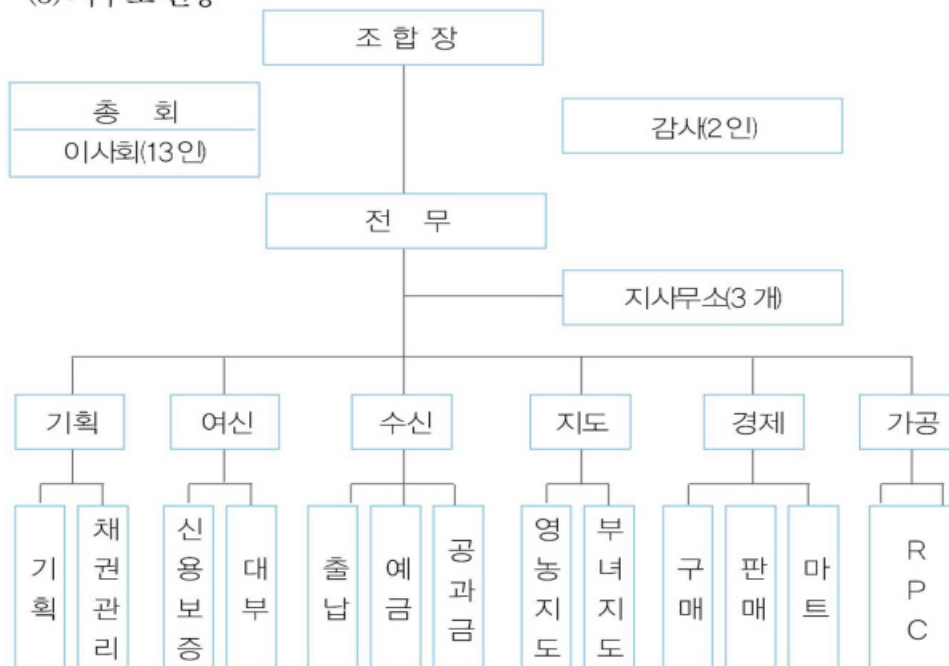
나) 조합현황

(1) 일반현황 : 경지면적 3,972 ha (답 2,634 ha / 전 1,339 ha)

(2) 조합원 현황

구분	장수	산서	변암	계
조합원(명)	1,610	1,020	1,030	3,660

(3) 사무소 현황



(4) 조직현황

사 무 소	주 소
본 소	장수읍 장수리 512-1
북 부 지 소	장수읍 장수리 455-8
산 서 지 소	산서면 동화리 133-3
번 암 지 소	번암면 노단리 1189-1
미곡종합처리장	장수읍 개정리 407

(5) 임직원 현황

구분	임 원 (명)				직 원 (명)							
	조합장	이사	감사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비정규직	계
인원	1	13	2	16	1	6	10	21	6	14	17	77

(6) 협동조직 현황

구 분	영농회	부녀회	작목반	자매결연조합수	비 고
조직수	101	101	25	6	

※ 작목반명

장수 : 사과, 오이, 토마토, 엽채류, 풋고추, 복분자, 오미자

산서 : 쌀, 밤고구마, 배, 자두, 한우

번암 : 상추, 풋고추, 사과, 취나물

(7) 장수농협(본점)역대 조합장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정창석	1~2대	1972. 06. 16 ~ 1979. 07. 31	초대
한순태	3~10대	1979. 08. 01 ~ 1999. 06. 29	
양진기	11대	1999. 06. 30 ~ 2003. 06. 29	
고강영	12대	2003. 06. 30 ~ 2007. 06. 29	
김창수	13대	2007. 06. 30 ~ 현재	

다) 주요시설

(1) 가공시설 및 농산물유통

종별	단위	수량
가공공장	개소	1
R.P.C	"	1
D.S.C	"	1
농산물집하장	"	2
하나로마트	"	3

(2) 영농지원

종별	단위	수량
가스판매소	"	3
유류취급소	"	3
농기계서비스센터	"	3
양곡창고	"	12
기타창고	"	19

라) 주요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08 년 실적(A)	09 년 계획(B)	09.03.31실적(C)	달성율(%) (C/B)	비 고
구 매	14,961	15,432	3,211	20.8	
판 매	18,497	20,000	2,428	12.1	
마 트	5,880	6,330	1,408	22.2	
가 공	6,154	6,462	944	14.6	
창 고	120	121	34	28.1	
운송이용	8	99	4	4	
기 타	416	353	47	13.3	
공제료	7,127	8,056	1,832	22.7	
예수금평잔	107,210	120,479	114,694	95.2	
상호금융대출평잔	75,734	92,260	89,492	97	
출자금	3,413	3,850	3,590	93.2	

마) 경영평가등급 현황

구 분	2007 년도		2008 년도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1 등급	2 등급	1 등급	2 등급

바) 농산물 출하 유통

(1) 본소 유통 · 지도팀 전담팀 구성운영

- 장수농산물의 적극적 유통 · 마케팅 확대를 위해 구성
- 상무 1명, 과장 2명, 일반 3명
- 사과, 미곡, 축산, 일반농산물 출하 및 지도 전담
- 자매결연처 및 대도시 등 직거래 행사 추진 및 판매

직거래 행사 모습



- 매주 화요일 부산사상농협 감전지점에서 축산물직거래행사 실시

(2) 장수군 S-PAC 운영참여

- 전국 제1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부실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농협이 참여
- 운영주체 : 장구군 농협연합사업단 장수농협, 장수군지부, 장계농협, 직원파견)
- 인 건 비 : 파견 사무소 부담
- 업무용 자산 인수기표 (약3억원)
- 취급농산물 : 사과, 토마토, 배
- 2008년도 취급액 : 41 억
- 거래처 : 이마트, 농협유통, 공판장

(3) 2008년도 농산물 취급실적 (수탁)

품 목 별	취 급 물 량 (톤)	취 급 액 (백만원)	비 고
사 과	1,784	5,289	
상 추	686	1,777	
오 이	1,530	1,140	
토 마 토	586	718	
쌈 추	165	442	
한 우	275(두)	1,053	
기타 (가지등)	1,800	1,864	
합 계	6,551(275두)	12,283	

사) 특색사업

(1) 가공사업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및 처리능력】

구분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	싸이로	건 조	저 장	도 정	비 고
규모 및 처리능력	1,583 평	363 평	2,100M/T	2,600M/T	2,100M/T	20M/T 1일 8시간	RPC:303 평 DSC:60 평

(2) 2008년도 RPC 수매현황

(단위 : 가마)

구 분	산물수매		계
	자체	정부	
장수	65,075	1,175	66,250
산서	41,441	700	42,141
번암	13,150	2,175	15,325
합계	119,666	2,175	123,716

※ 08년도 RPC 산물 벼 농가 전량수매

3) 장계농업협동조합

장계농협은 현재 남덕유산, 장안산 군립공원의 수려한 백두대간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산간 농촌형 농협으로 조직은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본소를 두고 3개소와 파머스 마켓과 종합경제사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장계농협에는 임원 18명과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4개면(장계, 계남, 계북, 천천) 35리 97 영농회로 구성되어 있다.

가) 연혁

- 1970.05.06 장계단위농업협동조합 설립
- 1970.07.15 종합청사 신축
- 1973.09.29 명덕리단위조합 흡수합병
- 1974.11.05 대통령 표창
- 1978.12.31 조합발전형태별 자립조합달성
- 1986.12.31 조합발전형태별 봉사조합달성
- 1987.12.31 87 종합업적 전북1위 전국3위 달성
- 1988.12.20 종합청사 신축(현대식 2층)
- 1989.11.17 계북농협 흡수합병
- 1989.11.27 계남농협 흡수합병
- 1990.12.20 계남·계북 지사무소 신축, 판매사업 50억 달성
- 1990.12.31 발전형태별 복지농협 달성
- 1991.02.11 농용자재 백화점 개장
- 1993.11.14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신축
- 1997.06.30 천천농협 흡수합병
- 1999.12.31 선도 복지조합 달성

- 2001.12.15 파머스마켓 준공
- 2002.12.31 경영평가 최우수상, 종합업적 우수수상
- 2002.12.31 파머스마켓 업적 전국 1 위
- 2005.09.20 상호금융 예수금 1,000 억원 달성탑 수여
- 2006.01.01 새농협상 수상
- 2007.06.30 제13 대 박성근 조합장 취임
- 2009.02.18 경영평가 10년 연속 1 등급 달성

나) 조합현황

(1)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주사무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거리 356-3	(063) 351-0056
계남지소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95-6	(063) 352-0934
계북지소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882-1	(063) 352-1110
천천지소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771-1	(063) 352-0528

(2) 조합원 증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7년말	지증가입	기증탈퇴	당기말 현재	농가호수	대의원수(여성)
조 합 원	3,958	101	111	3,948	2,655	125(24)
준조합원	8,206	597	58	8,745	-	-

(3) 주요시설현황

구분	사무실		기타 시설										
	본소	지소	파 스 켓	하 로 트	종합 경제 사업장	집장	유 시 설	잡곡 소포 시설	농 계 타	가 판 매	양 창 고	벼 조 장	기 창 고
수량	1	3	1	3	1	2	1	1	1	1	10	1	14

(4) 자본금 현황

구 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우선출자금	제적립금	합 계
2008년도	4,642	0	17	0	5,717	10,376

(5) 장계농협 역대조합장

초대 ~ 6 대	한천석	1969. 6. 24 ~ 1985. 4. 23
7 대	김생근	1985. 4. 24 ~ 1988. 4. 23
8 ~ 11 대	이택렬	1988. 4. 24 ~ 2003. 6. 29
12 ~ 13 대	박성근	2003. 6. 30 ~ 현재

나. 장수군 산림조합



장수군 산림조합(조합장 정길수)은 1962년 산림법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조직되어 1980년 산림법에서 분리 산림조합법을 독립제정 공법인이 되었으며, 산주와 조합원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행정구역으로는 1읍, 6면 197 리이고 장수군 총면적 53,345ha 중 산림면적은 40,509ha(76%)으로 국유림 9,530ha(23.5%), 공유림 5,066ha(12.5%), 사유림 25,800ha(64%)로서 산림사업 및 상호금융을 통하여 조합원 및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업인 중심의 조합운영 및 조합원 자립기반 확대, 조합원 지원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전 경영실현,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경영방침으로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협동조합이다. 조합장과 임원을 포함하여 25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조합원은 3,174 명으로 산주와 임업경영자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연혁

장수군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1962년 발족하였다.

1980년에는 산림조합법이 독립 제정되어 산림법에서 분리되었으며 1993년에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됨에 따라 12월 12일 장수군 임업협동조합으로 출범, 협동조합 체제에 돌입하였고, 1994년 12월 20일 금융 업무를 개점하였다.

2000년 5월 1일에는 협동조합 통폐합의 문제로 다시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연 도	연 혁
1962. 06	임업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1975. 11	본점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92-1 소재로 이전
1989. 07	산림조합법 개정(임명제) 직선제
1989. 11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제37호)
1993. 06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정(장수군임업협동조합)
2000. 05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장수군산림조합으로 명칭변경
2000. 09	장계지소 설치(장수군 장계면 227-4)
2004. 07	장계지소 폐쇄
2007. 03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2007-34호) (분야: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사업)

2) 기능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3) 기구와 정원 및 운영관계

조합장 1인, 비상임 이사 8인, 비상임 감사 2인, 대의원 50인, 상무 1인으로 지도협업과, 경영지도과, 금융과의 3개과를 운영하며 협업체로는 3개 협업 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톱밥공장을 경영지도과에서 관장하며 운영하고 있다.

가) 기구표



나) 조직

구 분	내 용
지도협업과	조합원관리, 예산결산, 재산, 협업체등
경영지도과	영림계획, 톱밥공장, 조림, 육림, 임도, 사방, 휴양림 등
금 용 과	상호금융, 정책자금 등

다) 정원

계	조합장	이사	감사	직원
25	1	8	2	14

라) 역대 조합장 명단

성 명	기 간 (임 기)	비 고
양 병 하	1962. 5. 6 ~	
김 상 두	1968. 2. 14 ~ 1988. 9. 16	
권 종 소	1988. 10. 12 ~ 2001. 8. 23	
최 용 진	2001. 8. 24 ~ 2002. 5. 3	
최 영 수	2002. 5. 18 ~ 2005. 8. 23	
정 길 수	2005. 8. 24 ~ 2009. 8. 23	
박 용 희	2009. 8. 24 ~ 현재	

4) 사업

장수군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크게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임업인 영림단 등의 육성 지도하며, 기타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

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경제사업으로는 조합원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제조 가공, 공급 등 사업으로 특히 환경을 생각해 임산 부산물과 폐잔재를 이용하여 톱밥 공장을 운영하며 질 좋은 국산재 톱밥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을 통해 춘기 상설나무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우량묘목을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활용하여 묘지관리대행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실향민과 부재산주 조합원, 지역주민의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

산림경영사업으로는 산림의 대리경영, 조림·육림·벌채·산림보호 및 특수개발지역사업과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 산림토목, 산사태복구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휴양림, 생태 숲 등 산로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에는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임업정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이 있다.

다. 장수사과영농조합



사과재배의 신흥지역인 장수군은 군 전체가 해발 400m 이상의 준 고랭지입니다. 고랭지라는 입지조건을 전문용어로는 온양지수(溫量指數)라고 하는

데 사과재배에서 가장 적합한 온량지수는 75~85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사과산지인 일본 아오모리현과 비슷한 87이 장수지방의 온량지수여서 개화 이후 충분한 생육기를 거쳐 완숙된 장수사과는 평지에 비해 월등한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됩니다.

장수사과의 특성

- 육질이 단단합니다.

충분한 생육기를 거친 장수사과는 그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연하여 한입 먹을 때마다 사캉사캉하고 이에 잘리는 소리가 나며 물이 많고 사과 고유의 맛이 강하여 혀에 닿는 느낌은 물론 감칠맛이 입안 가득합니다.

- 농약 살포량이 적습니다.

산간 고냉지인 장수지역은 공해가 없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타 지역보다 농약 살포량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 과당의 생성이 월등합니다.

준 고냉지인 장수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사과의 착색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과당의 생성이 월등합니다.

- 전국 최고의 추석사과 홍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추석사과 홍로는 장수군 사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명품사과로 부상하였습니다.

1) 연혁

장수사과영농조합은 1988년 1월 16일 장수군 과수동우회로 시작하여 1992년 장수사과 작목회, 1993년 한국과수협회 장수지회로 운영되어 오다 1994년 12월 20일 조합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 류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8명 임원진을 선출하여 1995년 1월 9일 장수사과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다.

1998년 6월 27일 종합유통시설(간이집하장, 선과포장, 저장시설) 450평을 준공하여 국내 유일의 세척, 색도, 중량 선별기 및 최첨단 사과 저장시설로 장수사과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M9자근 우량 묘목을 생산하여 조합원에게 공급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였다.

2) 조직현황

연 도	연 혁
1988. 01. 16	장수군 과수동우회 창립(초대회장 김도희)
1992. 08. 24	장수사과 작목회 설립(초대회장 송재득)
1993. 05. 11	(사) 한국과수협회 장수지회 창립(초대회장 류인석)
1995. 01. 09	장수사과영농조합법인 설립(대표이사 류인석)
1995. 02. 16	장수사과영농조합 사무실 개점
1995. 11. 14	과수묘목 생산업 허가 취득
1995. 12. 01	사과우량묘생산 시범사업 추진
1996. 01. 02	사과 대표생산 사업추진
1996. 01. 10	과수유통지원사업 추진
1996. 05. 01	장수사과선단단지 조성공사 발주(21h)
1996. 12. 31	간이집하장 준공(150평)
1998. 06. 27	종합유통시설(저장 선과포장) 준공(450평)
2001. 08. 20	선과장 비기림시설 완공(125평)
2004. 12. 10	공동집하장 시설 준공(360평)

가) 조합 설립일 : 1995년 1월 9일

나) 조합원 수 : 592명 (정조합원 574명, 준조합원 18명)

다) 출자금 : 538,430좌 538,430천원

라) 재배 면적 : 718ha

마) 읍·면별 조합원 현황

읍면별	조합원수	면적(ha)	총주수	품 종 별 주 수			
				홍로	하니	후지	기타
계	592명	718ha	706,428	440,918	54,008	167,407	44,105
장수읍	359명	428ha	423,454	270,129	36,183	93,912	23,230
산서면	10명	7ha	5,750	2,250	1,800	1,200	500
번암면	29명	31ha	26,799	19,049	1,500	3,960	2,290
장계면	44명	52ha	55,222	29,367	4,510	17,972	3,373
천천면	49명	81ha	77,168	51,878	1,880	17,100	6,310
계남면	69명	90ha	87,621	49,528	5,385	24,406	8,302
계북면	32명	29ha	30,424	18,717	2,750	8,857	100

바)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년도	규 모		투자액	작업능력
		수 량	면적(평)		
저온저장고	1998년도	4 동	150	500,000 천원	1회 267m ³ /l
선과장	2004년도	1 동	150	408,000 천원	시간당 5m ³ /l
간이집하장	"	1 동	150	125,000 천원	
공동집하장	"	1 동	360	590,000 천원	
자재 창고	2008 년도	2 동	150	142,000 천원	

3) 취급, 관장 업무

- 지역 특성에 맞는 T337 M9 자근 우량 묘목을 생산 저렴한 가격에 공급
- 홍로, 후지 등
- 농약, 비료, 파이프, 점적관수자재등 각종 농자재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
- 정형과 생산을 위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사업 -450ha
- 직영농장을 관리 운영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 - 6ha
- 조합원 순회 기술지도 및 장수사과 연구회 교육비 연 2회 지원
- 철저한 선별 포장 및 최첨단 사과 저장시설로 농가소득 증대
- 수도권 및 지방 출하지 확대 및 분산 출하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 및 장수사과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

라. 장안산 오미자 영농조합

오미자는 해발 45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약용식물로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장수 지방 고산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약용식물이다. 오미자가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한방약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야생 오미자가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인공재배를 시도하게 되었다.

장수군에서 최초로 인공재배에 성공한 것은 1970년대 초에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백암마을 거주 김복동씨와 계북면 양막리 원종철씨가 시험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전답에 재배를 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장수군은 7개면 중 산서면을 제외한 6개면 전 지역에서 확대 재배함으로써 장수군의 특작 약용작물로 성장하여 왔다.

1980년 후반에 들어 소비가 감소되어 소비시장이 위축(萎縮)됨에 따라 많은 농가가 재배를 포기하였다.

2000 년대에 들어 오미자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판명되고 국민 경제가 부흥해지면서 다시 건강식품과 약용으로 부각되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장수군에서도 많은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여 오미자 재배 영농조합법인이 발족하게 된 것이다.

－ 오미자의 효능

오미자의 다섯가지 맛이 각기 다른 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시고 짠 맛은 간을 보호하고, 맵고 쓴 맛은 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기침이나 천식에 효능이 있다.

전체적 오미자의 효능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의 혈당치를 낮추어 당뇨병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 꾸준히 복용하면 머리를 맑게 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으로는

①간 보호 및 해독작용 ②간염 치료 작용 ③스트레스성 위궤양예방 및 치료 작용 ④호흡기 질환 호흡 중추 작용 ⑤항생작용 ⑥진해 거담 작용 ⑦자양강장 작용 ⑧혈액순환 장애 개선작용 ⑨자궁 수축작용

1) 연혁

2007. 3	장수군 오미자연합회 발족결의
2007.11	장수군 오미자연합회 제1차 협의회 개최(장수,번암,계남,장계)
2007.12	장수군 오미자연합회 제2차 협의회 개최(계남)
	장수군 오미자연합회 창립총회 일정(12월 18 일)확정
2007.12.18	장수군 오미자연합회 창립총회
2008.1.10	2008, 제1차 이사회 (천천면)참여, 영농조합법인설립확정
2008.2.25	장안산 오미자영농조합법인 인가
2008.3.26	장수군 오미자연합회임원취임식
2008.10.28	장수군 오미자 “식품제조가공법” 영업신고
2008.11.20	장수군 오미자 “전시판매장 개장식”
2008.12.18	장수군 오미자연합회, 장안산 오미자영농조합법인 “2008년 정기총회”

※ 조합대표 : 전명선(2009년)

2) 일반현황

(2009년 기준)

주 소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630		전화번호	063)351-6251
상 호	장안산오미자연농조합법인		설립일자	2008. 2. 25
주 품 목	오미자		조합원수	80명
자 본 금	21백만원 (출자액)		년간 매출액	50,000(천원)
주 요 시 설 물	시 설 명	면 적(평)	시설명	면 적(평)
	생산시설	42ha	간이집하장	
	선과장		포장센터	20(평)
사업지역	장수군 6 개 읍,면			

3) 시설과 생산

(2009년 기준)

주 소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630		전화번호	063)351-6252
상 호	장수군오미자연협회		설립일자	2007. 12. 18
주 품 목	오미자진액, 건오미자		조합원수	300명
년간생산량	200 MT		년간 매출액	200,000(천원)
주 요 시 설 물	시 설 명	면 적(평)	시설명	면 적(평)
	생산시설	120ha	간이집하장	
	선과장		포장센터	(평)
사업지역	장수군 6 개 읍, 면			

마. 장수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전북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장수지방은 조선시대부터 연초의 주산지로서 연초의 자유판매기였던 1916년에 유동언, 신현욱 등의 발기로 호남지방 최초의 엽연초 생산 조합으로 설립되어 전북지방의 연초산지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처음 사무소를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 두고 장수군의 장수, 천천, 장계,

번암, 계북, 계남 등의 6개면과 진안군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재래종인 하동엽(河東葉) 250ha로 출발했다. 인근지역의 산지개발에 따라 관할구역의 변동이 매우 빈번했다.

발족 이듬해엔 순창군의 응치, 복흥면을 관할구역으로 관입하여 산지를 확장했다가 1928년엔 순창산지를 폐지하고 연초 종류를 재래종 청주엽(淸州葉)으로 전환했다. 1942년 4월엔 윤봉 연초경작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그 산지를 편입했다.

6·25동란이 휴전되던 1953년에 폐작했던 순창군의 쌍치, 복흥과 인계, 구림, 그리고 정읍군의 산내 면 산지를 개척하여 관할구역의 장수, 남원, 정읍, 순창 등 4개군에 걸쳐 경작면적이 450ha에 달했다.

1957년에는 장수군의 계남 천천면에 황색종(黃色種)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기술의 미숙으로 2년 뒤엔 황색종을 폐지하고 청주엽으로 단일화했다. 1960년에는 진안조합 관할인 임실군의 청웅, 임실, 강진, 윤암, 신덕, 관촌 등 6개면 214.3ha를 편입하고 이듬해 61년에는 정읍과 순창군의 220ha를 정읍 연초경작조합으로 이양했다.

또 이해 구례조합의 해산으로 158ha를 관할 산지로 편입하여 장수군 6개면의 225ha, 남원시 2개면의 17.7ha, 임실군 8개면의 214.2ha, 전남 구례군 7개면의 50.8ha, 나주군 3개면의 31.5ha, 곡성군 4개면의 25.5ha, 여천군 3개면의 50.2ha 등 도합 2개 도(道) 7개 군(郡)에 걸친 33개면에 615ha의 경작면적을 18개 주재구(駐在區)로 나누어 관할했다. 또 동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잎담배 생산 대표자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래의 연초경작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장수 엽연초생산조합으로 개칭하여 발족했다가 1963년 5월 29일 엽연초생산조합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법인(公法人)으로 발족했다.

이에 앞서 1962년 7월 30일엔 행정구역 단위조정으로 전남의 구례, 여수, 곡성군의 산지를 보성 엽연초생산조합으로 이양하고 이듬해엔 연초종류를 버어리종으로 전환했다.

1964년에는 순창산지를 정읍조합으로부터 이관 받고 1966년 9월에는 임실 엽연초생산조합의 창립으로 임실군의 임실, 오수, 삼계, 성수, 관촌, 신평, 신덕, 청웅, 강진, 지사 등의 10개면과 순창군의 순창, 유등, 풍산, 팔덕, 금과, 인계, 구림, 쌍치, 복흥 등 9개면의 산지 450ha를 이양했다. 1974년 2월에는 행정명령에 의하여 운영이 어려운 임실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폐

합하여 경작면적이 1,914.2ha에 이르게 되었다. 1989년 4월 1일자 조합법 개정으로 장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개명되었으며 현재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4개군을 관할산지로 4,638명의 경작인이 910ha에 버어리종을 경작하여 오다가, 이후 엽연초 생산조합과 역사를 같이 해온 담배인삼공사가 KT&G로 민영화되고 경작인 노령화 대체 농작물의 급부상 농촌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작인 1387명에 600,45ha라는 면적이 급속한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에 2003년 11월 26일자로 무주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을 합병하여 1631명에 855,25ha로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무주군 등 5개 군을 관할 산지로 황색종, 버어리종 2종의 연초를 재배하는 복합산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2008년 9월 17일 전주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을 합병함으로써 급변하는 잎담배 생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조합 명칭을 전북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제 2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주 사무소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23번지에 두고,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논산시, 무주군 일원 등 11개 시군 31명이 황색종 29ha, 771명이 버어리종 390ha를 경작하고 있다. 장수엽연초 생산협동조합 구 청사에 전북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장수지소로 명칭을 변경 운영중이다.

1) 연혁

년 도	내 력
1916. 2. 25	장수연초경작조합설립
1917. 3. 1	순창군 쌍치 복흥면을 관할구역으로 편입
1928. 3. 1	순창군 쌍치 복흥면 폐작
1942. 4. 1	운봉조합의 해산으로 당조합에 병합
1953. 3. 1	순창군 쌍치,복흥,인계,구림, 정읍군 산내면 등 일부산지 확장 장수,남 원,정읍,순창 4개군 관할 경지면적 450ha
1957. 3. 10	장수군 계남면, 천천면에 경작품종 갱신(황색종)
1959. 3. 10	황색종을 폐작하고 경작품목을 청주종으로 단일화
1960. 4. 1	진안조합관할인 임실군 청웅, 임실, 강진, 운암, 신덕, 관촌 등 6개면의 214,2ha 편입
1961. 4. 1	정읍 순차 220ha가 정읍 연초조합으로 분할편입, 구례 조합해산으로 158ha가 본 조합으로 편입, 2개도 7개군 33개면 615ha를 관할구역으로 12개 취급소와 18개 주재구로 체재구성운영
1961. 12. 18	장수엽연초 생산조합으로 개칭 하여 발족
1962. 7. 30	전라남도 예천,구례,곡성군의 산지를 보성 엽연초 생산조합으로 이양

1963. 3. 1	벼레종으로 경작품종 갱신
1964. 3. 1	순창산지를 정읍읍연초 생산조합으로부터 이관 받음
1966. 9. 8	임실 읍연초 생산조합 창립으로 임실군의 임실, 오수, 삼계, 관촌, 신평, 신덕, 청웅, 강진, 지사 10개면 순창군의 순창, 위동, 팔덕, 금마, 인계, 구림, 쌍치, 북흥 9개면 450ha 이양함
1974. 2. 1	임실군 읍연초 생산조합을 흡수 합병
1989. 4. 1	장수 읍연초 생산협동조합으로 개명
2003. 11. 26	무주읍연초 생산협동조합을 흡수 합병
2008. 9. 17	전주읍연초생산협동조합을 흡수 합병함, 전북 읍연초 생산협동조합으로 개칭, 11개 시 군 933명에 466,9h를 관할구역으로 7개 지도구로 운영
2009. 9 현재	11개 시군 802명에 419ha를 관할구역으로 7개 지도구로 운영

2) 기구 및 역대조합장

가) 기 구



나) 역대조합장

역 대	성 명	기 간
1~8	유 동 연	1916. 6. 25 ~ 1948. 1. 30
9~12	이 중 현	1948. 2. 1 ~ 1961. 2. 22
13	유 정 희	1961. 2. 23 ~ 1963. 6. 7
14~19	양 기 수	1963. 6. 8 ~ 1981. 7. 31
20	박 판 서	1981. 8. 1 ~ 1984. 7. 31
21~26	김 진 영	1984. 9. 13 ~ 2006. 9. 16
27~ 현재	박 중 현	2006. 9. 17 ~

바. 축산업협동조합



1) 무진장축협장수지점

가) 연혁

- 1957. 06. 12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 1958. 07. 23 장수군 농회 재산 및 업무인수
- 1961. 11. 30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
- 1981. 01. 01 축협중앙회 발족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
- 1985. 08. 31 신축(현) 청사이전 신용업무 개점
(장수리 483-7 번지)
- 1988. 08. 02 장계 예금취급소 개점(장계리 351-7 번지)
- 1991. 06. 28 육가공공장 준공 가동(장수리 465-6 번지)
- 1994. 07. 26 한우계열화사업 지정(농림부)
- 2000. 07. 01 농,축협 통합
- 2000. 08. 01 육가공공장 이전(천천면 남양리 156-8 번지 농공단지내)
- 2004. 11. 27 동물병원 개원(장수리 483-5 번지)
- 2008. 11. 14 진안무주축협과 장수축협 흡수합병
- 2008. 11. 17 무진장축협 장수지점으로 변경
변압지소 폐쇄인가

나) 조합현황

(1) 사무소

본 점 :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97-1

장수지점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83-7

- 대지 : 828㎡ (250 평)

- 건물 : 연면적 846.05㎡

1층 422㎡(127 평), 2층 337.95㎡(102 평) 지하 86.1㎡(26 평)

(2) 일반현황

구역	조합원	시설		사 육									
		육가공	마트										
장수 일원	2450명	육가공 1개소	마트1 개소	한우	위탁	한우		젓소		돼지		닭	
				목장	관리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1,440	900	1572	24,859	4	192	59	49,935	22	709,800

(3) 역대조합장

대	성명	임기	대	성명	임기
1대	유동표	58.01.24~ 61.02.26	11대	김영구	87.04.29~ 89.11.30
2대	이영수	61.02.27~ 62.08.13	12대	김종만	89.12.01~ 93.11.30
3대	황두용	62.08.14~ 66.05.09	13,14,15대	장재영	93.12.01~ 02.04.26
4,5대	류상철	66.05.10~ 72.03.09	16대	최병욱	02.04.27~ 08.11.13
6,7,8대	김용기	72.03.10~ 81.04.28	17대	송제근	06.04.27~ 08.11.13
9,10대	류기동	81.04.29~ 87.04.28	합병	배진수	현재

다) 사업부분별 운영방침

(1) 축산경제

- 축산 유통 : 조합 생산 브랜드 축산물 판매 확대
축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도, 지원강화
- 축산 지원 :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체제 구축
가축개량 선도 및 사업소의 경영 혁신
- 축산컨설팅 : 친환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강화

- 하나로마트 :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비지 중심의 매장규모화 추진 및
경영합리화 추진
농·축산물 전문매장 구현을 통한 판매확대 추진

(2) 신용사업

- 상호금융 : 업무영역 확대 및 조합의 영업력 향상 추지
고객만족, CRM 활용도 제고로 상호금융 고객기반 강화
신규 수익원 발굴 및 신상품 개발
전문선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 농업금융 : 맞춤형 정책자금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대
농업투자 활성화 및 농업분야 IB 시장주도
- 카드사업 : 마케팅 역량 강화로 사업기반 확대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영업점 업무능력 활성화 추진
- 공제사업 : 농업인 및 계약자 서비스 확대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장기보험 추진

(3) 교육지원사업

- 조직육성 및 경영 관리
- 축산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사업 강화
-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
- 품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품차별화 교육
- 1사1촌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도농간 문화 교류 확대

2) 장수축협 산서지소

1840년경 조선 성종(成宗)때 농정과 함께 축산에도 힘을 기울여 말·소·양·돼지·당나귀·닭·거위·오리·꿀벌 등의 9종을 장려했다고 한다. 우리 고장은 돼지·개·염소·닭·꿀벌 등을 부업으로 기르고 소는 농경용(農耕用) 및 운송수단으로 사육해 왔으며, 말은 교통용으로 사육해 왔으나 1950년 이전에 자취를 감추었다. 1960년대부터는 교통 및 운송수단의 발달과 축산업의 기업화(企業化)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성장산업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가) 산서지소 현황

업무개시 : 1979년 2월 1일

업 무 : 가축인공수정 · 사료판매 1989년 12월 30일 현사무실 신축이전
대 지 : 260 평

건물구조 : 단층 슬라브집 40 평

1997년 업무 : 한우개량업무 · 가축인공수정 · 사료판매 · 한우개량단지
선정(암소 750두 관리)

내용	우사		퇴비사		돈사		계사		가 축 사 육 두 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소	돼지	염소	오리	개	닭	사슴	토끼	꿀
계	482	5,150	18	750	14	1,135	88	1,765	3,155	3,760	209	25,530	536	60,550	9	45	382

3) 장수축협 변암지소

8·15광복과 더불어 가축의 도살이 성행하여 가축의 수는 줄어 축산은 위축되었으나 이에 따라 미군정청은 1947년 6월 축우도살 제한명령을 내리고 우량 종우의 보호육성을 꾀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전 국토가 전쟁화되어 가축의 태반을 잃었다. 60년대 이후 정부는 한국의 농촌문제가 미백 편 중 경영에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축산 장려를 실시하였다. 66년부터는 자급 사료에 의한 집단적인 목야지 조성사업에 입하여 69년에는 장수를 비롯 10개 군에 1개소씩 576호가 참여 비육우 841두를 입식 협동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동 축사 단지를 조성하였다. 70년대 들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에 의해 축산물의 매년 증대에 농가소득 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촉진하는 성장산업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가) 축산현황

60년대 초 우리 농촌의 유축농가의 가축사육 형태는 대개 축력을 이용하거나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종류도 몇 가지로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축산의 중요성이 인식 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다양화 되었다.

나) 가축사육현황

(08. 12. 31)

구분	한우		돼지		사슴		개		산양		토끼		닭		오리		꿀벌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군수
2009	233	3,810	18	6,357	3	18	189	602	65	1,708	4	137	4	60,550	6	20,019	248	5,836

4) 장수축협 장계지소

가) 장계지점 현황 및 연혁

- 1988.08.02 장계 예금 취급소 개점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51-7
- 1993.02.10 장계지소 축산물종합판매장 개점
- 2005.07.22 장수축협 장계지점 사무실 이전(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27-10)
- 2005.11.23 장수축협 장계지점 하나로마트 개점(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29-3)

나) 장계지점 사무소 현황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27-10
- 대 지 : 185㎡
- 건 평 : 40평(132㎡)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다) 지점 하나로 마트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29-3
- 대 지 : 223평(738㎡)
- 건 평 : 107평(353㎡)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³³⁾

33) 장수축협 장계지소 제공

사. 장수양잠협동조합

1) 연혁

본 조합은 농업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1973년 6월 20일에 설립되어 장수군 양잠협동조합이라 한다.
특수조합 정관 개정 통보에 의해 1989년 2월 14일로 그 명칭이 장수군 양잠농업 협동조합이라 한다.

농촌산업환경의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잠업농가가 급속도로 감소됨에 따라 1998년도부터 수매사업이 중단되어 일부생산 농가가 있었으나, 약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양잠협동조합의 기능이 소멸되었다.



구장수양잠협동조합 건물로
현재는 개인주택으로 사용하
고 있다.

2) 조합현황

가) 임무와 주요사업

본 조합은 양잠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양잠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농촌생활 개선과 문화향상에 관한 시설)
- (2) 구매사업(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과 공급)
- (3) 판매사업(조합원에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 보관, 가공, 검사와 판매)
- (4) 이용사업(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 시설의 설치, 특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 개량, 관리수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 노동의 효율 증진에 관한시설)

나) 역대 조합장

조합장명	기 간	비 고
유 기 열	1986. 6. 7 ~ 1988. 8. 31	
김 양 순	1988. 9. 14 ~	

아. 농지개량조합

1) 연혁

- 1961. 12. 7. 장수 수리 조합으로 합병 신설 765ha(장원, 장계, 산서, 쌍용)
- 1962. 1. 21. 장수 토지 개량 조합으로 개칭 786ha
- 1966. 3. 1. 장수, 쌍용 토지 개량 조합 분할(61.5ha)
- 1970. 2. 1. 장수 농지 개량 조합으로 개칭 984.6ha(쌍용 흡수)
- 1972. 4. 22. 쌍용 농지 개량 조합 분할(423.8)(쌍용, 산서, 필덕)
- 1973. 4. 6. 쌍용 농지 개량 조합 합병 1,196ha
- 1977. 6. 28. 장남제 설치인가(1,009.0ha)
- 1981. 2. 13. 장수, 남원 농지 개량 조합으로 흡수 합병 2,205.1ha
- 1981. 2. 13. 장수 출장소 신설 2,205.1ha
- 1983. 5. 1. 장수 산서 출장소 분할
- 1982. 2. 1. 남원농지개량조합 합병 장수지소
- 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합병 농업기반공사 출범

2) 목적 및 주요사업

가) 목적

농지 개량 조합은 그 조합 구역안의 농지 개량 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획 정리사업 또는 농사 개량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사업

조합은 조합 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농지 개량 시설의 유지 관리 사업
▲구획 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개답 및 개전 ▲농사개량사업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 복구 ▲기타 조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시설현황

가) 수리시설현황

지구별	저수 지명	준공 년도	유역 면적	만수 면적	저수량	용리 면적	제당			비고
							구조	연장	고	
장수읍	두산	1949	285.0	7.0	164	97.7	토언제	175.5	11.8	
	동촌	1958	208.0	3.0	104	34.0	"	200.0	13.7	
	노곡	1955	120.0	2.0	55	16.9	"	400.0	5.0	
	개정	1958	253.0	4.0	256	80.4	"	176.5	21.2	
	단평	1964	333.0	6.0	220	68.4	"	142.0	17.1	
	염해	1975	120.0	2.0	69.9	15.9	"	130.0	11.0	
장계면	금덕	1953	413.0	7.0	281	85.3	"	324.0	14.0	
계남면	벽남	1974	2,167.0	20.0	969	267.8	"	160.0	16.7	
산서면	도존	1960	500.0	7.0	355	154.8	"	245.0	16.5	
	초장	1959	175.0	2.0	30	10.0	"	253.0	9.0	
	명금	1959	80.0	2.0	40	20.5	"	95.0	4.8	
	매동	1959	122.0	2.0	108	29.7	"	140.0	17.0	
	원흥	1959	90.0	2.0	89	30.0	"	150.0	10.0	
	오성	1959	123.0	2.0	96	20.8	"	186.5	18.8	
	호병	1959	43.0	3.0	65	20.4	"	88.0	7.8	
	쌍용	1938	150.0	4.0	172	61.7	"	110.0	14.0	
	사계	1959	180.0	4.0	216	67.5	"	118.2	13.0	
	원당	1959	180.0	2.0	56	18.6	"	71.0	9.3	

지구별	저수 지명	준공 년도	유역 면적	만수 면적	저수량	몽리 면적	제당			비고
							구조	연장	고	
장수읍	필덕	1974	112.6	11.0	789.0	133.9	"	156.0	22.4	
번암면	장남	1984	2,280.0	37.0	5,970.0	1,000.6	"	285.0	44.0	
장계면	오동	1990	1,317.0	42.0	6,220.0	658.0	"	272.0	51.0	진행중
계북면	지소	1989	1,380.0	16.0	2,171.0	393.0	"	257.0	44.3	진행중
천천면	천천	1998					"	140.0	32.0	진행중

나) 수리시설물별 수리안전담 현황

(단위 : ha, %)

계		전 국			전 북 도			장 수 군		
구분	시설별	기존 자료 (A)	10 년 내 한 능 력 (B)기준	B / A	기존 자료(A)	10 년 내 한 능 력 (B)기준	B / A	기존 자료(A)	10 년 내 한 능 력 (B)기준	B / A
수리시설별 수리안전담	저수지	508,739.7	148,803.3	/29	101,784	14,995	15	1,556	345	22
	보	119,376.2	37,815.1	32	6,592	2,146	33	621	208	34
	양수장	145,254.3	99,758.8	69	14,392	1,915	13	209	209	100
	집수암거	23,178.9	7,584.6	33	936	184	20	62	17	27
	기타	168,290.3	28,034.5	17	11,278	551	5	1,245	4	-
	계	964,839.4	327,982.3	34	134,982	19,791	15	3,693	783	
총답면적		1,328,529	1,328,529		166,342	166,342		5,269	5,269	
수리담		964,839.4	327,982.3	34	134,982	19,791	15	3,693	783	
수리답율		73	25		81	12		70	15	

다) 규모별 수리시설물 현황계

구분	계		50ha 이상		50ha 이 하	
	지 구 수	면적	지 구 수	면적	지 구 수	면적
저수지	88	1,207	6	694	82	513
양수장	13	209	-	-	13	209
보	101	1,752	1	69	100	1,683
집수암거	11	62	-	-	11	62
관정	1	3	-	-	1	3
기타	10	460	-	-	10	460
계	224	3,693	7	763	217	2,930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북지사 장수센터



가.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1) 건강보험

가) 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보험혜택을 줌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

나) 업무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
- 보험급여 지급(현물지급, 현금급여비)
-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2)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

나) 업무

- 장기요양 인정관리, 이용지원, 자원관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관리, 지급관리
- 장기요양 예방사업관리, 장기요양 급여관리

나. 연혁

- 1987.05.27 장수군 의료보험조합 설립 실무반 구성
- 1987.05.30 설립위원회 구성
- 1987.05.30 지원위원회 구성
- 1987.11.01 장수군의료보험조합 설립(직원임용 및 배치)
- 1987.11.06 장수군 의료보험조합 현판식
- 1987.11.14 설립등기
- 1988.01.01 보험료부과(평균 6,163 원)
- 1988.01.15 운영위원회구성(위원 14 명), 이사회구성(이사 6 명)
초대 대표이사선출(대표이사: 유기열)
- 1988.01.22 대표이사 승인(보사부장관)
- 1988.02.01 대표이사 취임식
- 1988.04.01 보험료 1 차 개정(국고지원금 확대로 보험료 하향조정, 평균 4,717 원)
- 1989.08.12 운영위원 자격상실자 해촉 및 위촉(3 명)
- 1990.11.19 제 2 대 운영위원회 구성(14 명)
- 1991.01.04 제 2 대 유기열 대표이사 선출
- 1991.01.22 제 2 대 유기열 대표이사 취임 승인
- 1991.06.01 조합사무실이전(축협 2 층)
- 1992.11.27 운영위원 자격상실자 해촉 및 위촉(3 명), 이사(1 명)선출
- 1993.11.19 제 3 대 운영위원회 구성(13 명, 유임 12 명, 신임 1 명)
- 1994.01.07 제 3 대 대표이사 선출 김정수(金玎洙)
- 1994.01.13 제 3 대 대표이사 김정수(金玎洙) 취임승인
- 1994.01.21 대표이사 취임식
- 1998.10.01 1 차 의료보험 통합(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 개 지역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 2000.07.01 의료보험완전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 개 직장조

합통합)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업무개시 국민건강보험 장수지사

- 2007.1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무주지사, 임실지사, 장수지사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 장수센타
- 2008.07.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 장수센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운영센터
- 2009.0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 장수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운영센터

다. 일반현황

1) 행정구역 및 인구

행정구역	면 적	행정인구
1읍 6면	533.64km ²	23,971명

2) 건강보험 적용

계	지역		직장		의료급여	사업장수
	세대수	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21,115	3,918	9,245	2,711	5,241	1,981	352

3) 사업장 현황

계	5인 미만	5인 이상 ~ 30인 미만	30인 이상 ~ 100인 미만	100인 이상 ~ 500인 미만	500인 이상
352	222	118	8	3	1

4) 직원현황

구분	현원	3급	4급이하
장수출장소	4	1(강석주)	3(전용철, 이돈기, 장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운영센터	4	1(정철원)	3(백관형, 최금주, 정지원)

5) 요양기관 현황

계	종합병원	의료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보건기관	약국
42	-	1	8	-	4	-	4	16	9

6)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현황

일반 기업체			자치단체	조례제정일	지원시작월
기관수	지원금액	지원세대수(월)			
1	2,136	495	장수군	2008.04.26	2008.07

7) 사회공헌활동 현황

지사(출장소)	활동내용	수요처	비고
계	2종	16	
(장수)	도시락 배달	13	훈훈한동네 요양시설
(장수)비고	아름다운 가족	3	자매결연

8)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현황

(2009. 10. 31)

세대수(세대)	총인구(명)	65세이상 인구(명)	비고
10,124	23,971	6,275	

9) 장기요양기관 현황

2009. 10. 31 (단위: 명, 건)

계	전문 시설	공동 생활가정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22	2	2	3	2	5	5	2	1

5. 농민단체

가. 농촌지도자 장수군 연합회

1) 설립목적

우애, 봉사, 창조를 바탕으로 하여 선진농촌건설의 선도적 역할, 과학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민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농촌청소년 및 영농후계자 육성과 우리 농촌 농업의 지킴이로서 흙과 함께 힘쓰며 국가발전과 농촌 선진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2) 연혁

- 1958년 장수군 농사 개량구락부 조직
- 1962년 장수군 농촌 자원지도자 개칭
- 1975년 새마을 영농기술자로 개칭
- 1997년 장수군 농촌지도자로 개칭

3) 주요활동내용

- 군연합회 및 읍면회 위상강화
- 농정 적극 참여로 농업과 농촌 회생 주도
- 농업인 신문 보급 등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
- 회원 확보와 젊은 회원 영입 확대
-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 능력 배양
- 양질미(米) 생산 확대 및 자급도 향상 사업 추진
- 도 농 교류 협력 사업 지속 추진

나. 장수군 농촌지도자 연합회

1) 현황

가) 회원수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349	53	63	42	45	58	43	45

나) 지도자 연합회 역대 회장

연 도 별	학 습 단 체 명	회원수	연합회장	비 고
1956~1958	농사개량구락부연합회	120명	박영석	군 4-H 자원지도자
1959~1961	"	450명	권오병	연합회장겸임
1962~1964	"	720명	양원식	"
1965~1968	"	900명	임채준	"
1969~1970	"	950명	유영철	"
1971~1977	영농기술자구락부연합회	222명	양원식	군영농기술자연합회장
1978~1989	"	180명	홍봉길	"
1990~1991	농촌지도자연합회	282명	이병옥	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
1992~2002	"	306명	임순승	"
2002~2003.3	"	"	한문수	"
2003~2009.2	"	"	김종열	"
2009~ 현재	"	"	조한익	"

다. 한농연장수군연합회

1) 설립목적

본연합회는 농업경영인의 자주적 조직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영농의 과학화, 규모화, 전문화 등으로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2005년 1. 31 제 12대 장수군연합회 이·취임식

2. 24 장수군연합회 정기예산총회

3. 15 가족취미 교양교육(장안리 문화예술촌)

3. 24 장수군연합회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 30~4. 8 제 43회 진해군항제 농 특산물 직판행사

4. 9 농림부장관 초청 수련회

4. 11 제 20회 장수군연합회 한마음축제 및 교육

6. 20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기자회견

6. 30~7. 3 전북 농 · 특산물 직판행사

7. 4 농산물명예감시원 발대식

7. 27~29 제 8회 전라북도 농업경영인대회

9. 8~13 제 2회 전북 농 · 특산물 명품큰장터

11. 8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및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11. 21 우리농업살리기 전국농민총결기 대회

11. 24~27 제1회 도농 어울림 한마당

2006. 1. 19 2005 정기대의원 총회

3. 30~4.8 제 44회 진해군항제 농 · 특산물 직판행사

4. 15 4.15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5. 20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설명회

6. 30~7. 1 한미 FTA 저기 농성투쟁(서울)

8. 8~9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제천)

9. 10 제 2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10. 30~11. 2 제 15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11. 10 제 21회 농업발전 다짐대회 및 제 9회 농업인의 날 행사

- 11. 22 한미 FTA 총궐기 대회
- 12. 6 한미 FTA 저지 상경집회

2007. 1. 9 2006년 한국농업경영인장수군연합회 정기 대의원 총회
- 2. 7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운동
 - 2. 16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 1 차 활동(전주남부시장)
 - 3. 22 한미 FTA 저지 총궐기 전북대회
 - 3. 30 한미 FTA 졸속협상중단촉구 전북도민결의 대회
 - 4. 3 제 22회 한농연 장수군연합회 농업발전 다짐대회
 - 4. 4 한미 FTA 저지 전북농축수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4. 19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장수군지부 촛불 문화제
 - 6. 13 한미 FTA 저지 국토대장정 전국순회
 - 6. 20 한미 FTA 저지를 위한 6 · 20 한농연 제 2차 총궐기 대회
 - 7. 31~2 제 9 회 전라북도농업경영인대회 참가
 - 9. 11故 이경해열사 4주기 추모제 및 결의대회
 - 10. 10~15 전북 농 · 특 축산물 명품 큰장터
 - 11. 18 제 3회 이경해열사 마라톤 대회

2008. 1. 21 2007 년도 대의원총회
- 1. 24~25 영호남 어울림 한마당
 - 3. 14 전북농업경영순회교육
 - 3. 25~31 2008년 해외농업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 4. 14 제 23회 장수군연합회 농업발전 다짐대회
 - 7. 14 농민생존권쟁취 군민대회
 - 8. 11~13 제 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무주)
 - 9. 7 제 4 회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마라톤대회
 - 9. 11 이경해열사 추모식, 농민생존권을 위한 투쟁선포식 대회
 - 9. 25~28 국제 NGO 농업 교류 활동
 - 10. 27~11.1 제 5회 전북 농 · 특 · 축산물 명품 큰장터
 - 11. 1~2 제 4 회 도농 어울림 한마당

2009. 1. 9 200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 13회 임원 선출
2. 20 농협개혁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
 3. 27 제 24회 농업경영인대회
 4. 29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과의 간담회
 6. 22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8. 5~7 제 10회 전라북도 농업 경영인대회
 9. 11 이경해열사 제 5주기 추모묘제
 9. 13 제 5회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9. 29 전북농업인 총 쉼기 대회
 9. 30 농산물명예감시원 캠페인
 10. 30~11. 2 제 18회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11. 17 2009년 전국농민총쉼기대회

3) 현황

가) 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 조직

(단위 : 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372	73	57	44	62	32	60	44

나) 역대회장명단(97년 이후)³⁴⁾

대수	성명	생년월일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직기간	비고
7	이기두	56.8.8	1997.1	1999.1	2년	
8	박영태	59.4.15	1999.1	2001.1	2년	
9	권성안	61.10.13	2000.1	2003.1	2년	
10	장충일	60.11.30	2003.1.9	2005.1.31	2년	
11	김남수	64.11.6	2005.1.31	2009.2	4년	
12	박영택	62.8.11	2009.2	~현재	현재	

라. 장수군생활개선연합회

1) 설립목적

농촌여성지도자로서 건전한 농촌가정을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함.

34) 장수농업기술센터 제공표



장수군생활개선연합회에서 주최한 결혼이민여성 한국음식 체험행사 모습

2) 연혁

-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
- 1977년 국무총리령 제 141호에 의거 부녀단체가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
-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설립
- 1997년 장수군 생활개선회로 개칭

3) 현황

가) 회원수

(단위 : 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300	61	65	19	35	34	46	40

나) 역대회장명단 (97년 이후)

대수	성명	생년월일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직기간	비고
1	노순옥	49.10.10	1993.2.1	1998.2.1	5	
2	김옥자	47.11.8	1998.2.1	2002.1.31	4	
3	이명자	60.04.30	2002.1.31	2007.1.31	4	
4	조방희	60.04.19	2007.1.31	2009.1.20	2	
5	정순임	62.06.07	2009.1.20			

4) 주요 활동내용

- 농촌주거, 농작업한정개선 및 가정관리등 생활개선과제 실천

- 농촌여성소득활동, 영농기술, 농업경영능력 함양 및 영농정보관리
- 농촌문화장달,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활동
-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 여성 후계세대 육성 등

마. 장수군 농민회

1) 설립목적

농민의 농지소유와 이용체계 확립,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식량 자급형 농업 소득 보장형농업을 실현시키고 농민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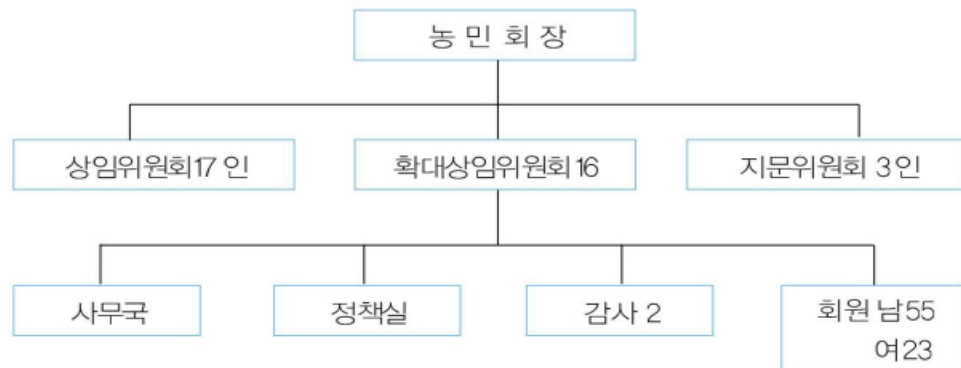
1990년 4월 24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창립

1990년 11월 20일 장수군 농민회 창립

1992년 장수군 여성 농민회 창립

3) 현황

가) 조직



나) 역대 회장

제 1 대 전흥구 (1990 ~ 1991)

제 2 대 이종명 (1992 ~ 1995)

제 3 대 송용기 (1996 ~ 1998)

제 4 대 차용우 (1999 ~ 2000)

제 5대 유병선 (2001 ~ 2002)

제 6대 김정훈 (2003 ~ 2004)

제 7대 이원희 (2005 ~ 2006)

제 8대 김의광 (2007 ~)

4) 주요활동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운동으로서 WTO 신자유주의 농업 부분의 무차별한 시장개방에 맞서 무분별한 농축산물 개방을 막고 식량 자급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농가부채와 농업말살 정책에 맞서 농민의 정치경제 사회적 권리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경제 건설을 위하여 전국 9개 도 연명과 100개 시,군 지역의 농민회가 모여 활동하고 있음.

바. 장수군 4-H본부

1) 설립목적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4-H 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

2) 연혁

- 1947. 03 - 4-H구락으로 처음 조직
- 1952. 12 - 4-H 구락부 운동 정부시책 채택
- 1972 - 4-H 구락부를 새마을 4-H 구락부로 개칭
- 1974 - 새마을 4-H 후원회로 개칭
- 1988 - 한국 4-H 후원회로 개칭
- 2001 - 한국 4-H 본부로 개칭
회원연령을 13~29세에서 9~29세로 조정
- 2009 - 장수군 4-H 본부 창립

3) 현황

가) 조직 수

(단위 : 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110	23	27	7	16	5	20	12

나) 역대 4H 회장³⁵⁾

35) 장수농업기술센터 제공

구분 연도별	리동 4 - H 회		읍면 4 - H 회		군연합회 회 장 명
	조직수	회원수	조직수	회원수	
1960	40	825	3	78	차동열
1961	40	825	3	110	빈영기
1962	40	825	3	115	이두영
1963	72	1,423	3	180	홍봉길
1964	72	1,423	3	184	김봉선
1965	89	1,633	3	220	이종섭
1966	89	1,633	3	225	권희선
1967	89	1,633	3	210	양종대
1968	89	1,633	3	220	박병태
1969	89	1,633	3	232	변봉래
1970	89	2,015	7	445	백명선
1971	89	2,015	7	445	이두형
1972	89	2,015	7	445	육광기
1973	89	2,015	7	445	정길성
1974	89	2,015	7	445	강주환
1975	120	2,220	7	420	왕상두
1976	125	2,360	7	432	왕상두
1977	140	2,500	7	385	김영창
1978	160	2,645	7	372	김영창
1979	166	2,822	7	349	최한양
1980	166	2,857	7	432	윤여권
1981	166	2,918	7	325	채동옥
1982	173	2,834	7	409	최화식
1983	173	3,180	7	528	이성태
1984	173	3,013	7	524	이성태
1985	173	3,470	7	626	윤진성
1986	173	3,934	7	516	김용선

구분 연도별	리동 4 - H 회		읍면 4 - H 회		군연합회 회 장 명
	조직수	회원수	조직수	회원수	
1987	173	4,750	7	502	권병주
1988	50	748	7	196	권병주
1989	47	828	7	202	이병우
1990	47	732	7	224	최재원
1991	17	305	16	440	최재원
1992	29	661	15	318	배진철
1993	15	460	11	222	배진철
1994	8	268	8	97	류기형
1995	8	261	8	112	전상수
1996	8	269	8	128	김대섭
1997	8	269	8	128	이성희
2002	8	269	8	128	한수정
2002. 7	8	269	8	128	양종인
2009. 7	8	269	8	128	권성안

4) 주요 활동내용

가) 4-H 과제활동

－ 정보화, 최신농업경영 관련과제 및 농심함양 4-H 민속농악단 등

나) 교육행사 및 훈련

－ 경진대회, 야영교육, 도·농교류, 국내 외 연수

다) 회의 및 의식교육

6. 국립농산물 검사소 전라북도지소 장수출장소

가. 연혁

- － 1936년경 농림부 농산물검사소 전주지소 장계출장소로서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51-10번지에 위치하여 검사업무를 추진하던 중
- － 1971년 농림부령 제 460 호('71. 8. 18.)호에 의거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51-10번지 본 청사를 용도 폐지하고
- － 1971년 12월 1일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6번지에 신청사 준공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중
- － 1978년 4월경 국립농산물검사소 전라북도지소 장수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1998. 농업통계 사무소와 통합(정부기구축소 정책에 의한)
- 1999.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
- 1999. 진안 장수통합 진안 출장소 개소

나. 임무

-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 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축통계 축산물 생산비 다목적통계 농업 경영체 경영실태통계 신품종 설계

7. 축산위생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

가. 도(道) 축산 위생 연구소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개청일 : 2010년 2월 10일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일환으로 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장수군으로 이전된 신축청사는 총사업비 72억7천100만원(도비 47억7천100만원, 지방채 25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2층, 관사, 창고 및 동물사 등 1만3천185㎡에 건축연면적 3천213㎡의 웅장한 청사가 지난 2006년 착공된지 3년여만에 완공되었다. 장수읍 노하리 일대에 조성된 축산위생연구소는 사무실과 종합실험실, 회의실, 해부실 등의 시설을 갖춘 2층 본관 건물을 비롯해 실험 동물사, 창고, 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장수에서 새출발하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등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밀진단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2과 1시험소 4지소 체제를 육대수 소장을 비롯한 3과 1시험소 3개지소(익산, 정읍, 남원)를 포함 직원 79명이 근무한다. 본 축산위생연구소의 장수군 이전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개선과 연구소 본연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한우 명품화사업과 말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축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장수군의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고위험 병원체와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가 가능한 실험실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며, 연간 1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각종 검사와 관련이나 민원인 등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작업 모습

분뇨 및 소규모 농가의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환경기초시설로 적정운영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

1) 연혁

1998. 7 월 착공

2000. 5 월 준공

2) 시설현황³⁶⁾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 15 번지 일원

36) 장계지 참조

조성면적 : 7,835 m²

구 분	처리용량	처리방법	가동개시일
수처리시설	100 m ³ /일	전처리+B3 공법+고도처리	2000. 5월
하천 자연정화시설	130 m ³ /일	인공습지	2007. 7월

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농촌지역 주요염원인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함은 물론
순환농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오염 없는 청정장수 조성

1) 연혁

- 2007. 1월 실시설계 완료
- 2007. 6월 사전 환경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완료
- 2007. 8월 착공
- 2008. 11월 준공

2) 시설개요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15번지 일원
- 조성면적 : 20,810 m²
- 건축연면적 : 7,266 m²
- 시설물 : 발효시설 76 m³, 비료생산시설 1식, 포장시설 1식, 저장창고 1동
- 비료생산 : 16.3 톤/1일, 4900 톤/年間 펠릿비료 생산³⁷⁾

37) 장계지 참조

8.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가. 농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선별 후 재이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연혁

- 2002.11 월 설치승인 완료, 2002. 12 월 착공, 2006. 9 월 준공

2) 시설현황³⁸⁾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 7 번지 일원

조성면적 : 51,114 m²

시설명 규모(m ²)	계	침출수처리장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장	기타
부 지	51,114 m ²	3,510	6,381	23,223	18,000
건 물	1,375 m ²	343	1,032		

38) 장계지 참조

나.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장계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등을 정화 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방류수역의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1) 연혁

2002. 01. 24 시설설치 인가
 2002. 06. 03 시설공사 착공
 2004. 06. 08. 시설공사 준공 및 정상가동

2) 시설현황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09번지

시설용량 : 2,000m³

찾집관로 : 8.6km³⁹⁾

9. 한국마사회 경주마 장수목장



가. 가구표

직명	성명	전화
목장장	최귀철	350-3701
목장관리팀장	이현기	350-3710
목장지원팀장	이용덕	350-3750

나. 일반현황

한국마사회가 내륙에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을 위해 익산에 예정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상두 전 군수는 장계면 명덕리 일대를 예정지로 선정하고 장계리 양기준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 후 세밀하게 사업을 진

행하여 현 부지에 장수목장이 건립하게 되었다.

다.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지방경마 시대에 따른 경주마의 안전공급 등 경마 후방지원
후기육성 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산마의 질적 향상

【목장별 주요 기능 재정립】

제주목장	장수목장	(원당목장)
생산지원 기능 · 농가 교배지원 · 6개월마 매입 육성	육성지원 기능 · 인프라시설 지원 · 후기육성 강화	마문화 확산 기능 · 공원화

2) 연 혁

- 2001. 11. 08 내륙 제2육성목장 후보지 선정(전북 장수군)
- 2001. 12. 15 목장건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장수군→KRA)
- 2002. 01~11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 2003. 01. 01 국·공유지 대부계약 체결(장수군)
- 2003. 06. 09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03. 09. 30 산림 및 농지전용, 초지조성 허가
- 2004. 01. 01 국유림 대부계약 체결(산림청)
- 2004. 04~12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실시
- 2003. 11~2006. 12 사유지 매수, 분묘 이장 등 보상 실시
- 2004. 07. 21 장수목장 건설 기공식
- 2006. 12. 29 건축물 사용 승인
- 2007. 03. 29 장수목장 공식 개장

라. 주요 기능 및 시설

1) 주요기능

- 가) 경주마의 실적 수준 제고를 위한 경주마 후기육성 기능 강화
 - △ 육성 조련시설의 민간 개방(마방기준 500칸 중 400칸 민간운영)
 - △ 육성조교검사 합격 기준 강화 등 성과검증 기능 강화

- 경마장 입사 후 경주마 활용기간 단축 : 5개월→3개월
- (현행) 순치 및 순응 여부, 발주 후 속보 · 구보 →(추가) 스피드 · 지구력 기록측정 등 연차적 평가기준 강화

나) 국내산마 경매지원을 통한 경주마 경매의 활성화 유도

△ 경주마의 경매 시행확대(현행: 5회, 단기: 6, 중장기: 8)

△ 경매 지원시설 무상 제공(경매장 1개소, 임시계류마사 20칸)

다) 내륙지원 생산농가 총괄지원

△ 우수한 씨수말 확보를 통한 내륙 생산농가 교배지원(23개 농가)

△ 농가 기술지도 및 교육

라) 마문화 확산 위한 관광 및 홍보 자원화 추진(중장기 추진)

△ 목장관광(Stud farm Tour)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관상마 전기, 시설물 무상 개방, 편익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

2) 주요시설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전북 장구군 장계면 명덕리 1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2. 01 ~ 2006. 12(5개년)

- 부지면적 : 1,515,517 m²

(약 46만평, 제주목장의 70%, 히타카목장의 10%)

- 건물연면적 : 35,571.91 m²(10,760.51 평, 62개동)

- 총사업비 : 970억원(부지매입비 117억원, 공사비 688억 등)

※ 대외적으로는 1,16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정산액 기준⁴⁰⁾

40) 장계지 참조

마. 경마공원 유치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마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외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경기장 중심의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비 3천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중부권에 경마공원 1개소를 추진키로 했다.

중부권 경마공원 조성사업은 경마장과 말 테마공원,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서는 대단위 사업으로 올해 경마공원 타당성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제안서를 공모 접수한 뒤, 이를 평가하여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 산업시장이 오는 2012년에는 2조6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장재영군수를 비롯한 오재만장수군의회의장과 의원들은 100년 미래를 이끌 성장산업으로 경마공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수군은 전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말(馬)산업 집중육성지역으로써 마사고등학교와 한국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 장수승마장, 또 최근 완공한 제2승마장 등 전국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장수~포항 간 고속도로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1시간권내에 인접한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타 시군보다 높은 설득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3월 16일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도의원의 질의 답변에 “도는 장수군과 함께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타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역량을 모아준 장수군에 100년 대계를 이을 업적을 남겨달라는 지역구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8년 전국승마대회를 시작으로 경주마 육성목장이 장수에 조성되면서 행정과 지역주민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주마 분양육성 등 지역농가 소득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과 장수군 행정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말 산업의 꽃 경마공원 유치 조성으로 화룡점정 마침표를 찍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제6절 광공업(鑛工業)

1. 광업(鑛業)

장계 수연광산
입구 모습

광업은 대체적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며, 광물은 금, 은, 동, 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의 광업이 다각적으로 개발된 것은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는 세계열강의 세력을 물리치고 한국의 제반 생산권을 강탈하여 무차별 착취하였다. 1930 년대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210 광구가 있었는데 그중 우수한 광구 91 곳을 일본이 소유하였다. 우리지역에서는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에 있는 몰리브덴(molybdenum)광산이 동양에서 제일가는 광산으로 1 개월에 160톤 정도 생산하는 곳이었으나 이 곳을 일본이 소유였다. 당시 한국인이 소유한 광산은 119개로 기술, 자금부족 등으로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전북에는 65 개의 광산이 있었다.

장수에 있는 광산들은 변암면에 4 개로 금광의 광구면적은 2백24만4천평이며, 천천면에는 69만6천평 금광광산은 48만4천4백66평이었고, 계북면 운모광은 87만6천2백82평, 천천면 석금광산은 1백만평, 변암면 수연광은 1백만평, 장계면 수연광은 20만평, 천천면 수연광은 99만7천평이 있었다.

1945년 항방 후 재정 및 기술관계로 이 들 광산은 쉬는 상태였으며, 1950년 6·25사변 이후 광산들은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더욱 휴면상태로 물렸다. 1960년대 들어 비로소 광산이 개발되고 광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 때 외국에 수출한 광물들은 1967년 장석, 자석, 몰리브덴(molybdenum)으로 생산량이 21만3천7백32톤이었으며, 1968년에는 장석과 자석을 1만2천9백30톤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광물수출로

우리가 벌어들인 외화가 18만6천1백여 달러에 이르렀다.

광물수출은 이후에도 계속 되어 1969년에는 규석, 석회석, 동을 6만톤 생산하여 20만6천8백95달러에 수출하였으며, 1970년에는 6만톤에 23만2천5백만달러를, 1971년에는 금, 은, 동, 몰리브덴(molybdenum)으로 5백6천6백46톤을 생산하여 23만2천5백달러를, 1971년에는 규석, 장석을 1만1천톤 생산하여 12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광업은 6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 년대의 장수군 광산업 사업을 살펴보자.

(1) 팔공광산

▲광구지 : 장수읍, 진안군 백운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977,000 평

(2) 장수팔공광산

▲광구지 : 장수읍 대성리 필덕

▲광 종 : 금, 은, 동

▲면 적 : 985,000 평

(3) 장수광산

▲광구지 :

▲광 종 :

▲면 적 : 997,000 평

(4) 장천광산

▲광구지 : 천천면, 장계면

▲광 종 : 금, 은, 탕그스텐

▲면 적 : 234,000 평

(5) 백보대리석 광산

▲광구지 : 장계면, 천천면

▲면 적 : 279,000 평

(6) 장수 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번암면

▲면 적 : 279,000 평

(7) 광 산 명

▲광구지 : 계북면

▲광 종 : 금, 은

▲면 적 : 229,000 평

▲등록일 : 1962년 9월 26일

(8) 몰리브덴(molybdenum) 광산

▲광구지 : 계남면, 장계면, 천천면

▲면 적 :

(9) 장수광산

▲광구지 : 계남면, 장계면, 천천면

▲광 종 : 몰리브덴

(molybdenum)

▲면 적 :

▲사무소 : 장계면 명덕리

(10) 장천광산

▲광구지 : 천천면 월곡리

▲면 적 : 253,000 평

▲등록일 : 1963년 7월 2일

(11)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산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4년 3월 23일

(12)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산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47,000 평

▲등록일 : 1964년 3월 23일

(13) 장수광산

▲광구지 : 계북면, 진안군 동향면

▲광 종 : 규석, 장석, 운모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1964년 3월 27일

(14) 장계광산

▲광구지 : 계북면, 진안군 동향면

▲광 종 : 운모, 규석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64년 3월 27일

(15) 대유광산

▲광구지 : 계북면, 진안군 동향면

▲광 종 : 운모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64년 3월 27일

(16) 성하규석광산

▲광구지 : 산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2년 7월 13일

(17) 금, 은 광산

▲광구지 : 산서면

▲광 종 : 금, 은, 동, 연, 몰리브덴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1년 7월 28일

(18) 송천광산

▲광구지 : 장수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5년 4월 28일

(19) 규 석

▲광구지 : 변암면, 경남 함양 백전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5년 8월 3일

(20) 규석광산

▲광구지 : 변암면, 경남 함양군 백전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5년 8월 3일

(21) 금, 은 광산

▲광구지 : 장수읍, 계남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창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6년 2월 24일

(22) 금, 은 광산

▲광구지 : 산서면

▲광 종 : 금, 은, 동, 연, 몰리브덴

▲면 적 : 92,000 평

▲등록일 1966년 3월 12일

(23) 금, 은, 동, 연 광산

▲광구지 : 계남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창연

▲면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1년 3월 25일

(24) 삼성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유화철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1967 년 3월 2 일
 (25) 죽림광산
 ▲광구지 : 변암면 죽림리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유화철
 ▲면 적 : 175,000 평
 ▲등록일 1967 년 1월 27 일
 (26) 활석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골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7 년 8월 4 일
 (27) 금, 은 광 산
 ▲광구지 : 계남면
 ▲광 종 : 금, 은, 동, 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1년, 3월 25 일
 (28) 금, 은 광 산
 ▲광구지 : 계남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창연
 ▲면 적 : 213,000 평
 ▲등록일 : 1971년 3월 25 일
 (29) 금, 은 광산
 ▲광구지 : 계북면, 무주군 안성면
 ▲광 종 : 금, 은, 몰리브덴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67 년 10 월 25 일
 (30) 장수 대리석
 ▲광구지 : 장계면, 계북면
 ▲광 종 : 석화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7 년 7 월 28 일
 (31) 금, 은 광산
 ▲광구지 : 장수읍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69 년 11 월 4 일
 (32) 골석광산
 ▲광구지 : 장계면, 계남면
 ▲광 종 : 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2 년 9 월 18 일
 (33) 석회석 광산
 ▲광구지 : 계북면, 진안 동향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72년 9월 8 일
 (34) 규석광산
 ▲광구지 : 계북면, 진안군 동향면
 ▲광 종 : 규석, 장석, 운모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73년 11 월 20 일
 (35)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변암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5년 1 월 20 일
 (36)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변암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5년 1 월 20 일

(37)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5년 2월 4일

(38) 규석 광산

▲광구지 : 장수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5년 2월 4일

(39) 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천천면

▲광 종 : 활석

▲면 적 :

▲등록일 :

(40) 금, 은 광산

▲광구지 : 장수읍, 진안군 백운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16,000 평

▲등록일 : 1975년 12월 13일

(41) 금, 은, 동 광산

▲광구지 : 장수읍, 진안군 백운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19,000 평

▲등록일 : 1975년 12월 13일

(42) 규석 광산

▲광구지 : 번암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5년 12월 23일

(43)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천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5년 12월 24일

(44)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번암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7년 11월 29일

(45)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무주군 안성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1975년 12월 27일

(46) 석회석 광산

▲광구지 : 번암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7년 1월 12일

(47) 몰리브덴(molybdenum) 광산

▲광구지 : 장계면, 계북면

▲광 종 : 몰리브덴

(molybdenum)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7년 12월 31일

(48) 운모광산

▲광구지 : 장수읍

▲광 종 : 운모

▲면 적 : 180,000 평

▲등록일 : 1977년 3월 18일

(49) 규석광산

▲광구지 : 번암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7년 5월 25일
 (50) 금, 은 광산
 ▲광구지 : 장계면, 계남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7년 6월 3일
 (51) 규석광산
 ▲광구지 : 천천면, 장수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7년 11월 29일
 (52) 규석광산
 ▲광구지 : 계북면, 장계면, 천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8년 1월 14일
 (53) 금, 은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54) 석회석 광산
 ▲광구지 : 계북면, 천천면, 장계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8년 1월 10일
 (55) 석회석 광산
 ▲광구지 : 천천면, 진안군 동향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78년 1월 16일

(56) 금, 은, 동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면 적 : 26,000 평
 ▲등록일 : 1978년 12월 13일
 (57) 금, 은, 동, 연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면 적 : 278,000 편
 ▲등록일 : 1978년 12월 13일
 (58) 금, 은, 동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면 적 : 72,000 평
 ▲등록일 : 1978년 12월 13일
 (59) 규석광산
 ▲광구지 : 장계면, 천천면
 ▲광 종 : 규석,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9년 2월 7일
 (60) 장석광산
 ▲광구지 : 천천면
 ▲광 종 : 장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9년 8월 22일
 (61) 금, 은, 동, 아연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79년 8월 29일

(62) 금, 은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0년 1월 21일

(63) 금, 은, 동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아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0년 12월 30일

(64) 금, 은, 동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0년 12월 30일

(65) 석회석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1월 22일

(66) 장석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장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7월 8일

(67) 규석광산

▲광구지 : 계북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8월 21일

(68) 규석광산

▲광구지 : 계북면, 장계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8월 21일

(69) 규석광산

▲광구지 : 계북면, 장계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8월 21일

(70) 규석광산

▲광구지 : 천천면, 진안군 진안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8,000 평

▲등록일 : 1981년 9월 23일

(71) 아연 유화철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11월 20일

(72) 규석광산

▲광구지 : 천천면, 장계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1년 12월 26일

(73) 규석광산

▲광구지 : 변암면, 산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1982년 2월 3일

(74) 규석광산

▲광구지 : 계남면, 천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2년 3월 25일

(75) 규석광산

▲광구지 : 장계면, 계남면, 천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2년 8월 31일

(76) 석회석 광산

▲광구지 : 천천면, 진안군 진안읍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3년 1월 7일

(77) 규석광산

▲광구지 : 장계면, 함양군 서상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24,000 평

▲등록일 : 1983년 2월 3일

(78) 규석광산

▲광구지 : 천천면, 진안군 진안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3년 3월 7일

(79) 석회석 광산

▲광구지 : 천천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3년 3월 9일

(80) 금, 은, 동, 연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동, 연

▲면 적 : 280,000 평

▲등록일 : 1983년 8월 19일

(81) 규석광산

▲광구지 : 계남면, 천천면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3년 10월 6일

(82) 석회석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3년 11월 19일

(83) 은, 연 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은, 연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4년 1월 25일

(84) 장석광산

▲광구지 : 장계면, 계북면

▲광 종 : 장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4년 2월 6일

(85) 장석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장석

▲면 적 : 280,000 평

▲등록일 : 1984년 7월 18일

(86) 석회산 광산

▲광구지 : 계남면, 장계면, 천천면

▲광 종 : 석회석

▲면 적 : 279,000 평

▲등록일 : 1984년 12월 11일

(87) 규석광산

▲광구지 : 장수읍

▲광 종 : 규석

▲면 적 : 279,000평

▲등록일 : 1985년 4월 23일

(88) 물리브덴, 장석, 규석 광산

▲광구지 : 장계면

▲광 종 : 물리브덴, 규석, 장석

▲면 적 : 134,000평

▲등록일 : 1985년 11월 27일

(89) 물리브덴, 규석, 장석 광산

▲광구지 : 장계면

▲광 종 : 물리브덴, 규석, 장석

▲면 적 : 134,000평

▲등록일 : 1985년 11월 27일

(90) 논곡광산

▲광구지 : 변암면

▲광 종 : 금, 은

▲면 적 : 279,000평

▲등록일 : 1985년 12월 30일

2000년대 장수군 광산업 사업⁴¹⁾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광구소재지	지적	호수	면적	광종명	존속기간 (From~To)	대표광업권자	주소	비고
1	003501	'97'06'4	계내면			65	규석, 물리브덴, 장석	2002/02/21~2022/02/20	주식회사 디엔에프	장계면 금곡리 산40-7호	휴업
2	028792	'95'02'4	장계면	장계	115	279	석회석	2004/12/01~2024/11/30	오영 (주)에이신업	장계면 장계리286-2	기동
3	044273	'97'04'2	진안군 동향면 계북면 천천면	장계	103	265	석회석	1996/04/13~2016/03/31	정찬웅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39	휴업
4	051219	'97'80'16	계북면	장계	104	279	석회석	2003/01/17~2023/01/16	정찬웅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39	휴업
5	051220	'97'80'16	천천면	장계	113	278	석회석	2003/01/17~2023/01/16	정찬웅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39	휴업
6	059350	'98'50'507	계내면	장계	057	236	규석, 물리브덴, 장석	2002/02/21~2022/02/20	주식회사 디엔에프	장계면 금곡리 산40-7호	휴업
7	059351	'98'50'507	장계면	장계	056	41	규석, 물리브덴, 장석	2002/02/21~2022/02/20	주식회사 디엔에프	장계면 금곡리 산40-7호	휴업
8	062475	'98'00'327	장수읍	오수	007	279	활석, 사문석	1989/03/28~2014/02/28	인춘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143-1 팔복거성애2-102호	휴업
9	063052	'98'00'824	장수읍	오수	006	279	활석	1989/08/25~2014/07/31	이샘	장수읍 대성리532-2	휴업
10	063053	'98'00'824	장수읍	오수	016	279	활석, 사문석	1989/08/25~2014/07/31	이희숙	장수읍 대성리532-2	휴업
11	071223	2000/09/16	장계면	장계	105	139	석회석	2000/09/17~2020/09/16	장수광업 주식회사	장계면 금곡리151-5	기동
12	076448	2010/02/20	계남면	장계	116	139	규석	2001/02/03~2021/02/02	주식회사 디엔에프	장계면 금곡리 산40-7	기동
13	074554	2005/04/01	변암면	함양	106	69	석회석	2005/04/02~2025/04/01	정순화	전남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882	휴업
14	074555	2005/04/01	변암면	함양	116	139	석회석	2005/04/02~2025/04/01	정순화	전남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882	휴업
15	075158	2005/12/28	장계면	장계	089	69	규석	2005/12/29~2025/12/28	화일산업 주식회사	장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69-6 예스빌2차 4층	휴업
16	075829	2006/02/04	계북면	장계	093	139	석회석	2006/12/05~2026/12/04	이상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331 홍제현대아 104-1203호	휴업
17	076310	2007/08/03	장수읍	오수	002	139	규석	2007/08/04~2027/08/03	영제북	서울 구로구 구로동 722-55	휴업
18	076405	2007/09/20	진안군 백운면, 장수읍	오수	023	279	금, 은, 동	2007/09/21~2027/09/20	규덕회	전북 익산시 영동동253-1	휴업
19	076675	2008/01/02	계북면	장계	082	69	규석, 장석	2008/01/03~2028/01/02	오성훈	장기 광양시 광명동78 광명영하아파트 A 102-205호	휴업
20	076677	2008/01/02	진안군 동향면, 계북면	장계	081	60	규석, 장석	2008/01/03~2028/01/02	오재훈	서울 양천구 목동601-6 예bene셀302	휴업
21	076679	2008/01/02	계북면	장계	075	139	장석	2008/01/03~2028/01/02	신두철	장계면 장계리375	휴업
22	076689	2008/01/07	천천면	장계	126	69	장석	2008/01/08~2028/01/07	김숙이	천천면 춘송리13-40	휴업
23	077322	2008/09/26	계남면	함양	091	279	금, 은	2008/09/27~2028/09/26	박성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228-2	휴업
24	077323	2008/09/26	장수읍	함양	092	279	금, 은	2008/09/27~2028/09/26	박성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228-2	휴업
25	077324	2008/09/26	장수읍	함양	101	279	금, 은	2008/09/27~2028/09/26	박성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228-2	휴업
26	077325	2008/09/26	장수읍	함양	102	279	금, 은	2008/09/27~2028/09/26	박성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228-2	휴업
27	077326	2008/09/26	계북면	장계	062	278	규석, 물리브덴	2008/09/27~2028/09/26	박성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228-2	휴업
28	077375	2008/02/01	변암면	함양	148	69	사문석	2008/10/21~2028/10/20	송윤아	경기 시흥시 은행동542 두산A102-1503	휴업
29	077803	2009/04/28	장수읍	오수	024	279	금, 은	2009/04/29~2029/04/28	심재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331 홍제현대아 104-1203호	휴업
30	077875	2009/06/10	천천면	장계	104	209	규석	2009/06/11~2029/06/10	주식회사 세마	장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66 이코노브망 707	휴업
31	077935	2009/07/06	천천면	천안	007	278	금, 은, 규석	2009/07/07~2029/07/06	정무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35 트리지움 301-203	휴업
32	077945	2009/07/09	장계면	장계	115	69	장석	2009/07/10~2029/07/09	정영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589-24	휴업
33	078034	2009/07/18	계북면	장계	093	139	규석	2009/08/15~2029/08/14	강도경	대전 서구 정림동641-1 늘푸른A103-1608	휴업
34	078230	2009/02/29	장수읍	오수	026	139	규석	2009/10/30~2029/10/29	주식회사 국제광업	강원 평창군 온고리 산 3-1	휴업

41) 장수군청 기획홍보실 제공

2. 공업(工業)

가, 소규모 도정공장 현황⁴²⁾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가공능력	비고
장수정미소	장수읍 장수리 647	손문옥	351-2204	1995	12	휴업
선창정미소	장수읍 선창리 261-1	최철진	351-8898	1995	9	휴업
두산정미소	장수읍 두산리 272	신상철	351-2551	1995	4.5	휴업
개정정미소	장수읍 개정리 647	김정두	351-2527	1995	9.6	폐업
송천정미소	장수읍 송천리 135-2	김순철	351-8165	1995	9	휴업
용계정미소	장수읍 용계리 454-2	강석균	351-3350	1995	9	휴업
오성정미소	산서면 오성리 862-2	김영순		1995	6.5	
쌍계정미소	산서면 쌍계리 443	박용운	351-5243	1995	5.6	
봉서정미소	산서면 봉서리 382	정경수	351-4266	1995	4	
계월정미소	산서면 사계리 370	정택균	351-4543	1995	9.6	
오룡정미소	산서면 이룡리 370	김영철	351-5636	1995	9.6	
신창정미소	산서면 신창리 277-5	이대중	351-4761	1995	13	휴업
학선정미소	산서면 학선리 794-4	형남노	351-3883	1995	4.5	폐업
동고정미소	산서면 학선리 549	엄완섭	351-5547	1995	12	
산서정미소	산서면 동화리 436	홍순목	351-3900	1995	9.6	휴업
죽산정미소	번암면 죽산리 378-3	정상조	353-4510	1995	9	
논곡정미소	번암면 논곡리 418	정준모	353-4977	1995	11	
대론정미소	번암면 대론리 313	장병권	353-3552	1995	9	
장계정미소	장계면 장계리 430-5	김갑두	352-0212	1995	7	
평화정미소	장계면 장계리 522	이영철	352-0066	1995	5	
무농정미소	장계면 무농리 536-6	박옥서	352-0968	1995	9.6	
덕성정미소	장계면 금덕리 370-4	송창준	352-1493	1995	9	
월강정미소	장계면 월강리 513	이귀정	352-2251	1995	3	
명덕정미소	장계면 명덕리 855	강병옥	352-2051	1995	4.5	폐업
양삼정미소	장계면 명덕리 855	주창섭	352-2008	1995	7	
춘송정미소	천천면 춘송리 684	박기재	352-0561	1995	7	
침곡정미소	계남면 침곡리 526	이효진	352-1443	1995	7	
대창정미소	계남면 신전리 203	양종화	352-0962	1995	4.6	폐업
화양정미소	계남면 화양리 550	양윤철	352-1089	1995	4.5	
대동정미소	계남면 공양리 439	이경술	352-1087	1995	4.6	폐업
매계정미소	계북면 매계리 231-8	송정옥	352-1211	1995	5.6	
외림정미소	계북면 원촌리 872	김기성		1995	7	폐업
양악정미소	계북면 양악리 773-1	정점식	352-6604	1995	9.6	
백암정미소	계북면 임평리 1257	박동제	352-7958	1995	3.9	폐업
춘송정미소	천천면 춘송리 778-2	최민순		2008	2.4	
대창정미소	산서면 신창리 277-5	대창영농조합법인 (정상운)		2009	2.4	

나. 석목공예

- 1) 석공예 - 장수읍 장수리 142-2
장수읍 대성리 221
변암면 교동리
- 2) 목공예 - 장계면 장계리 325-10
장계면 장계리 522
장계면 장계리 125-2
장수읍 개정리 472-1
산서면 하월리 143
- 3) 어 항 - 산서면 쌍계리 377



석기공장

제 7 절 상업(商業)

1. 광복이후의 상업



장수군의 옛 시장 모습

한국의 시장은 광복이후에도 일제시대의 시장규칙에 따라 제1호시장, 제2호시장, 제3호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호시장은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상품을 매매 교환하는 장소(장)를 말하고, 제2호시장은 20명이상의 영업자가 일정한 장소 내에서 주로 곡물과 식료품의 판매를 행하는 시장(공설시장)

을 말하며, 제3호시장은 위탁을 받아 식료품의 판매를 행하는 장소(도매시장)를 당시에 말하는 것이었다.

8·15광복이전에 장수군에는 장수시장(0일, 5일), 장계시장(1일, 6일, 82년 8월부터 3일, 8일), 산서시장(2일, 7일), 변암시장(1일, 6일) 등 4개 시장이 있었다.

일반고시 제7호에 의하여 미곡자유시장이 인정된 것을 비롯하여 10월 10일에는 고시 제2호로 담배, 소금, 인삼, 아편 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일반상품의 자유거래가 허용됨으로써 완전 자유경제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미가동으로 인하여 일반물자의 부족과 경제사회 질서의 혼란에 따른 물가의 앙등으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동년 11월 15일부터 고시 제4호로 수산물, 석유류, 미곡류 등의 통제를 실시하고, 1946년 3월 5일부터는 구체적 통제 대상품목을 정하여 군정법령 제90호로 광범위한 통제경제를 실시하였다.

1946년 6월 26일에는 면포류(綿布類), 면직류(綿織類), 성냥, 비누, 양말, 농기구, 목재, 지류, 시멘트, 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1947년 3월 26일자로 모직물, 마직물, 제복, 작업복, 내의류, 전구, 양초, 동물성 기름, 자동차, 자동차 타이어와 튜브, 주정, 맥주, 코크스 등 10개 품목이 2차 통제품으로 지정되어 1946년 7월~1947년 5월까지의 전국 금융조합연합회의 산하기관인 도지부와 군지부를 통하여 소매상인에게 공급되었고, 1947년 6월~1948년 8월까지의 물자행정처에 의해서 통제되었으며, 정부수립후(1948년 8월 15일)는 상공부아래 물자운영조합연합회(物資運營組合聯合會)를 두고 산하의 도물연합회, 군물연합회를 통하여 소매상인에게 물자를 공급하였다.

다만 비료는 금융연합회의 산하기관에서 취급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에 의해 국내경제가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감에 따라 1947년 6월 27일에는 농기구를, 1948년 1월에는 맥주에 대한 물자통제를 해제하고 물가통제도 해제하였다.

이어 1950년 4월에는 면포 외에 13개 품목에 대하여 물자와 물가통제를 해제하여 자유경제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 후 6·25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혼란과 피해를 입었으나 1954년 1월 1일을 기하여 면포, 10월 5일에는 양지, 시멘트, 카바이트에 대한 관리를 해제함으로써 완전히 자유경제 체제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장수군에서도 도매상과 소매상의 점포수가 점차 늘어났다.

2. 50년대 이후의 상업

장수에서는 1955년부터 원촌시장(4일, 9일)이 개설되었고, 1957년부터 천천시장(3일, 8일)이 개설되었다가 천천시장은 63년에 원촌시장은 77년에 각각 폐쇄되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유통기구의 근대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시장법이 법률 제704호로 1961년 8월 31일에 공포되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일반시장(소매)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전라북도에서도 시장질서의 확립과 시장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1964년 12월 30일 시장개설 허가 갱신을 실시하고 정기시장으로 장수시장, 장계시장, 산서시장, 변암시장 외에 원촌시장, 천천시장이 새로 인가되어 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후 70년 초까지 유통근대화를 위한 투융자(投融資)가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유통부문의 영세성과 비효율성 저생산성은 여전하였다.

1971년부터는 유통정책이 단편적으로 구상되고 고도성장과 함께 불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1971년에 사단법인 새마을슈퍼체인본부의 설립을 통한 소매상연쇄화(小賣商連鎖化)사업을 추진하고 1973년 유통기구 개선을 위한 슈퍼체인회사기업추진을 함으로써 1974년에 전북에서도 전주, 군산, 이리에 슈퍼마켓이 세워지고 장수군에는 76년부터 장수(차상점)에 79년에는 장계(양기준)에 슈퍼마켓이 들어섰다.

이로 인하여 장수군에서는 정기시장의 점포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1976년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 1월 4일에는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이 법률 제3244호로 제정되어 유통산업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유통질서의 확립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1981년 12월에는 시장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유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43) 전북대관 참조

3. 시장의 현황

장수군에는 4개소의 시장이 있는데, 1일과 6일은 번암, 2일과 7일은 산서, 5일과 10일은 장수, 3일과 8일은 장계 장날로 장수 특산품인 사과, 오미자, 과채류 등의 농산물과 생활물자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장계시장은 전북동부산악권의 교통중심지로 인근에 있는 진안, 무주는 물론 경상도 함양, 거창에까지 상권이 형성돼있다.

【시장 및 상가현황】⁴³⁾

시 장 명	개장년도	대 지	건 평	점 포 수
장수시장	1977	1603평	517평	33
산서시장	1953	524평	87평	12
번암시장	1928	1876평	297평	35
장계시장	1931	1871평	493평	39

가. 장수시장



1) 현황

- 위 치 : 장수읍 장수리 460-2 일대
- 개설년도 : 1977년(재건축 2004년)
- 정기장날 : 매월 5일 · 10일
- 면 적 : 부지 5,299㎡, 건물 1,709㎡(6블럭 33칸)

- 취급품목 : 잡화(11), 식품(5), 음식(4), 의류·신발(4), 대장간(1), 기타(8)
- 상 인 회 : 장수전통시장 상인회장 김삼석 (회원 33명)

2) 사업

가) 추진사업(1,829백만원)

- (1)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1,691백만원('03.12~' 04.08)
- (2) 대장간 및 공연장 설치 등 : 80백만원('07.09~' 08.01)
- (3)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시행중) : 58백만원('08.12~' 09.08)

나) 장수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목 적 : 장수만의 문화특성을 살린 비가림시설을 설치 전천후 쇼핑 공간을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9. 11 ~ 2010. 06
- 사 업 비 : 1,176백만원 (국비 572백만원, 군비 604백만원)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철골조), 배수로 및 포장공사, 전기공사

3) 장수읍 업종별 상점⁴⁴⁾

업 종	갯수	업 종	갯수	업 종	갯수
가스	3	분식점	10	자동차부품	1
가전제품	3	불교	5	자동차장비	7
가축병원	1	비디오	1	자동차판매	1
가축인공수정	2	사무기기	1	자전거	1
간판사	5	사진관	2	장례식장	2
건강원	4	샷시	4	장 의사	1
건강식품	1	서점	3	전기공사	3
건설업	9	석기	5	정미소	2
건어물	1	석재	1	정육점	3
건자재	1	세탁소	5	정화조	1
건축설계	1	수도난방보일러	7	제과점	3
결혼상담소	1	수양원	2	제재소	1
골재	3	수산물	1	조경공사	1
공업사	5	수예점	1	조립식건축	2
관광	3	슈퍼마켓	12	족발	2

44) 장수읍사무소 제공

업 종	갯수	업 종	갯수	업 종	갯수
교회	13	식당	51	주조장	3
그릇	2	식품	9	주유소	6
금은방	2	신발	3	증장비	10
낙시	1	쌍크대	1	증화요리	7
노래방	3	안경원	1	지업사	1
농기구	1	악국	4	지하수개발	2
농산물유통	2	양복점	2	천주교회	1
농약사	3	에어컨	1	철물점	3
농장·과수원	28	여관	3	철재	1
다방	12	열쇠	1	청과물	1
당구장	2	예식장	1	체육관	2
레미콘	1	오락실	1	체육사	2
레스토랑	6	오토바이	2	닭집	8
렉카	1	용달(화물)	3	커튼	1
목공소	2	우유	2	컴퓨터	1
문방구	2	원불교	2	택배	5
미곡상회	3	위성방송	3	택시	13
미용실	13	유선방송	1	터미널	1
방앗간	6	육묘장	3	페인트	2
법무사	3	음악사	1	피자	3
병원	4	의류(기성복)	4	학원	8
한의원	1	의류(아동복)	2	한약방	2
보험	6	이동통신기기	1	화원	3
복권	1	이불	2	화장품	3
부동산	4	이용원	7	휴게소	1
뷔페	1	인쇄소	2		
분뇨수거	1	자동차번호판	1		

나. 장계시장

1) 현황

장계전통시장은 300 여년전에 형성되어 육십령을 위주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고, 곡물전에 어물전은 기본이고, 가축전, 용기전에 철물전, 비단전까지 있을 것은 모두 있었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또 쇠전 옆 공터 가마솥에서는 돼지머리와 내장이 부글부글 끓고, 잡화전 앞 간이식당 양은솔에서는 국수 삶은 냄새가 구수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졌었다.

그러나 점차 농촌의 인구감소와 교통발달로 시장이 날로 침체되자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3월 23일 중소기업청 10억원과 군비 12억5천만원 등 총 2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대화 환경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하여 동년 12월 31일 6개동 39개의 점포와 주요시설을 갖춘 시장이 완공되었다.

여기에는 삼대 대장간 철공소(박추길), 용기점, 철물점, 토목점, 그릇가게, 옷가게, 양말가게, 가방가게, 신발가게, 슈퍼, 건어물가게, 생선가게, 마늘가게, 채소가게, 과일가게, 튀밥가게, 약초가게, 옛날 물건 사고팔고 등 26칸, 식당 8칸, 관리실, 방범대사무실, 화장실 2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동안 재래시장에서 불편을 겪었던 상인들은 2006년 5월 23일 현대화된 새로운 상점에 입주 개장하였다. 이로써 상인들은 깨끗하게 정돈된 점포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고객들은 이를 즐겨 찾고 있어 장수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는 장수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마인드가 잘 반영된 사례이다. 이제 장계 장터는 장날이면 쌀이며, 콩, 팥 등 곡식을 머리에 이고 지고 십리 길도 멀다 않고 걸어오던 아낙네들의 모습은 드물어도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장에 들어오는 풍경과 두툼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모습으로 북적이고 있다.

장계 장날은 1980 년경 인근에 있는 진안군의 시장일 변경에 따라 매월 1 일 · 6 일에 장이 서다가 매월 3 일 · 8 일로 변경되어 장이 서고 있다.

2) 사업

가) 장계 거점면소재지 사업 선정 70억 예산확보

장수군이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거점면 종합 개발사업 최종대상지로 각각 선정됨에 따라 총 1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 게 됐다.

이번 대상지 최종 선정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강한 의지 와 군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올 초 농어촌 뉴타운 시범조성사업과 육십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선정에 이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장계 거점면 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은 장계면 장계리 동동마을 등 7개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상권의 중심성 확보, 복지서비스 기능강화, 녹색 경관 중심기능 확보, 정주기반기능 확보, 지역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 70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⁴⁵⁾

45) 전북매일(2009. 12. 30)

3) 장계면 업종별 상점⁴⁶⁾

46) 장계지 참조

업 종	갯수	업 종	갯수	업 종	갯수
가구	1	복권	1	자동차정비	11
가스	2	분뇨수거	1	자동차판매	1
가방	3	분식점	10	자판기	1
가전제품	6	부동산	6	장 의사	2
가축병원	2	비료	3	전기공사	7
가축인공수정	2	사료	4	정미소	4
간판사	2	사무기기	1	정육점	3
건강원	8	사진관	3	제과점	2
건설업	21	샷시	5	제재소	3
건자재	2	서점	2	조립식건축	2
결혼상담소	1	석재	3	족발	4
골재	5	세탁소	5	주방기구	1
고물상	2	수상스키	1	주유소	5
공예사	2	수예점	1	중장비	27
관광	4	슈퍼마켓	15	중화요리	4

업종	갯수	업종	갯수	업종	갯수
관광농원	2	식당	56	지업사	4
금은방	3	식품	12	지하수개발	2
냉동	2	신발	4	찜질방	1
노래방	2	안경원	1	천막사	1
농기계	5	악곡	3	철공소	1
농산물유통	3	양복점	2	철물점	5
농약사	6	양봉원	1	체육관	1
농장·과수원	11	여관	4	체육사	1
다방	3	예식장	2	치킨센터	6
닭집	1	오락실	1	커튼	1
당구장	2	오토바이	2	컨테이너	1
레스토랑	6	요가	1	컴퓨터	1
렉카	5	용달(화물)	4	택배	3
메리야스	1	우유	1	택시	12
모터수리	1	위성방송	1	터미널	1
목공소	3	유선방송	1	페인트	4
목욕탕	1	유흥업	5	풍수지리	1
문방구	2	육묘장	1	피자	1
미곡상회	4	음악사	1	학원	14
미용실	10	의료기기	1	한약방	2
방앗간	9	의류	8	화물	1
벽돌	1	이동통신	2	화원	5
병원	6	이불	3	화장품	4
보일러	7	이용원	4	횃집	1
보험	4	인쇄소	2		

다. 산서시장



1). 현황

산서시장은 동고마을 앞에서 장이 서다가 언젠가부터 동화리(桐花里)로 장이 옮겨 와 장이서고 있다.

산서시장이 동고마을에서 동화리로 왜 옮겨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으나 산서시장을 아직도 동고시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산서시장은 여느 농촌 시장보다 규모가 짜임새 있고 운영도 잘된 편이며, 소·돼지 매매도 이루어 졌다한다.

일제(日帝)말기에 농촌경제가 파폐하게 되자 시장도 자연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 1953년 장을 세우기 위하여 난장(亂場)을 텃으며, 매월 2일과 7일로 개장(開場)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당시 장막은 통나무목조·양철지붕난가게였다. 1994년 정주권사업이 시작되어 상가(商家)는 물론이고 시장내(市場內) 일반 가옥(家屋)까지도 현대식 건물로 건립되어 면소재지답게 변모되었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교통이 편리해지자 값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남원(南原)·오수(鰲樹)시장을 주로 이용하여 산서시장의 규모도 작아지고 시장의 발달 전망도 적어졌다.

2) 산서면 업종별 상점⁴⁷⁾

업종	갯수	업종	갯수	업종	갯수
가구	1	방앗간	3	장 의사	3
가스	2	보험	1	정미소	3
가전제품	2	비디오상	1	정육점	3
가축인공수정	2	유리샷시	1	제재소	1
건강원	4	세탁소	1	조립식건축	1
건설업	3	슈퍼마켓	6	주유소	3
경운기수리센터	2	식당	7	증장비	9
고물상	1	식품	1	중화요리	2
관광	1	신발상회	2	지업사	1
교회	1	어물상	3	철물점	1
노래방	2	악국	1	축산사료판매상	2
농기구	1	오토바이	1	택배	4
농약사	2	용달(화물)	2	택시	4
농장과수원)	6	유선방송	1	터미널	1
다방	1	유흥업	1	토종골	1

47) 산서면지 참조

업종	갯수	업종	갯수	업종	갯수
닭집	1	의류(기성복)	1	학원	2
당구장	1	이용원	2	한약방	1
목욕탕	1	자동차정비	1	화장품상	2
미용실	3	자전거	1		

라. 번암시장



번암시장이 서는 곳

1) 현황

번암면 노단리 1039-6번지 1,497평에 1927년 12월 20일 전라북도지사의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번암시장이 개설되었다. 1928년 2월 1일부터 정기시장을 매월 1·6일(오일장) 월 6회로 개장하여 날로 번창일로로 거듭하였다. 번암시장은 이웃지역의 인월, 장계, 오수시장 보다도 유명한 장터로 1935~1950년대에는 번암광산의 전성기로 우시장을 비롯해 가축시장도 잘 되었고 생필품 교환도 활발하였다.

또한 외지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어 면단위인 이곳에도 여관이 3곳 있었으나 방이 모자랄 지경으로 붐비었다. 1950년대에 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목조·합석 점포 12동(건평 75평), 공동화장실 1동(7평)을 신축하였으나 1984년 7월 7일 폭우로 시장전체가 침수되어 35세대 18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수해복구는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기존의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35사단의 도움으로 시장 부지를 성토하여 슬래브 2층 건물 4동 연건평 2,486㎡(860.9평)시장으로 일신되었으나, 번암광산의 폐쇄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교통의 발달로 차츰 쇠퇴해 가는 실정이다. 현재 점포 수는 35개소이다.

2) 번암면 업종별 상점⁴⁸⁾

업종	갯수	업종	갯수	업종	갯수
가스	2	불교	1	정육점	1
건강원	2	샷시	1	제재소	1
건설업	6	석기	1	조경공사	2
관광	2	슈퍼마켓	1	조립식건축	1
교회	7	식당	26	주조장	1
노래방	1	식품	1	주유소	3
농장(과수원)	2	신발	1	증장비	9
다방	1	악국	1	지하수개발	1
당구장	1	연관	1	철물점	2
레스토랑	1	용달(화물)	1	치킨(닭집)	1
문방구	1	유흥업	2	택시	3
미용실	1	의류(기성복)	1	터미널	1
민박	6	이용원	1	토종꿀	1
방앗간	3	자동차정비	2	학원	2
부동산	3	자동차판매	1	휴게소	1